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신비의 라오스 6일
8월 23일, 30일 단 2번 8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동영상이 제공되는 기사입니다.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6월 22일(음력 5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 531 호

법당이야 교실이야?

"불교 재미있네요"

서울 덕산中 불교반 은평법당에서 격주 특활수업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혜와 사랑이요!"

"자비와 사랑 아니냐?"

효장 스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나름대로 지난 시간의 기억을 더듬으며 답을 한다. 이때 "지혜와 자비요!"라고 정답을 말한 3학년 제식이가 스님에게 과자를 받았다.

6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은평구 홍은동에 위치한 금장사 은평법당(주지 효장)이 덕산중학교 불교반 '야단법석'(지도교사 유재숙)의 특별활동실로 변했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 일곱번째로 법당에서 열린 특별활동 수업은 학생들이 즐기면서 불교를 배우는 기회.

이날 특별활동 수업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지도법사는 지난 2월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효장 스님. 스님은 매주 일요일 진행하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격주로 찾아오는 야단법석 지도를 위해 밤을 지샌 날이 부지기수. 그래도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난다고 한다. 교리 복습에 이어 수화도 다시 해본다.

찬불가 '이 작은 등불 하나'에 맞춘 손짓 하나 하나에 정성과 즐거움이 묻어난다.

야단법석 부회장인 3학년 선민이는 "처음에는 지루할 줄 알았는데 연등을 만들고 수화도 배우면서 즐겁게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교리 강좌. 99명을 살해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앙굴리마라 이야기에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운다. 앙굴리마라가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와 부처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부처님을 통해 참회하고 불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듣는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강의 중간 중간에 계속되는 퀴즈와 과자를 받기 위한 아이들의 고군분투(?)는 수업의 윤활유다.

올해 처음 생긴 불교반이지만 57명 지원자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7명이기에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의지는 대단하다.

유재숙 선생님은 "4년 전부터 은평법당과 인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돼 아이들 수업을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효장 스님 덕분에 이렇게 알찬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인 3학년 재원이는 "야단법석이라는 명칭이 재미있어서 불교반에 지원했다"며 "불교에는 어려운 한문만 있고 재미도 없을 줄 알았는데 효장 스님께 배우는 것들은 다 신나는 것들뿐"이라고 말한다. 이렇다보니 어느새 재원이는 집전을 담당하는 야단법석의 '목탁 지존'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법당에서 마음껏 배우면서 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효장 스님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해 수화, 한문, 악기 연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재밌어 하는 것 같다"고 귀띔한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종단이 보조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나 사찰에 배포하면 스님들이 더 열심히 포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덕산중 불교반 '야단법석'이 6월 15일 은평법당에서 수화를 배우고 있다.

"침해 역사에 깊은 참회"

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공식 사과'

6월 14일 한일불교교류대회서



일본의 침략을 사과하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수덕사=고영배 기자

"일본이 과거 귀국을 침해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과 참회의 마음과 함께 다시 불미한 일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을 맹세한다."

6월 14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열린 제2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평화기원법회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이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일본 불교계 참가자 81명을 비롯 총 300여명의 한일불교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미야바야시 쇼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본과 한국의 1500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시기의 불행한 역사관에 의해 단절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불교대표의 사과는 한국 침략 과거사에 대해 일본 불교계가 교류를 시작한 지 30년만에 공식적으로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불교계는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입장표명을 회피해왔다.

이에대해 한국 불교계는 일본불교계의 입장표명 없이는 대회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일본불교계의 사과 입장 발표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차원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다피아, 수행 · 복지 · 신행 전문가 상담코너 개설

불자들이 직접 절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에서 운영하는 국내최대 불교포털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 불자들을 위한 상담코너가 마련됐다.

6월 20일 문을 연 부다피아 상담코너는 수행, 신행,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불자들의 고민이나 평소 궁금해 하던 점을 해소하는 카운슬러 역할을 하게 된다.

▲**선(禪)수행 분야**는 제방선원에서 오랜 실참과 참선 지도를 겸해 온 스님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수행자들의 공부 경계를 지도점검 해 주는 '사이버 선방'으로 운영된다. 현응스님(서울 육조사 선원장)과 운거 스님(지리산 선림원 원장)이 직접 불자들이 수행과정에서 겪은 장애와 의문점을 풀어준다.

▲**복지 · 신행분야**의 복지정보 상담은 '나눔마을' 박왕호 이사가, 불교복지 및 노인문제 상담은 강지현 부다피아 사회복지부 팀장, 불교신행 및 자원봉사 상담은 이남숙 조계종 포교사가 각각 맡아 보살행을 위한 노하우를 일러준다.

사회복지시설 홈피제공

부다피아, 25일 무료교육

현대불교미디어센터(HBMC) 부다피아에서는 6월 25일 오후 2~5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 본사 2층 사무실에서 제 1차 불교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대상 무료 홈페이지 제공 교육을 실시한다. 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단체들은 전화로 신청 접수한 후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02)2004-8285

상처 · 좌절 · 스트레스…

마곡사 가서 녹이자

마곡사 · 本社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공동주최

조계종 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진각)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좌절을 부처님의 자비 속에 명상으로 녹여버리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나, 너, 우리 함께'를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삶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에게 치유와 희망, 사랑을 남기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근후 박사 등 전문가의 강의와 '나는 존귀한 사람' 코너의 부처님 되기 체험, 새벽숲길 걷기 명상, 참회 108배 등 내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7월부터 확대되는 주5일근무제에 발맞춰 진행되는 마곡사 템플스테이는 △치유명상-몸과 마음의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한 시간(7월 1~3일) △새 출발을 위한 템플스테이-이혼경험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시간(7월 8~10일) △참회명상-낙태(유산)경험 등 마음의 슬픔을 덜어 놓는 시간(7월 15~17일) △가족명상-가족의 화목과 화합을 위한 시간(7월 22~24일) △사랑나눔-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시간(7월 27~28일) △어린이명상-이 나라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시간(7월 29~31일) △부부명상-배우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8월 5~7일 △희망나눔-장애우 가정을 위한 시간(8월 12~14일) △지혜나눔-60대 어르신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시간(8월 26~28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템플스테이-세상을 향해 우뚝 설 젊은이(20대 취업대기자)를 위한 시간(9월 2~4일)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041)841-6226 www.magoksa.or.kr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060-700-1080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이웃
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할'



그림 · 조태호

혜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마하몰 추천 우수상품 특별기획전

신문지면광고를 통한 전화주문 고객에 한하여 아래 특판가격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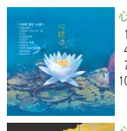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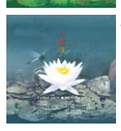
▌심경(心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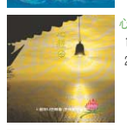
"반야심경", "심묘장구대다라니", "금강경찬" 불경을 힙합리듬에 기타소리를 접목시킨 앨범.
30년 동안 음반제작자경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불교음악을 보급해온 안치행씨가 제작하였고 시인 김하리씨가 불경의 내용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 낭송을 하였습니다.

1set : 1. 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2. 의미 있는 노래
2set : 3.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4. 옴나니 반메흠,관세음보살
3set : 5. 불자가요메들리 1 6. 불자가요메들리 2


心經 (1) – 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1. 반야심경
2. 신묘장구대다라니
3. 금강경찬
4. 옴마니반메훔


心經 (2) – 의미 있는 노래
1. 연등축제 2. 마음을 다스리는 글 3. 무심
4. 보왕삼매론 5. 무상계 6. 마음의 등불
7. 회심곡 8. 아제아제 바라아제 9. 생사윤회
10. 어이아나


心經 (3) –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시낭송
1. 천수경 2. 금강경 3. 반야심경
4. 법구경 5. 무상계 6. 보왕삼매론
7. 마음을 다스리는 글
8. 어머니 아리랑(노래)
9. 독도의 눈물(노래)
10. 옴마니반메훔


心經 (3) –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시낭송
1. 옴마니반메훔 – 작곡 : 안치행
2. 관세음보살 – 작곡:안치행


心經 (5) – 불자 가요메들리 1
1.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2. 옴마니반메훔
3. 부처님 뜻
4. 인연 5. 오계
6. 니르바나
7. 옴마니반메훔


心經 (6) – 불자 가요메들리 2
1. 법문사경 2. 나무관세음보살 3. 관세음보살
4. 향불 5. 법화경 6. 옴마니반메훔
7. 팔자 8. 촛불공양 9. 관세음보살
10. 회자정리 11. 라훌라 12. 옴마니반메훔
13. 한번만 웃어봐요 14. 관세음보살

· 2CD(1set) : 20,000원 · 2MC(1set) : 10,000원 · 풀세트(6CD,6MC) : 75,000원

▌반야심경 고급손목시계

불자님을 위해 스위스 론다 최고급무브먼트를 사용하여 만든 반야심경손목시계
큐빅 13피스와 6시와 12시를 제외한 시간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글자를 새겨 견고함과 품격을 더한 고급손목시계


라운드브라운 (TCW100-1)


라운드블랙 (TCW100-2)


아크브라운 (TCW101-1)


아크블랙 (TCW101-2)


손목시계케이스

~~77,000원~~
55,000원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한 패션 손목시계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시계줄과 동자승 캐릭터가 새겨져 있습니다


[TCW200-1] [TCW200-2]
[TCW200-3] [TCW200-4]

[TCW201-1]
[TCW201-2]

▶ 재 질 : 케스팅케이스
▶ 무브먼트 : Japan Move
▶ Print Dial
▶ 3기압 방수

19,800원

▌음이온 석재다보탑 ~~398,000원~~ → 300,000원

'음이온'이 발산하며 '야광빛'으로 신비로운 불국사 다보탑 석재 모형(1:30)



1) 재질 : 자연 대리석 (90%). 야명석 (8%). 음이온분말 (2%).
2) 특징 : 본 제품은 우리나라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을 석재로 조각및 기계가공하여 만든 국내유일의 "소형석재모형다보탑" 이며 다보탑 실제크기의 1/45로축소 제작되었고 일반적인 모형 다보탑(크리스탈및 종이재질)과는 달리 섬세한 조각기술과 기계가공으로 예술품으로서의 소장가치는 물론 실내 인테리어용 소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또한 "탑"을 중심으로 자연발산하는 "기"와 "음이온"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야광기능이 있어 야간에는 녹색야광빛을 발산하여 실내분위기를 은은하게 연출합니다.
3) 제품사양 : · 제품 규격 – 22 × 22 × 31cm · 제품 무게 – 3 kg
4) 포장사양 : · 포장 재질 – 오동나무 · 포장 규격 – 사각박스 (40 × 27cm)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2004-9218~9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꼭 선거해야 하나? 조계종 '선거법 개정론' 떴다

폐단 너무 크다 '공감'

교구본사주지들 종회의장 초청간담회서 허심탄회한 토론

1999년 2월 조계종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총무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던 경찰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은 국내 언론뿐 아니라 CNN, AP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생하게 보도돼 한국불교 이미지에 치명상을 가했다.

소위 '98년 조계종 사태'는 선거로 인한 대표적 폐해 사례로 꼽힌다. 당시 총무원장 선거를 며칠 앞두고 불거진 월주 스님의 3선 논쟁은 결국 폭력을 동원한 총무원 쟁탈전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으로 삼보정재를 유실했고 결국 사회법에 의해 고산 스님이 총무원장 직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는 19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다.

문제점 계속 드러나 개정 시도

조계종의 현행 각종 선거제도는 94년 조계종 개혁 최대의 결과물이다. 당시 총무원장이 교구본사 주지 임면권을 갖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자 종단 주요 소임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권력분점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과열이라는 병폐가 곧 나타났다. 선거 과정에서의 흑색선전과 금권선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문중간 편가르기는 선거후에도 지속됐다. 특히 일부 선거에서 진 쪽은 사회법에 기대 종단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자 1998년 8월 중앙종회가 교구본사 주지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2002년 2월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2002년 2월 제153회 임시중앙종회에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런 시점에서 6월 11일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대전 유성호텔에서 종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교구본사 주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24교구 본사 중 19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대리 참석 포함)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 또 과반수가 '선거' 대신 '추대'를 원했다.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321명(중앙종회의원 81명+교구별 선거인단 240명)의 선거인단을 '교구본사 주지+중앙종회의원'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교구본사 주지 또한 산중총회나 운영위원회, 임회 등에서 추대하자는 안도 많이 제시됐다. 중앙종회의원은 의원수를 축소하고, 입후보 자격을 강화하며, 교구종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격한 법집행을 하면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종단적 필요성 인식 전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꾸기보다 총무원장이나 교구본사 주지 위상 등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법등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과 중앙종회 계파별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한 뒤, 올 9월 임시종회에서 선거법 관련 종헌을 개정하고 올 11월 정기종회와 내년 2월 임시종회에서 관련 종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말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선거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총무원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7~8가지 종헌종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선 종단 안팎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강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6월 15일 평양 광법사에서 열린 남북합동법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속적인 교류로 번영을"

6·15 민족통일대축전, 남북불자 '화합' 마당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6월 14일부터 4일간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폐회한 가운데, 남북불교계도 합동법회를 봉행하는 등 향후 교류 협력 사업의 기반을 닦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6월 14일 김일성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 축하 연설을 통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비로소 펼쳐질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월 15일에는 남측 불교계 대표들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이 평양 광법사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원불교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법장 스님은 또 남측 민간대표단과 함께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남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남측 불교계에서는 법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통도사 주지 현문, 신흥사 주지 마근, 조계종 민추본 본부장 명진,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 등 8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찰' 진전사 복원됐다

26일 대웅전·요사채 낙성

조계종조 도의 국사가 주석했던 양양 진전사의 대웅전과 요사채가 완공됐다.

속초 신흥사는 6월 26일 오전 11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전사 부처님 점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2001년 발굴조사와 학술조사가 시작된 이후 5년 만에 완공된 대웅전(20.7평)은 정면 3칸 측면 2칸, 요사채(63평)는 정면 7칸 측면 2칸이다. 유철주 기자

템플스테이사찰 15억지원

문광부, 43곳 시설 개선 위해

문화관광부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전국 43개 사찰의 숙박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15억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시설개선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43개 사찰의 노후화되고 부족한 숙박시설, 세면장, 식당, 화장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5억원을 지원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템플스테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금품수수 없었다" 조계종 호법부 발표

"이 건은 한 종무상 비위임이 확인됐으며, 해당업체의 담합입찰행위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해 종단관계자에 대한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 등의 부정비리는 없었음을 확인했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수)는 6월 14일 열린 월례브리핑에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호법부는 또 "공사 진척율 54%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현재 33억8천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3억2천여만 원이 집행된 시점에서 종단재산이 손실됐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 남동우 기자

"영담 스님 고발할 것" 퍼스디자인 대표 밝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 등이 6월 9일 기자회견에서 "불교중앙박물관 계약금으로 지급된 18억 8천여만 원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L 퍼스디자인 대표 겸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L 대표는 "영담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6월 13일 밝혔다.

남동우 기자

현해 스님 면담 무산

동대특위 출석요구에 '불응'

조계종 동국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토진)는 6월 17일 동국대 법인사무처에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이사장 현해 스님과 홍기삼 총장 등의 출석조사는 해당인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위원장 토진 스님은 "다음 주 중으로 조사위원들이 한 번 더 예를 갖춰 재조사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고침 본지 529호 1면 '지금은 산골시대' 기사 중 고양 장안사는 현재 수림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알려왔기에 정정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초대 조계종 군종교구장은 누구?

이달말 교구 출범…하마평 무성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운영 담당 스님 모집

조계종은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립과 운영 실무를 담당할 스님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2년 이상 해외장기체류 가능자 △외국어 및 현지어 가능자 등이다. (02)2011-1820

유철주 기자

6월말 조계종 군종교구의 출범을 앞두고 '군포교 사령탑'인 군종교구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초대 군종교구장은 외부적으로 타종교와의 치열한 포교 '각축전'을 지휘해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산적한 군포교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불교포교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군불교 관계자들은 초대 교구장의 요건을 세 가지로 꼽는다. 특수한 조직 문화를 가진 군불교의 생리에 정통하면서 종단 내에서 신생교구로서 군종교구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인물. 여기에 군포교에 필요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기본 요건으로는 법랍 25년 이상 세수 45~70세,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前 교육원장 일면 스님과 자광 스님(용인 반야정사 주지)이 우선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일면 스님의 가장 큰 강점은 일정한 종단 내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광 스님은 군종감을 역임했을 정도로 오랜 군포교 경험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군종교구 발족을 앞장섰던 지하 스님(前 중앙종회의장)과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서울 화계사 주지)도 유력 후보 중 한명이다. 지하 스님은 오랫동안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활동하며 군종교구법 탄생의 산파역을 맡았다. 다만 스님 스스로 종단소임을 물러났기에 이를 다시 맡을지는 미지수다. 성광 스님은 가장 군종교구장에 근접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스님이 고사한다는 후문도 있다.

강유신 기자

「깨어있는 휴식」 해인사 여름수련법회



내일을 준비함은 오늘의 행복이다

이번 여름수련 법회는 명상, **참선**으로 대표되는 수행과 함께 불교전통의 수행법인 **염불**과 **주력**수행을 주제로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 여름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길 기원하며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법당을 가득 메운 스님들의 새벽예불, 은은한 독경소리, 산사의 새벽종소리..... 해인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참선수행** 1차 : 7월 4일(월)부터 ~ 8일(금)
2차 : 7월11일(월)부터 ~ 15일(금)까지

☑ **염불수행** 3차 : 7월18일(월)부터 ~ 22일(금)까지

☑ **주력수행** 4차 : 7월25일(월)부터 ~ 29일(금)까지

※주력수행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가능한 외워 오십시요.

☑ **중,고등부 수련법회** 5차 : 8월 1일(월)부터 ~ 3일(수)까지

☑ **초등부 수련법회** 6차 : 8월 3일(수)부터 ~ 5일(금)까지

☑ **기초수행수련 법회** 7차 : 8월 8일(월)부터 ~ 12일(금)
8차 : 8월16일(화)부터 ~ 20일(토)
9차 : 8월22일(월)부터 ~ 26일(금)까지

참가안내
1. 접수는 해인사 홈페이지 "해인사 포교국"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송금을 통해 참가하시게 되며 선착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동참여부는 전화로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4. 여름수련법회 참여자는 오후 1시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
5.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 하신 분들은 3일전까지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수련법회에 우선적으로 참가를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7. 참가자 여러분은 정해진 수련 청규를 지키셔야 하며 핸드폰, 지갑, 승용차 열쇠 등 귀중품은 수련 접수처에 맡겨 주셔야합니다.

동참금 및 입금안내
▣ 일반동참금 : 120,000원 ▣ 중,고등부 : 60,000원 ▣ 초 등 부 : 50,000원
▣ 입금안내 : 가급적 미리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실 때는 해당하는 여름수련법회를 이름 뒤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금된 접수비는 불참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체국 : 611806-01-000455 (예금주 : 해인사)

■ 접수안내 : ☎ 055)934-3110(포교국) 종무소 055)934-3000~2
※ 준비물 및 수련생이 지켜야할 청규사항은 www.haeinsa.or.kr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전국불청대회 650명 참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가 6월 11~12일 순천 청소년수련원에서 창립 85주년 기념 제2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65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청년불자여, 미래의 등불을 밝히자'. 이번 대회는 통일 · 환경 · NGO · 수행마당, 어린이 불교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율 스님의 환경 관련 강의도 눈길을 끌었다.

김익석 회장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한순간도 정체됨이 없는 늘 깨어있는 청년 보살 · 청년 만해가 되도록 수행 정진해나가자"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국립공원사랑 의원모임 결성

국립공원의 생태 보존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불자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윤원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은 6월 13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국사모)을 결성했다. 국사모에는 열린우리당 불자모임 '이타회' 윤원호, 김영주, 권선택, 제종길, 조성래 의원을 포함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입했으며, 김영주 의원이 회장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책임연구위원으로 선임됐다.

국사모는 앞으로 국립공원 계곡수의 오염문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그로 인한 생태계 훼손, 난개발 문제 등 국립공원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선다. 또한 국립공원내 전통사찰 수행환경 보존, 오폐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연구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신도회 신도증 팔았다" 중신회, 스님에 사과 요청

고창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이 6월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조계종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신도회가 신도증을 팔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는 "범여 스님이 지적한 '신도증 팔아먹는' 행위는 10년 째 종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등록사업이며 중앙신도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장주 스님은 올 10월 경 가칭 '불국중흥을 위한 전국사암연합회'를 창립한다면서 일부 신도와 단체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강지연 · 남동우 기자**

교법사단 창립 60주년 성과·과제

6월 17일 창립 60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전국 23개 초중고에서 교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35명 교법사들의 단체인 전국교법사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청소년 불자 육성을 감당하고 있는 교법사단의 비중을 감안할 때 60년을 맞은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기까지 하다.

열악한 환경 속 청소년 포교 매진

파라미타 창립 등 청소년 단체 활동 앞장
보직수당 신설 · 지위 보장 등 재정지원 절실

1945년 해방이후 개별 불교종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법사를 임용하면서 시작된 교법사 제도는, 1969년 전국교법사회(초대회장 김윤주) 창립을 거쳐 1991년 전국교법사회에서 교법사단으로 확대재편하면서 65명의 교법사가 거쳐 갔고, 35명의 현직 교법사가 활동하는 조계종단 내 핵심 청소년 포교기구로 자리 잡게 됐다.

그간 교법사단이 쌓아온 성과는 고스란히 청소년 포교와 직결된다. '교법사'라는 단어에서는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이미지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교법사단은 불교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및 시청각 교재의 발간 등 종립학교 고유의 업무는 물론이고 청소년 법요집 발간, 신도교육교재 편찬, 파라미타 창립 및 각종 청소년 단체 제반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2000년에는 '청소년 포교활성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일년에 한 권씩 청소년불서들을 발간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현행 국정교과서 내의 불교관련 오류를 지적한 것도 교법사단이었다.

낮은 위상, 그 이유는?

아직까지 청소년 포교가 미진하고, 교법사단의 활동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턱없이 모자라는 종단의 재정지원과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에 대한 무관심이다.

교법사들은 "단순수치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같은 법사들의 모임인 군불교위원회에 지원되는 조계종의 예산은 교법사단에 지원되는 예산의 두 배"라고 지적한다. 지원액수가 곧 종책의 방향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내실있고 지속적인 청소년 교화정책을 펼칠 만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 불교종립학교 초 · 중 · 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법사단이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은 '종단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대답이 1위(60.9%)를 차지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교법사의 신분적 위상이 부족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 있다. 2001년 9월 6일에 개정된 조계종 종무원법 종칙 제1장 3조에는 '종립학교 교법사'를 사무보조자와 동일한 '일반직 종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종립학교 내에서조차 '일반평교사'로 대우받는 곳이 허다하다.

나아갈 방향은?

교법사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교화 활동비 등의 보직수당이 신설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광동학원과 같이 교법사의 지위를 학교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교법사단 내의 자체적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법사단은 정부의 '사립학교 개정안'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립학교 내 청소년 포교활성화 방안으로 시청각과 멀티미디어를 통한 '불교문화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포교전략도 세워놓았다.

또 신심이 깊은 학교장 · 이사장을 불교교육연합회의 회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립학교 수를 늘려 교법사단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이은비 기자**



6월 29일 개원하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전경. 현대불교자료사진

동국대 일산병원 29일 개원

권위있는 의료진 · 첨단시설 갖춰

동국대 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석현)이 1994년 병원설립 승인 후 10년만인 6월 29일 정식 개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불교병원은 메머드급 종합병원으로 연건평 2만7000평에 총 1000병상(양방 850, 한방 150)을 갖춘 지하2층 지상 12층 규모의 불교계 유일 대형종합병원이다.

일산불교병원은 1998년 IMF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000만 불자들의 열망 속에 기공식을 치렀으나 2003년 건물을 완공한 후에도 재단 내부사정으로 개원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前 고려대 구로병원장 이석현 원장이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만 9개월여 만에 개원준비를 마쳤다.

5월 31일부터 모의진료를 실시해온 일산불교병원은 EMR(자동의무기록),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OCS(처방전달시스템)등을 갖춰 국내최초의 양 · 한방 디지털 병원의 면모를 갖추고 29일 개원(한방은 7월 18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개원이 2년여 늦춰 졌지만 국내최고의 의료진과 초대형 시설, 첨단의료장비를 확보해 서울소재 전국권 병원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일산불교병원은 소화기 분야의 민영일 교수, 심장 분야의 권위자인 이명묵 교수, 방사선과 분야 윤영 교수, 관절 정형외과 분야 태석기 박사 등 각 분야별 국내 최고권위자들을 포진시켜 놓고 있다.

이석현 원장은 "불자들의 원력과 삼보정재로 만들어진 병원인 만큼 의료진과 300여 직원들이 불교적 심성을 갖출 보살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게 될 것"이라며 "불자들이 자랑스러워 할만한 국내최고의 진료, 연구, 교육기관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개원법회는 9월 하순께 봉행할 예정이다. 031)961-7004 www.duih.org **조용수기자**

복지시설 '교구분권화' 체제 갖춰야

조계종 복지재단, 창립 10주년 아젠다개발 세미나

"중앙결정기구로서의 복지재단 위상을 높이고 불교복지시설을 교구별로 관리할 수 있는 '교구분권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6월 16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불교사회복지 아젠다개발 학술 세미나'를 통해 불교복지 지향점 찾기에 나섰다.

세미나의 서막을 연 '조계종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발제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기룡 전임연구원은 사회복지 환경에 적합한 불교복지 틀 찾기를 시도했다. 조 전임연구원은 "현재 사회복지재단은 권한이 미약해 종단 중앙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과 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고 복지시설의 '교구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외에도 이날 세미나는 탈북인 노숙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복지의 혜택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과 불교복지의 현안인 승려노후대책 아동복지 자원봉사 및 복지기금 문제 등 16개의 주제 발표를 1분과와 2분과로 나눠 동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복지시설 종사자와 타종교 시설 종사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단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불교복지의 미래를 토론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하는 6월 23일에도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불교사회복지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4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계속 진행한다. (02)723-5101 **김강진 기자**

연화회, DNA 장례서비스
유전자 정보 캡슐에 보관

최근 수목장 산골 등 불교식 장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불교 장례서비스 전문업체 연화회(대표 유재철)는 유가족이 고인의 유전자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장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연화회는 6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명과학 기술을 접목한 장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화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DNA 장례서비스'는 화장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 사회 일반에서는 아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데서 고안됐다. 연화회는 "화장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고열로 인한 고인의 모든 정보 소멸, 유족들의 상실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장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엔딘센터'라는 법인도 이미 설립한 연화회 유재철 대표는 "장례서비스 사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며 "7월 초 자체 브랜드의 DNA 장례용품 및 추모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보원사지 싸고 불교계-市 대립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 말사 보원사(주지 정범)가 6월 11일 개원식을 봉행함에 따라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발굴 · 정비계획을 둘러싸고 불교계와 해당지자체인 서산시의 대립이 첨예하다.

서산시가 보원사지를 개심사 · 서산마애삼존석불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하에 사적지 내 개인소유 땅 매입을 추진 중이었으나, 사적지 내 일부 토지를 보유한 보원사를 중심으로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보원사는 토지수용을 목적으로 한 서산시의 감정평가를 거부하며 토지 매각의 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다.

불교계와 서산시 갈등의 핵심은 서산시의 발굴 ·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에 불교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데 있다.

보원사 주지 정범 스님은 "백제불교의 혼이 깃든 성지를 불교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파헤치고, 관광지화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불교계가 보원사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시 한 관계자는 "보원사가 폐사지로 방치된 역사가 400여년에 달하는데, 700억원 가량 투입되는 발굴 · 정비계획 착수 시점에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불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인 사 말 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6월 13일(음, 5월 7일) 涅槃하신 우암당 혜산 대선사의 능가산 내소사 산중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49년 6月 日

우암당 혜산 대선사 추모재 일정

우암당 혜산 대선사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49재	일 시	장소	연락처	주 소
초재	6월 19일(음, 5.13) 오전 10시	내소사	063)583-7281	전북 부안군 진서면
2재	6월 26일(음, 5.20) 오전 10시	선운사	063)561-1422	전북 고창군 아산면
3재	7월 3일(음, 5.27) 오전 10시	전등사	02)762-0643	서울 성북구 성북2동
4재	7월 10일(음, 6. 5) 오전 10시	홍원사	02)2658-3100	서울 강서구 가양1동
5재	7월 17일(음, 6.12) 오전 10시	내소사	063)583-7281	전북 부안군 진서면
6재	7월 24일(음, 6.19) 오전 10시	내소사	063)583-7281	전북 부안군 진서면
7재	7월 31일(음, 6.26) 오전 10시	내소사	063)583-7281	전북 부안군 진서면

■ 문의 : 내소사 063)583-7281

우암당 혜산 대선사 장의위원회 · 능가산 내소사 문도일동

지상중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7>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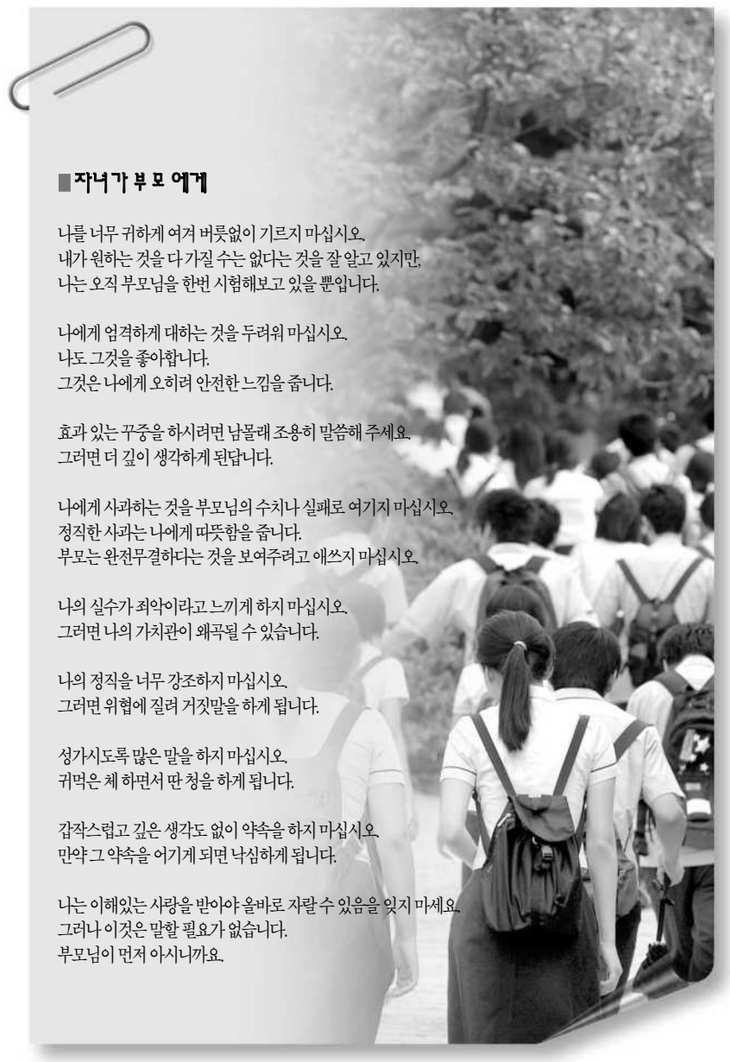
■일시 : 불기 2549년 6월 12일
■강사 : 고성혜 교수(경희대 가족아동학부)
■주제 :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 그럴수록 …

부모와 자식은 8천겁의 인연이 쌓여 만나는 관계라는 말이 있다. 과거세 인연은 대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인연이거나 빚쟁이가 되어 서로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이라는 것이다. 앞의 경우는 존경과 자비심이고, 뒤의 경우는 불화와 증오심이다.

금생에서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통해서 인연의 사슬을 모두 풀게 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모 자식간의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일깨워 준다. 중요한 것은 은인이든 빚쟁이든 간에 금생에 모두 청산을 하고 다음 생까지는 연장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구국구세대법회 '가정의 가치를 불교에 묻는다' 일곱 번째 강사로 나선 고성혜 교수(경희대 아동가족학부)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관계'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며 지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강을 펼쳤다.



청소년은 부모의 그림자

고 교수는 강의에 앞서 자신이 6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비행청소년의 상담지도를 통해 만나온 여러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소개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문제아'라는 딱지를 달고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감한다며 자신의 경험담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상담실을 찾아온 18세 고3 아이는 죄명이 특수절도였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산만한 덩치의 이 아이는 살벌한 죄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두꺼운 안경에 너무나 순수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꺼내 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나 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아이는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첫 번째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든 나이였지만 부모는 아이의 입장을 고려할만 한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생활에 쫓겨 아빠는 서울로, 엄마는 대구로 각자의 생활전선에 정신없이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와 생활하던 아이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 왔습니다. 엄마의 재혼이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엄마는 결혼식 당일 아이에게 절대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아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노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재혼 이후 아이는 서울에 있던 아버지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사는 동안 다시 세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역시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무렵 아빠는 아이에게 결혼식 당일 절대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이는 말을 맺지 못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엄마에게서 들었던 그 말을 고등학생이 된 자신이 아빠에게서 또다시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는 충격에 무작정 집을 나와 길거리를 헤매 다녔습니다. 어느날 밤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조그맣고 허술한 가게 문을 쇠꼬챙이로 따고 들어가 과자 4봉지를 훔치다 주인과 마주쳤답니다. 당황한 아이는 주인을 밀치고 달아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특수절도라는 엄청난 죄명으로 검찰청 상담실에서 나와 마주앉게 된 겁니다. 목이 멨지만 나 자신도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60~70년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고 교수는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훗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녀 미래와 인격 형성에 안정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아이가 성장 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써 주변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들의 특성

유교적 전통이 몸에 밴 한국부모들은 자녀와의 상호존중과 의사소통보다는 가족간 결속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고 교수가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언제나 뻔한 얘기만 하는 엄마 아빠와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고 교수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어긋나기 시작한 경우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극약 처방은 없다"고 단언한다. 다만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방법을 한시바삐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먼저 요즘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교수는 "청소년기는 자기표현이 분명하고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유행에 민감한 시기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때로는 충동적이고 부족한 인내심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즉시 실현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자신을 찾아오는 문제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오토바이 절도 같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사건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지 길에 서있는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 잠깐 타고 돌려주겠다는 안이한 생각의 결과가 어이없게도 절도로 이어진 것이다.

부모노릇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부모도 자신이 자녀에게 죄절을 안겨주는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주변에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무관심과 학대로 자녀를 방치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양변의 극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경계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부모의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부모는 여유를 갖고, 자녀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고 교수는 "자녀를 부모의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두려는 한국부모들은 자녀를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녀들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부모들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자녀를 위해 희생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부모는 아이를 망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떻게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 인생의 길잡이 노릇을 해야 하나 늘 걱정하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시급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앞길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나와 마찬가지로 남도 똑같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생활교육을 하고 청소년 자녀의 가족생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한다.

▲부모 역시 인간이므로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성숙한 부모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말로만 바르게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언행일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고 교수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의 감정을 도닥여주고, 때로는 아이의 고민에 대해 어른다운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성장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건강한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의를 끝내기 전 고 교수는 '자녀가 부모에게'(가운데 박스 참조) 라는 글귀를 소개했다. 인터넷에 많이 유포된 글귀인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지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이 내용을 유념해 행동하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주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다음 주제: 불자가족의 가정관리(강사 김외숙 · 6월 26일)

■고성혜 교수는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희대 아동가족학부 겸임교수면서, 2000년부터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서울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에서 연구사업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봉 경봉대선사 열반 제23주년 기제사 행

귀의 삼보하옵고
어느덧, 경봉큰스님 열반 23주년 기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축산 극락선원에서 일생을 주석하시며 격외도리(格外道理),
감로법문을 사부대중에게 보여주신 노스님의 선풍을 기리는
기제사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봉문도회
● 증 명 : 활산 성수
● 회 주 : 원명 지종 (경봉장학회 이사장)
● 극락선원장 : 고원 명정 합장

◆ 일 시 : 불기 2549년(2005년) 7월 3일(음력, 5. 27)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 전 화 : 055)382-7083 (극락암)

※ 기제사 직후, 경봉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극락암 삼소굴

경봉문도회 모임

경봉문도회 회원 여러분께
제방에서 수행 전법하시는 회원님께 불은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봉큰스님 기제사를 봉행한 후 오후 1시에 문도회 모임을 거행합니다.
문도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9년(2005년)
7월 3일 (음력 5. 27)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 전화 : 055)382-7083 (극락암)
055)383-1864 (백련암)



日서 고려 비로자나불도 발견

14세기경 제작, 7000여위 불상 배치 독특 국보급 가치





동대 정우택 교수 "화엄경 시각화 한 듯"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7000여위의 작은 불상을 배치한 독특한 형식의 고려불화 비로자나불도가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일본 고베(神戶)시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고려불화 비로자나불도를 촬영, 6월 18일 동국대에서 열린 동악미술사학회를 통해 학계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비로자나불화는 가로 196cm, 세로 233cm 크기로, 비단화폭에 붉은색, 녹청, 분청의 안료와 금니로 그려졌다. 중앙에는 비로자나불과 성중이 모셔져 있으며 그 주위에 가로 0.7cm, 세로 1.5cm 크기의 불상 7000여위가 배치됐다. 작은 불상들은 제각기 다른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다. 제작연대는 1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한 점이라든가 작은 불상들이 그려진 고려불화는 유례를 찾기 힘들어, 충분히 국보급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정우택 교수는 작은불상을 배치한 도상과 관련 "<화엄경>에 비로자나불이 깨달음을 얻을 때 대광명을 시방세계에 비추고 모든 털구멍에서 작은 부처가 나온다는 구절이 보인다"며 "이를 시각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불화 중심에 모셔진 비로자나불(위)과 본존불 주변에 배치된 7000여위 작은 불상들 부분(아래)

발해 불교문화 전시실 마련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日 도쿄대서 유물 23점대여

이불병좌상 등 일부 공개



새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 발해실에 전시될 발해유물 일부가 6월 16일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유물은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표현한 이불병좌상(二佛竝坐像), 사암으로 만들어진 비석 형태의 불상인 함화사년명불비상(咸和四年銘佛婢像), 석사자상(石獅子像) 등 23점으로 발해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들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도쿄대학 고고학연구실이 상경용천부 유적(중국 흑룡강성 영안현) 등지에서 발굴한 것으로, 도쿄대 문학부와의 차용협정 체결을 통해 대여됐다.

가장 눈에 띄는 유물은 이불병좌상(사진)이다. 이불병좌상은 석가모니가 법화의 가르침을 설할 때 땅 밑에서 7보의 탑이 솟아나고, 탑 속에 앉은 다보여래(多寶如來)가 석가의 진실을 증명하고 탑 속으로 석가를 맞아들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불병좌상은 발해의 중경 · 동경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형태로, 고구려 후기 이래의 불교 전통의 계승을 반영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30평 규모로 마련된 발해실은 국내 처음으로 마련되는 발해 유물 상설전시실로 총 5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게 되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일인 10월 28일 일반에 첫 선을 보인다.

박익순 기자

열한분 대덕 스님

사자후 금정산에 '쩌렁 쩌렁'

범어사, 지장 100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개최

본사와 공동 주최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설선대법회'로 선풍진작의 큰 바람을 일으켰던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또 다시 열한명의 대덕 스님들을 모시는 법석을 마련한다. 범어사는 6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석 달 동안 개최하는 지장 100일기도 및 고승대법회를 통해 대중들의 수행 정진 열기를 이어나간다.

6월 24일~10월 3일까지
지유 · 월운 · 무진장 스님 등

지장재일인 6월 24일 시작되는 고승대법회는 지장 백일기도 봉행과 고승대법회를 병행하여 지장백일기도 각 재일(열흘에 한번) 마다 큰 스님들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한다.

이번 고승대법회에는 첫날 입재 법문을 하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을 비롯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7월 3일), 전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7월 13일),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7월 23일), 삼일불교교육원 원장 각성 스님(8월 2일), 전 용주사 주지 정무 스님(8월 12일),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8월 22일), 가산불교문화원 원장 지관 스님(9월 1일),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9월 11일),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9월 21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10월 3일)이 법문에 나선다.

특히 이번 법회는 선을 주제로 했던 설선대법회와는 달리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한 지유 스님, 동국역경원에서 40여 년 간 팔만대장경 완역 등 불경 번역에 매진해온 월운 스님, 법화경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현해 스님 등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는 스님들의 다양한 주제 법문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51)508-312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백장선원, 수련회로 활동 본격화

25일부터 예절참선 108참회 등

21세기 새로운 불교 수행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는 백장선원(이사장 원구)이 6월 25일 개최할 제1회 불교수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바른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새로운 수행공동체를 목표로 5월 1일 창립한 백장선원이 한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놓은 불교수련회는 대구 능인선원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불교기본예절을 비롯해 2시간의 불교 강의와 참선, 108참회, 종합토론 등으로 꾸며진다.

백장선원은 수련회를 매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월에는 약 3천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음악법회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성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하는 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한편, 20~30대 젊은 불자 포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백장선원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상 선원과 어느 정도의 수행을 이어온 재가불자들을 위한 중 선원, 수행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하 선원을 갖춘 레저타운과 수행을 겸할 수 있는 수련장을 마련하겠다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두고 있다. (053)744-0103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신라불교 저변확대 보탬 되길"

영남불교문화연구원 개원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와 보급에 힘써온 영남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재원)이 대구 수성구 상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6월 11일 창립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선진 스님, 김재원 박사, 박병선 교수를 비롯한 지역 스님과 관련학자, 문화인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에는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 진광 스님, 은광 스님(운문승가대학 강사), 도명 스님(연꽃어린이집 원장), 김재원 박사(한국동서철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박병선 교수(영남대 국사학과)등 30여명의 인문, 사회, 문화 분야의 석 · 박사 출신 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은 앞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연1회 학술 연구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초빙 특강과 삼국유사 유적지 답방, 불교관련 원서 윤독 및 역주 작업도 기획하고 있다.

김재원 원장은 "신라불교의 산실인 영남에 신라불교의 맥을 잇고, 올곧은 불교문화 인식을 위한 저변 확대와 대중적 공감대 형성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단신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 취임



대한불교 법화종은 6월 10일 고성 안정사에서 제17대 총무원장 혜륜 스님(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운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륜 스님은 "종단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을 추진해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륜 스님은 앞으로 안정사를 총림으로 육성하는 안정사 성역화사업을 통해 안정사를 교육도량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법화종을 이끌어왔던 조사스님들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에 법혜 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6월 11일 13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제9대 회장에 대각사 주지 법혜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6월 30일 오후 3시 총회를 통해 인준을 거친 뒤, 대구프린스호텔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 · 취임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법혜 스님은 80년대 중반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부설 신도교육기관인 불교대구교육원을 설립해 초대 원장을 역임하는 등 대구지역 신도교육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배지선 기자**

부산 공덕원 지장산림 회향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은 6월 10일 지장산림대법회를 회향했다.

올해로 2회째 맞은 지장산림대법회는 4월 22일 입재, 매주 금요일마다 대덕 스님과 불교학 교수를 초청, 법문을 열었다.

그동안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의 입재 법문, 창원 무량사 주지 덕운 스님, 통도사 영축선원 선덕 향과 스님, 은해사 승가대학원 원장 지안 스님, 범어사 승가대학 대교반 강사 용학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이만 교수, 충북 성불사 주지 일송 스님의 법문이 이어져왔다.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은 "지장산림법회의 회향은 효, 참회, 회향으로 복전과 깨달음을 열어가는 일상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활 속의 수행을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자매결연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총학생회(회장 효신)는 6월 15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서는 총학생회와 복지관의 상호교류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상호 기여하고, 불교문화와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결식노인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비의 손길 쌀 108포대 모으기' 행사를 진행해 온 총학생회원들은 그동안 모아진 쌀 1400kg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배지선 기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3차 공청회

금번 공청회에서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한 "불교학 연구 활성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 제 : 불교학 연구 활성화 방안

■ 일 시 : 2005년 6월 28일(火) 오후 1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사회 : 혜담 스님(각화사 주지)

◆발제 및 논평 (오후 1시 ~ 3시)

1. 제 1주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연구현황 및 제고방안
   – 발제 : 최병헌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 논평 :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
2. 제2주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우수 교원 및 연구인력 확보방안
   – 발제 : 심익섭 교수(동국대 행정학과)
   – 논평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과)

◆종합토론 (오후 3시 ~ 5시 30분)

●지정토론 : 불교학 전공 교수
●종합정리 :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과, 한국불교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 의 : 02)2260-3768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N-K NATURAL
묘향산 전 록 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입니다.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 의 담 당 동 의 학 박 사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771-2985 ● 제조원 :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755-9821

"국립공원내 사찰림 사찰이 관리해야"

김재일 대표 '인위적 관리' 필요 강조


구룡사에서 열린 치악산 금강송 관리 설명회. 오른쪽부터 원주시청 김계성 산림과장, 김재일 대표, 구룡사 주지 원행, 정주사 주지 법혜 스님.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사찰림이라도 인근 숲은 해당 사찰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대표는 6월 15일 원주 구룡사에서 열린 '치악산 금강송 보호 육림 관리설명회'에서 "사찰 소유 임야는 사찰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룡사(주지 원행)가 소방도로 개설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주시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지역 환경단체를 초청해 마련한 자리.

이 자리에서 김재일 대표는 "2003년 구룡사 대웅전이 소실되면서 산중에 있는 사찰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다"며 "구룡사 인근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금강송이 밀집해 있는 만큼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산림은 국립공원관리공단만이 관리할 수 있다. 유철주 기자

순국선열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각 종단 · 지역 사찰들 호국보훈의 달 맞아 천도재 봉행


6월12일 양구 호국도솔사에서 봉행된 위령재. 사진=유철주 기자

조계종, 전쟁기념관서 천도재

6월 12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광장에서는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와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상태) 주관으로 단군 개국 이래 순직 사망한 호국영령들을 진혼하는 '호국영령 천도 대법회'가 봉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02년 서해교전으로 사망한 故 윤화영 소령 등 전몰장병 6명의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영가법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가가 있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군불교위원회는 이와 함께 6월 16일 국방회관에서 제3회 군불교 호국음악제를 개최했다. 강유신 기자

강원도 양구 호국 도솔사 '위령재' 봉행

6월 12일 강원도 양구 백두산부대 호국도솔사에서도 '호국 보훈의 달 호국위령재'가 봉행됐다.

제천 무암사 주지 황도 스님과 21사단 김봉기 대령 등 불자와 장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 3년 기도를 회향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관욕(灌浴)에 이어 진행된 위령재에서 21사단을 대표해 김봉기 대령은 "양구지구는 '피의 능선'으로 불릴 만큼 치열했던 격전지였다"며 "불자들과 함께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무암사 주지 황도 스님은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던진 선열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장병들이 사고 없이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더 마음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이곳 양구지역에서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바쳐 조국산하를 지키려다 유명을 달리한 호국영령들을 위해 천도의 법연을 마련하였사오니 제불보살의 크신 원력으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했다. 유철주 기자

광주 혜룡사, 불자장병 200여명 동참

광주 혜룡사(주지 혜우)는 6월 6일 담양 공수여단 군법당에서 '호국영령 천도 위령재'를 봉행했다. 현충일을 맞아 열린 이번 천도재에는 부대장 박대섭 준장을 비롯한 군관계자와 불자장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혜룡작법연구원 소속 스님들은 전통 불교의식으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대전사암련 회장에 운봉 스님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6월 15일 용문동 사암련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대전중구사암련 회장 운봉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前 회장 만다 스님(통도사 대전포교원)의 지병으로 사실상 회장이 공석 상태였던 대전사암련은 이날 새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펼 수 있게 됐다. 운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 대전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 1년 6개월이다. 조용수기자

광주 파라미타, 음악놀이 경연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광주지부(지부장 광민)는 6월 11일 광주 무각사에서 제3회 광주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무각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광주지역 30여개 중, 고교에서 43개팀이 참가해 송원여고 N.I.X를 비롯 8개 팀이 입상했다.

대회에 앞서 광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면에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휘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준엽 기자

월정사, 일반인 대상 여름수련회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일반인 대상 여름수련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7월 12~15일(1차), 7월 19~22일(2차), 8월 18~22일(3차, 선수련회)로 나누어 진행되는 일반인 대상 여름수련회는 80명(3차는 수련회 및 참선 경험자 우선 선발)씩 모집한다.

여름수련회에서는 매일 오전 3시 50분에 일어나 예불, 108배, 참선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뒤 특강, 참선, 요가 등으로 보다 심화시킨다. 수련회는 4일째의 1080배와 마지막 날의 삼보일배로 회향을 하게 된다. 월정사는 7월 4일까지 여름수련회 접수를 마감하며 6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광주 생명나눔 '휠체어'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는 6월 14일 화순 전남대병원장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2명에게 30만원 상당의 휠체어를 각각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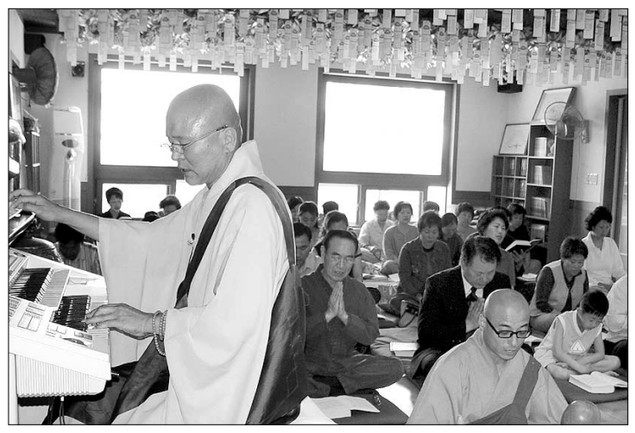
이날 김명실 생명나눔실천 사무총장은 결핵성 관절염과 항암치료로 거동이 어려운 환우에게 직접 휠체어를 전달하고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 쾌유를 기원하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며 격려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2000년부터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환우들의 투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진해 천웅사

찬불가 가락타고 신심도 UP


천웅사 주지 성우 스님의 반주에 맞춰 신도들이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6월 12일 일요일, 진해의 시골 마을인 웅천에 위치한 천웅사(주지 성우)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스님이 연주하는 전자오르간 반주에 맞춰 신도들은 목청껏 찬불가를 부르며 찬불가 가사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요 찬불가법회가 그것이다.

이날 처음 법회에 참석한 이규종(61)씨는 "처음 오면 낯설고 어색할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동안 찬불가를 부르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너무 좋다"고 말했다. 노래를 하는 박필선(78) 보살, 양덕열(77) 보살의 얼굴엔 소녀 같은 함박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마산에서 온 김재환(47) · 박은미(44) 부부는 "찬불가로 법회를 여니까 자꾸 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리듬 찬불가 예찬론을 폈다.

젊은시절 밴드 활동을 했던 성우 스님이 음악을 통한 포교 방안을 고민한 끝에 10여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찬불가법회를 시도해오다 6년 전부터는 제법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찬불가가 좋아서 천웅사를 찾는 신도들도 제법 늘었고 찬불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신도들도 많다. 8년 전 단 2명으로 일요법회를 시작한 후 고전을 면치 못하다 찬불가법회를 시도하면서 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신도들이 늘어났다. 음악을 통한 포교에 심혈을 기울였던 성우 스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올해 초파일을 기해서 그동안 일요 찬불가법회에서 불러왔던 찬불가와 염불 등을 담은 '리듬 염불 찬불가' CD와 테이프를 제작하기도 했다. 디스코풍의 천수경, 트로트풍의 반야심경과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등이 일반 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CD나 테이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성우 스님이 용기를 낸 것이다. 경내에 녹음실을 마련하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거듭한 뒤 녹음을 마쳤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성우 스님은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보급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밀고 나갔다.

'리듬 염불 찬불가'로 흥겨운 법회 '인기만점'
디스코풍 천수경 등 테이프 제작 보급에 주력

리듬예불, 천수경, 산사의 바람소리, 문수보살, 우리절 노래 등이 담긴 CD가 나온 이후 일요 찬불가법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 보급에 주력하겠다는 성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들 속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하며 리듬 염불, 리듬 찬불가는 그 시도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055)545-5598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드립니다.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 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단돈 10원도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 내 나이 75세 재산세 200여만원에 월 의료보험료 13만원 내며 병원에 한번 가지 않은 편한 영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에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씌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충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부터 1주일간은 부산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서울 전수도장은 월, 화, 수요일이 상담일입니다)
☎ 02)2216-6278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있는 천수천안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초급 · 중급 등 단계적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면서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기북부 불교 중심축

경기 고양·양주

 # 고양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 고양. 1992년 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래 급속도의 발전을 이뤘다. 최근에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이 들어선데 이어 삼송신도시와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바로 인근에 은평뉴타운이 건립된다. 게다가 곳곳에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6월말이면 동국대 일산병원이 문을 열게 된다.

현재의 고양불교는 한마디로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사암연합회 활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사찰들의 포교활동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게다가 고양불교의 자랑인 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은 내용과 규모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2002년 고양사암연합회의 10여개 사찰들이 뜻을 모아 창립된 천수천안은 이듬해인 2003년 사단법인이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800여 자원봉사자가 국립암센터, 일산노인복지관, 남양주 에덴노인센터, 고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0여개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군법당 · 불교문화 · 지역사회 지원활동과 수해 및 설해 등 긴급재난구조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천수천안이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조직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고양사암연합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10여개 사찰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시내에 사암연합회 사무실을 열어 자원봉사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담당자까지 두면서 천수천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암연합회가 봉사단체를, 그것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고양이 유일하다.

천수천안의 근간인 사암연합회는 활동 사찰 수가 10여 곳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단 간 불협화음이 없는 것도 고양불교의 자랑거리다.

개별 사찰들의 활동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도심포교를 맡고 있는 통도사 포교당인 여래사와 원각사, 송광사 포교당 정혜사, 광명사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불교를 심고 있다.

대규모 포교당인 여래사(주지 각현)는 청소년회관, 결혼식장, 서점, 소극장(Seensee Theater), 방송실 등을 갖추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정혜사(주지 허운)는 일요법회, 경전반 및 기초입문반, 봉사활동 등 교육-봉사-법회-기도 등으로 이어지는 신행시스템을 정착시켰다.

 # 양주 양주 불교는 다소 침체돼 있다. 인구 15만명에 사찰 수는 40여 곳으로 그리 적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양주시민들의 생활권이 서울에 속해있어 신행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암연합회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침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일부 사찰들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활동을 펴고 있다. 일요법회, 사경법회, 거사법회 등이 활성화돼 있는 지장사(주지 대운)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때 한문서당을 열고 있으며, 다가오는 8월에는 단기출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석굴암(주지 도일)은 주말마다 철야기도와 청년회 법회를 통해 불교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인근 군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석굴암 확장 불사를 마치고 기도처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서울 삼보사 분원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3백여평 규모의 청소년회관과 요사채를 갖추고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제1회 영화축제와 록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는 문화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승사(주지 귀영)는 지역 · 어린이 복지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회암사는 양주가 자랑하는 천년고찰로 현재는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대승사, 백화암, 송암사 등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명우 기자

고양 봉사단체 '천수천안' 조직력 돋보여
양주 사찰별 특성살려 문화 · 군포교 매진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자원봉사단체 이끌어

도명 스님 (고양 덕양사 주지 · 고양사암연합회장)



2003년부터 고양불교사암련 회장과 고양불교가 자랑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천수천안'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고양불교를 이끌고 있다. 도명 스님의 가장 큰 소망은 천수천안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천수천안 봉사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천수천안 활동을 권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신도교육에 헌신…교화활동도

종후 스님 (고양 노적사 주지)



노적사 주지를 맡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포교를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다. 종후 스님은 불교교양대학 강의를 직접 할 정도로 신도교육을 중요시여기고 있으며, 영등포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있으면서 경전과 테이프 등의 법보시 활동도 하고 있다. 통일불교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현재 평불협 이사를 맡고 있다.

다채로운 문화포교 원력

대운 스님 (양주 지장사 주지 · 양주사암연합회장)



대운 스님은 문화포교에 관심이 많으며, 시대 변화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찬불가 법회, 사경 법회, 산사음악회, 한문서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양주불교 신행을 이끌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소카왕이 건립한 산치대탑과 같은 형태의 19m 규모의 반야보탑을 낙성, 지장사를 수행 · 포교 · 기도 도량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회향하는 삶 강조…복지포교 펼쳐

해련 스님 (양주 대원정사 주지)



해련 스님은 회향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신도들에게도 늘 강조한다. 대웅전과 지장대불 불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석불로 모셔지는 지장대불은 6m가 넘는 큰 규모다. 15년 간 15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어르신 위안잔치를 열어왔다. 단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자생력 있는 사찰운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中 칭따오에 한국사찰 건립

병진 스님 (고양 장안사 주지)



장안사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봉안당을 갖춘 사찰. 3만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타종교인들을 위한 별도의 납골공간도 마련해놓았다. 병진 스님은 2004년에 중국에 정착한 한국인들을 위해 중국 칭따오에 '장안사'를 지었으며, 한국인들의 쉼터를 중국 장안사 인근에 세우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경로잔치 등 불자화합 앞장

무량 스님 (고양 무량사 주지)

27년 전 4.5평짜리 법당 하나에 불과했던 무량사를 바꾸어 놓았다. 약사전, 종각, 요사채, 일주문, 종각을 건립하고 현재는 대웅전 불사를 마무리 중에 있다.



무량 스님은 고양시에 위치한 북한산 소재 21개 사찰 모임인 '북한동사암연합회' 회장을 4년 째 맡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두 차례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포교의 중심 전법도량

대오 스님 (고양 흥국사 주지 · 고양사암련 부회장)



고양불교 포교의 중심축인 흥국사를 명실상부한 전법도량으로 가꾸었다. 대오 스님은 4년 전 주지로 부임한 이래 어린이 · 중고생 · 거사림 · 합창단 법회를 만들고, 불교교양대학과 템플스테이를 여는 등 고양불교 포교와 신도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군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양경찰서 불자회를 창립, 경승실장도 맡고 있다.

천일기도 잇따라 세차례 봉행

도일 스님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청빈한 수행자였던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석굴암을 청정기도도량으로 가꾸기 위해 1998년부터 올해 4월까지 1천일기도를 두 차례나 했으며, 또다시 1천일기도에 들어간다. 독거 어르신 등을 후원하는 의정부 '좋은 모임회' 이사와 의정부교도소 교화위원을 맡고 있다.

10년여 불사 주력…가족법회 개설

현도 스님 (고양 길상사 주지)



1995년 일산구 식사동 일원에서 30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길상사 창건불사를 시작, 현재는 불사를 거의 끝낸 상태다. 지금까지 불사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현도 스님은 말한다. 7월부터 가족법회를 신설하고, 올 가을에는 불교교양대학도 개설할 방침이다.

지역특성 살려 도심 포교

허운 스님 (고양 정혜사 주지)



허운 스님은 2003년부터 정혜사 주지를 맡아 도심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젊은 스님답게 도심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확고하다. 지역 환경에 부합하는 포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싶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군법사 출신으로 군 포교에도 관심이 많다.

'천수천안' 봉사활동의 주역

박유아 단장(천수천안)



박유아 보살은 2004년부터 천수천안 단장을 맡아 조직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수천안 1기생으로 국립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는 박 보살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11월에 열 계획이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차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 2004-8234

도움 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홍영순 500,000원 윤선애 10,000원 이창근 10,000원 우진궁 30,000원

총누적금액 41,104,940원

"작은 정성이 도움 될까요?"

본지 독자 이웃돕기 문의전화 잇따라
생필품 · 치료비 지원 등 정성껏 동참

"생필품이 부족하다니, 놀랐습니다. 제 조그만 정성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6월 10일. 김미향씨(35)는 "'현대불교'를 읽다 아직도 어렵게 사는 이웃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본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김씨는 '복지시설에 생필품이 모자라요(본지 526호 1면 기사 참조)' 기사를 읽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생필품 마련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들과 나눔의 정을 느끼고 싶다는 김씨. 요즘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 폐식용유를 수거해 빨래비누 만들기에 한창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다.

'비누 보시'의 주인공은 또 있다. 지난 5월 20일 윤경자(40) 씨가 복지시설에 세수 비누를 기증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이미 많은 복지시설에 물품후원을 해왔다는 윤씨는 "일회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본사에 어려운 아동보육시설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 했던 것. 윤씨는 본사가 소개한 한 어린이 보육 시설에 익명으로 세수 비누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윤씨의 비누 보시를 받은 보육시설의 관계자는 "받은 비누를 아주 소중하게 쓰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현대불교'가 펼치고 있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갈수록 많은 '손'들이 이웃의 손을 잡고 있다. 나누는 삶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사연을 접하고 직접 성금을 입금해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물건을 나누거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불자들도 늘고 있다.

현재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백혈병 민수(4) 돕기 운동'은 민수가 완쾌될 때까지 보도와 모금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취지가 많은 불자들의 관심으로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불자는 "아직 어린 아이가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부모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느냐"며 작은 금액이나마 민수의 치료비에 보태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또 다른 불자는 "아이와 아버지를 직접 위로하고 싶지만 그보다 후원을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후원 방법을 물어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받은 공덕을 사회로 회향하며 살아가려는 자세"라며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더 많은 불자들이 호응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장병들과 함께 장애인 가족나들이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

"나라 지키는 장병들이랑 같이 보니 더 재밌는걸!"

바깥나들이에 나선 재가 장애인들이 6월 9일 서울대공원에서 펼쳐진 물개쇼를 보며 즐거움에 흠뻑 빠졌다.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주관으로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서울대공원에서 '재가장애인 가족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가장애인과 가족 20명, 그리고 육군 80정비대대 자원봉사자 9명이 참여했다.



6월9일 오랜만에 서울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선 시흥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과 군 장병들.

행사는 재가장애인이 현장학습을 통해 사회적응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오랜만에 외출을 한 장애인과 가족들, 군인들은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원 견학 및 돌고래 · 물개쇼를 관람하고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핀 장미원을 산책하며 향기로운 나들이를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김성원씨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꿈이 실현돼 무척 떨린다"며 대공원 산책의 기쁨을 표출했다.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우리는 봉사가 언제나 즐겁다니까요" 삼전복지관 급식봉사팀은 화요일마다 봉사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사진은 6월14일 봉사모습.

삼전복지관 급식 봉사팀

"봉사하니 몸도 건강해져요"

"재밌고, 즐겁고, 내 몸에도 좋고. 안 좋으면 나오나요, 어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선재). 화요일마다 복지관의 점심식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6월 14일에도 어김없이 복지관으로 발걸음 했다. 이러기를 벌써 4년에서 10년. 7명의 봉사자들은 지겹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번 "내가 안 좋으면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석촌동 불광사(회주 지홍)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봉사자들이 사실 처음부터 봉사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순연(48) 보살의 경우, 11년 전 우연히 읽은 한 권의 책 때문에 삼전복지관과 연이 닿게 됐다. 그 당시 지 보살은 '봉사활동'에 대한 뜻은 있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 막막하기만 했다. 그 때 접한 것이 봉사활동 체험수기를 담은 책이었다.

"이거다, 나도 뭔가 하자 싶었죠. 처음이요? 아유, 당연히 힘들죠."

그렇게 혼자서 봉사활동에 대한 원을 세우고 굳은 마음을 먹고 가까운 삼전복지관을 찾았어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다 차츰 익숙해지고 복지관 직원들과도 서먹한 기운이 없어져 갈 때 쯤 되자, 지 보살은 혼자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도반들에게 못내 미안해 함께 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이다.

"아 글쎄, 우리 몰래 좋은 일 하러 몇 년을 다녔는지 몰라요."

함께 10년 여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최길환(58) 보살은 가장 먼저 지 보살을 따라나섰다. 이제 복지관에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봉사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최 보살은 복지관만 오면 "아프던 허리까지 낫는다"면서 스스로도 봉사 효험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한다.

봉사 하다보니 좀 더 부지런해졌고, 무엇이든 하나 더 하게 되는 자신들의 변화에 즐거움을 느끼는 불광사 보살들. 몸이 성할 때 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서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독거어르신에게 전화 드리세요

삼전복지관에는 물품 후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지역 저소득 · 독거어르신들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가족봉사단'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삼전복지관 불광사 보살들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라도 드리면서 꾸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나타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02)421-6077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지장사 중창불사 큰 스님 초청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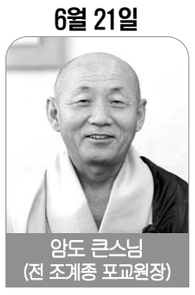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넘치는 부처님의 도량 중구 대흥동 수도산 지장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승대덕 큰스님을 초청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감로수와 같은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실천(實踐)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동 받으며 보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발원 합니다.

수행(修行)과 교화(敎化)는 불자(佛子)의 권리이자 의무 입니다. 불교(佛敎)를 바르게 알면 인생(人生)이 즐거워지고 행복(幸福)해 집니다.마음 크게 내어 고승 초청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성불의 인연 공덕을 심으시고 지장사 중창불사 원만 회향을 발원하며 기도도량 포교도량으로 지역의 중심도량이 되도록 발원 합니다.

● **일 시** : 불기 2549년 6월 21일(음 5월 15일) ~ 6월 24일(음 5월 18일) 오전 10시 (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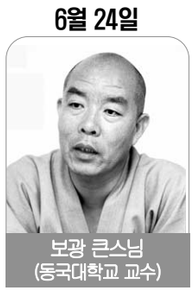
● **장 소** : 대전 퇴미고개 수도산 지장사 ☎ 042)226-7822

● **초청법사** : 암도 큰스님, 정무 큰스님, 정락 큰스님, 보광 큰스님


6월 21일 암도 큰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6월 22일 정무 큰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6월 23일 정락 큰스님 (수원 용주사 주지)


6월 24일 보광 큰스님 (동국대학교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지장사 주지 명안

대구불교방송
캐나다 공립학교 영어연수
7.26 - 8.21(4주간)
선착순 15명 모집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1급 지체장애인 은재가 오늘 하루 짝이 된 누나 주연이와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다.



"와! 진짜 잘 그리는구나." 청교련이 주최한 '2005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에 참가한 예진이(석관중 · 사진 왼쪽)가 선희(주몽재활원 미소반)의 붓놀림을 돕기위해 부채를 활짝 펴서 잡고 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2005 지원봉사 한마당'

"다르지 않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장애·비장애 청소년 80여명 함께 박물관 탐방

놀이 한마당 펼치며 '더불어 사는 의미' 공유

부처님 제자 중 아니룻다(아나율)와 출라판타카(주리반특)의 공통점은? 둘 다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아니룻다는 눈이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천안제일'의 칭호를 얻었으며, 출라판타카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수행자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는 구호는 많지만 아직도 많은 불자들은 장애인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과 하나 되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청소년들이 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주최하는 '2005 자원봉사한마당'에 참가해 하루 동안 장애 청소년과 함께 박물관 견학탐방을 한 청소년 불자들은 "내 자신의 편견이 가장 큰 장애임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2005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개막을 축하하며 모두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휠체어를 타고 박물관을 구경하는 정승락(23 · 주몽 재활원 사랑반)씨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원이(반포고)

"은재야, 오늘 하루 동안 누나랑 투호놀이도 하고 박물관 견학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자."

햇살이 밝은 아침,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에서 고3 주연이(19 · 혜성여고)는 하루 동안 짝이 된 은재(10 · 주몽재활원 초록반)에게 말을 걸었다.

"응! 근데 누나, 투호놀이가 뭐야?"

"몇 발자국 떨어진 항아리에 긴 물건을 쏭~하고 던져 넣는 거야."

"은재가 날아가는 거야?"

깜짝 놀란 얼굴로 은재가 묻는다. 누나가 자기를 던져서 항아리에 넣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웃음이 나오는 걸 참으며 주연이가 다시 "아니, 나무화살을 던져 넣는 거야"라고 설명하자 은재는 조금 풀이 죽은 목소리로 작게 속삭인다.

"나 그런 거 못하는데…."

주연이 얼굴에 '아차!'하는 표정이 스친다. 어제 두 시간동안이나 장애인 자원봉사 교육도 받았는데, 구김살 없는 해맑은 얼굴의 은재를 보고 그만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고 생각해버렸다. 1급 지체장애인 은재는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팔이 자라지 않았다. 여린 어깨뼈 양쪽에는 고사리 같은 작은 손만 튀어나와 있다. 주연이는 그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 은재의 손이 돼주겠다고 다짐한다.

6월 12일 열린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 '2005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의 첫 행사에는 장애 청소년 30여명과 서울 지역 12개 중 · 고교에서 자원한 50여명이 함께 했다. 얼굴도 본 적 없고, 평소 마주칠 일도 없었던 장애 · 비장애 청소년들이지만 같은 또래라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은 벌써 하나가 됐다.

조달현 사무총장이 말한 "이 기회를 통해 장애 · 비장애 청소년들이 친구가 되어 '더불어 사는 의미'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는 행사 취지는 만남의 순간부터 빛을 발한 셈이다.

청소년들은 10인 1조가 되어 박물관 탐방, 점심 식사, 만들기와 놀이 한마당 등을 함께 하며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다.

언제나 엄마가 차려주는 밥만 먹었던 비장애 청소년들이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의 손이 되어 도시락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발이 되어 휠체어를 옮긴다.

"정현아, 경사면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야지!"

담당 교사의 충고에 경사면을 내려가던 정현이(18 · 동대부고)가 재빨리 서정근씨(24 · 주몽재활원 풍경반)를 태운 휠체어의 방향을 바꿨다. 형에게 기념품점을 구경시켜주겠다는 생각에 '경사면에서 휠체어를 앞세우면 장애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단단히 교육받았건만, 난생처음 휠체어를 작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정현이는 "아무 불편 없이 돌아다니던 평소 습관이 몸에 배어서 무심코 실수를 하게 된다"고 멋쩍게 웃더니 "그 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 '나 중심적'인 태도를 벗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참가했다"는 영식이(18 · 면목고)는 희성이(19 · 주몽재활원 행복반)와 함께 박물관을 돌아봤다.

" '우리가 봉사한다'고 생각하며 나왔는데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록 육체는 불편하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형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영식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재홍이(18 · 면목고)도 "형이 우리보다 국사도 더 많이 알아서 박물관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줬다"고 거들었다.

희성이가 천천히 "우리는…일반 학생들과 다르지 않아요"라고 힘겹게 말을 맺자 주변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스태프를 맡은 지수연씨는 "비장애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행사를 기회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 다시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늘 참가자 중에도 작년 자원봉사한마당을 참가하고서 또다시 하고 싶어서 지원한 아이들도 꽤 된다"고 뿌듯해 했다.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기영이(18 · 동대부고)가 바로 그런 경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교련에서 주최한 자원봉사한마당에 참가한 기영이는 "작년에는 꼬마 아가씨랑 짝이 되어 롯데월드를 함께 구경했는데, 올해는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았네요"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장애인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는데, 함께 친구가 되어 어울리고 서로 알아가게 되면서 장애는 병이 아니라 단지 나보다 조금 더 몸이 불편한 사람임을 알게 됐다"고 기영이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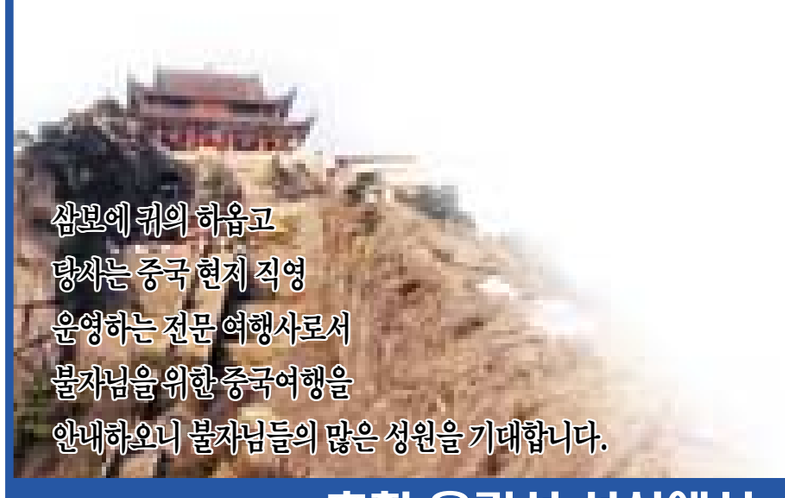
헤어질 시간이 다가올수록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아쉬운 빛이 더욱 짙게 떠올랐다. 은재와 듬뿍 정이 든 주연이는 은재가 열심히 그린 부채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다. "자주 만나고 싶지만 저도 이제 고3이라서 약속하기 어려운데다가 아직 은재가 어려서 그런 말을 섣불리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오기를 정말 잘했어요. 집에 있었으면 어차피 다른 날과 비슷하게 보냈겠죠. 은재와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누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재가 누나에게 '나 잘 뛰지?'라고 묻는 것처럼 신이 나서 뛰어가자 주연이는 짐짓 천천히 따라가며 외쳤다.

"은재야, 너무 빨리 뛰어서 누나가 못 쫓아가겠어!"

글=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5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79만원 (10명이상 출발)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문화관광부 불자회 '문불연'과 종무실 직원 등 20여명은 6월 12~13일 송광사 · 선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송광사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현고 스님(맨 오른쪽)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문광부 불자모임' 송광사 · 선암사서 템플스테이

"고찰에 오니 불심충전 저절로"

자상한 안내에 "제대로 배우고 싶다" 환희심
창립 2년 맞은 '문불연' 활성화 다짐

"막연히 알았던 불교가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6월 12~13일, 순천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선암사와 송광사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한 문화관광부 불자 모임 문불연(文佛緣 · 회장 최병구)과 종교업무를 주관하는 종무실(실장 이보경) 직원 20여명이 밝힌 한결같은 소감이다. 이들에게 남도땅 천년고찰에서의 1박 2일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할 인간의 가치와 소중한 도반애를 일깨워준 기회였다. 또한 창립 2년째를 맞는 문불연의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선암사 前 총무 승범 스님으로부터 사찰안내를 받고 있는 문불연 회원들.

비가 온다던 예보와는 달리 화창한 하늘이 열린 12일, 참가자들은 먼저 태고종 선암사를 찾았다. 편안함이 좋아, 자연 속의 절이 좋아 문불연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불자라 말하기도 민망하다"는 참가자들의 표정에 걱정이 비친다. 그러나 선암사는 소박한 자연미를 머금고 긴장을 풀어준다.

사찰안내를 맡은 선암사 前 총무 승범 스님의 입담은 사찰구조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사찰건축을 주제로 불교를 어떻게 느끼고 배워야할 것인가를 일러준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지장전으로 이동한 승범 스님은 생과 사, 과거와 미래를 지장전과 함께 설명했다.

"지장전은 지장보살을 모신 집이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살아가야할 삶의 방향을 일깨워주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맨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던 문불연의 막내 채선희(종무실)씨가 "스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환희심을 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태고종 총무원이 제안하고 문불연과 종무실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지난해 3월 창립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못했던 문불연은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행사에 참가한 문불연 회원들의 각오는 남달랐다.

"지난해 불교모임을 창립하기는 했지만 부끄럽게도 법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태고종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립니다. 이번 템플스테이가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최병구 문불연 회장(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기획조정팀장)은 반성과 각오로 이번 템플스테이에 임했다.

종무실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참가를 주저하지 않았고, 개신교 · 가톨릭 · 민족종교 담당자들은 시종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개신교와 가톨릭 담당 양재완 서기관은 "사찰에 깃든 심오한 의미를 듣고 나니 불교가 새롭게 보인다"며 흐뭇해했다.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송광사도 방문했다. 송광사를 둘러보고 우리 고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결제철에는 일반인을 접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법문을 들려주었고, 태고종 총무원과 선암사, 송광사는 숙식은 물론 사찰안내 등으로 활동을 격려했다. 종단과 사찰의 배려가 큰 만큼 참가자들이 1박 2일동안 느낀 감회 또한 컸다.

천은선 총무(관광자원과)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발심이 도반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며 "이제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았다"고 털어놓았다.

종무실에서 불교와 전통사찰을 담당하는 송원석씨가 해답을 내놓는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회향 아닐까요?"

순천=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열린우리당 '이타회'

6월 24일 조계사서 창립법회

열린우리당 불자국회의원들이 신행모임을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열린우리당 이타회(회장 윤원호)는 6월 24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주요 종단 대표를 비롯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관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타회에는 윤원호 회장을 비롯해 최재성 의원(간사), 이용희 의원, 강창희 의원, 이영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에 가입한 14명과 친불교적인 성향을 보여온 의원들이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최재성, 이영호 의원 등은 2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자의원모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법장 스님은 지난달 윤원호 의원 등으로부터 의원불자 창립 소식을 듣고 이타회라는 휘호를 내렸다. **박봉영 기자**

파주시청 공무원불자회 생긴다

6월 25일…지역사찰 적극 지원

경기도 파주시청에도 공무원불자회가 생긴다. 지역 사찰과 신도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다.

파주시청 공무원불자회는 6월 25일 오전 11시 파주시청 소공연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역사찰 스님들과 재가불자,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법회에서는 초대회장 및 집행부를 선출한다.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창립을 축하하는 법문을 내릴 예정이다.

파주시청불자회는 앞으로 월 1회 정기법회를 비롯해 성지순례, 수련회 등을 열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질 예정이다.

우리단체 이사람



황외숙

서울경인교사불자회 부회장

'친근한 불교'로 전법에 진력
교사들의 신행혁신 강조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임창홍)의 전법사 황외숙 부회장(51 · 사진). 서울 금호초등학교 교사인 황부회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제일' 불자다. 전법비결은 돈독한 신심과 구성진 말솜씨. 밤새 들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황부회장의 달변을 듣고 있으면 절로 빠져들 것만 같다.

"전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교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전하느냐고 되물어요. 전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권유하면 그것이 전법입니다."

서울 잠실 불광사 신도인 황부회장의 책상과 가방에는 불서와 전법용 안내지, <월간 불광> 구독신청서가 있다.

심지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5반 교실에서도 어린이찬불가, 불교만화, 불교관련 비디오테이프 등을 접할 수 있다. 어린이찬불가를 개사한 반가를 만들어 놓았고, 칠판에는 오관게가 붙어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불교와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하는거지요. 책상에 불교만화를 두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일기에서 절에 간 내용이 있으면 칭찬을 하면서 어린이 법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인근 교회에서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선물을 주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그때마다 불자들이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집에 있을때 교회에서 찾아오면 정중히 맞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전법용 안내지를 내밀고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통하지 않는다는걸 알지만, 그렇게 하면 불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고교불교학생회와 대불련 활동을 하기도 했던 황 부회장은 1991년부터 불광사와 인연을 맺었고, 1997년 서울경인교사불자회가 결성되자 곧바로 가입해 교사들의 신행혁신을 위해 힘써왔다.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황부회장은 언제나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가슴에 담고 교단에 선다. **박봉영 기자**

"청정국토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 대구 동화사서 펼쳐



6월 12일, 대구 동화사에는 노란 조끼와 모자로 노란 물결을 이룬 전국 불교산악인들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제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가 열린 것.

산악인대회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중앙신도회 손안식 부회장,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 및 대구광역시신도회 장영관 회장 등의 인사를 비롯해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산하 39개 산악회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불교산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기념법회(사진)에 이어 2부 어울림한마당이 분수대 앞에서 펼쳐졌다.

이날 지성 스님은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마음으로 전국의 명산과 사찰을 찾아 신행을 증장하고 전국적인 신행단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장근 대구불교산악회장은 환영사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상생을 도출하여 진정한 불국정토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달성하고 우리가 사는 국토를 청정히 지키고자 생태계보호 등 생명존중의 실천을 일깨우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요 수행"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 김진관 총재는 "한 산악회 한 산 지키기 운동, 사찰 수행환경 및 문화재 보호 모니터링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불교산악인이 되자"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청동 불상 제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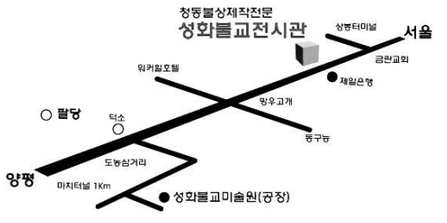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www.sh-buddha.co.kr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0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2005학년도 후기 박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전공
가. 학위과정

계열	학과	석사	박사	전 공
인문계열	불교학과	0명	10명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

2. 지원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해당없음
나. 박사학위과정
1) 국내 · 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5년 8월 취득예정자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또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등록된 타 종단 승려
2) 기타 관례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동일계 출신이 아닌 자도 응시할 수 있음
4) 비동일 학과 및 특수(야간) 대학원 출신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석사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방법(특별전형)
1) 서류심사 및 면접
-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적성, 학업계획서에 따른 수학준비도 평가
4. 제출서류
박사학위과정
1)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1부
2)석사학위수여 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또는 수여예정증명서 1부
3)석사학위과정 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평가기초자료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5)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주민등록등본 1부
7)수계증명서 1부
8)총무원장추천서 (타 종단승려에 한함) 1부
5. 원서교부
가. 일시 : 2005년 6월 27일(월) ~ 6월 30일(목) 09:00 ~ 17:00까지
나. 장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6. 원서접수
가. 우편접수 : 2005년 6월 28일(화) ~ 7월 1일(금) 16: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자는 전형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을 발급받아 원서,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 (확인전화 필)
나. 방문접수 : 2005년 6월 28일(화) ~ 6월 30일(목) 16:00까지
다.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031-980-7862)
7.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10:00부터
나.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본부 동 4동 쎄미나실
8. 합격자발표
가. 일시 : 2005년 7월 6일(수)
나. 장소
- 대학원에 게시판 및 본교 홈페이지(www.sangha.ac.kr)에 공고함(개별통보하지않음)
- 합격과 관련된 서류(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학사안내, 학생증 신청서)는 합격자 발표 후 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개별 송부함
9. 합격자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05년 7월 19일(화) ~ 7월 22일(금)
나. 등록장소 : 외환은행 328-22-01312-0 중앙승가대학교
10. 유의사항
- 지원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학위(석사학위)취득예정자는 입학전까지 학위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 입학이 취소됨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	안	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720-5682

학 인 모 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범음 · 범패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무보시 학인**을 모집합니다.
바라, 사물 다루는 법, 49재, 의식 및 전통교육
문의처 055)381-1199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바라춤.작법.살풀이
49재,천도재,기타의식에 정성을 다해서 안무해 드리겠습니다 _()_
010-9209-0142
불교무용 속성 강좌

원효대사의 기신론소 특강
본 대승불교연구원은 원효대사의 기신론소를 특강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특강안내
• 일 시 : 2005년 7월 2일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 12시 30분)
• 장 소 : 대승불교연구원 (동국대 전철역 위쪽 엠베스더 호텔옆 대학문화원)
• 강 사 : 오형근 교수(현 동국대 명예교수)
• 교 재 : 원효찬 대승기신론소 • 수강료 : 월 5만원
문의 02)2264-712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성불사
011-591-8228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30~50대
011-828-3618

기도스님 모십니다
산중 사찰
▷경남 양산
055)375-4111

인연있는 기도처를 찾고있습니다
(40대 비구)
전통불공의식 해드립니다
033)644-6608

중앙승가대학 93학번 '무아' 비구니스님을 찾습니다
이 신문을 보신 즉시 연락바랍니다
011-819-1570

승용차를 보시해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소승은 깊은 산사에서 용맹정진하고 있는 비구입니다. 교통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011-9601-6676

행 자 모 집
천일기도후 수계
자격: 40세 미만, 남,녀 고졸이상
천일기도 의지가 있는 분만 연락요!!
011-468-90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경기도)
02)356-1860

사찰운영하시면서 평생계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685-8760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에게 달마그림 보시해드립니다 오셔서 받아가세요
010-6462-0343
주강합장

부전스님 구합니다
▷조계종스님에 한함
051)635-374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017-260-331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다대사
051)261-25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제한없음)
경남 창원
016-9315-3663

수행하면서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구미
018-587-2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2세 이상
▷충남 천안
010-6415-477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052)298-9911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인천 십정동 대원사
032)433-5147
032)435-0478

속리산에 있는 불교명상센터에서 명상공부하면서 공양주 하실 보살님, 도량관리할 처사님 모십니다.
054)535-03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384-7557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평수 : 60평, 5층건물 5층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6백만원
010-2245-3534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북 예천(중앙 고속 예천 IC 40분)
● 평수 : 건물 2동 50평
● 농경지 : 2,500여평(추자, 감, 유실수 수확)
● 해발 600고지
● 산새수려, 수행기도도량 최적지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9239-8357

암자안내
● 위치: 경북 군위군 춘산면
● 천년고찰 법당 및 요사 3동
● 대지 : 198평, 법당 뒤 야산 9천5백평 산밑 밭 약 1,000평
● 가액:몽땅 6천 8백만원(가격절충가능)
011-380-5611
031)251-5615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전국 제일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학력,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 배출기관
● 최첨단 시설
▶ **행자(예비스님 남 · 녀)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 – 45세미만,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 – 직접강의** ('저거는 뱅낭 고기묵고'의 저자)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문의전화 : 053)474-8228 011-9852-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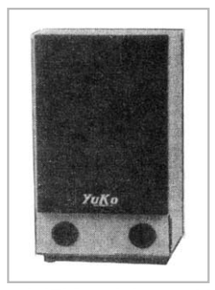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125,000원~~ → 95.000원

은행석 108염주, 손목입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목조건축물



서광사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天地運氣 通達 神法

◈ **수맥, 생기, 사기, 혈자리, 좌향, 예언 감별법**
● 사람의 일생을 과거와 현제 미래를 알고 예언하는법
● 양택(집터) 감정과 좌향 혈자리 잡는법
● 음택(묘터) 감정과 좌향 혈자리와 생기사기 수맥, 젊고 늙은이와 남과 여를 묘만보고 시신을 보는법
● 황천살과 팔효황천살을 양택, 음택에서 보는법
● 빙의된 영가를 보는법과 병든 환처를 찾아내는법
● 비보와 비기로 양택 음택을 명당으로 돌리는법

멀리서 원격으로 가보지 않고도 수맥과 생기 사기 황천살 등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으며 음택인 경우 자손에게 어떠한 화가 미치며 양택은 본인과 가족에게 화는 어떻게 끼치는가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방편을 세워 차단하는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 **강의시간** : 6월 25일 오후 5시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무교육 숙식제공 : **보시금 2백만원**
(예약전화 외 사절 / 선착순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전화 041)855-7114, 016-663-2159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법당 : 17평
● 요사 : 2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 3천

● 위치 : 전북 전주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25평
● 요사 : 실 90평
● 부지 : 672평
● 가액 :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불심 돈독하고 믿을 수 있는 사무장 모실 사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 서울시내큰사찰-45억
② 경기신축사찰-4억3천
③ 강원문화재사찰3만2천평-7억
④ 경기산속사찰3000평-8억
⑤ 봉천동사찰175평-4억5천
⑥ 서울토굴국유지150평-1억5천
⑦ 충청여법한사찰3천평-9억
⑧ 여주1200평-1억2천

♦사찰다량보유,공양주부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 상가주택
● 법당 3층
● 대지 78평, 건평 약 150평
● 은행융자 9천5백만원
전세 1억 천오백만원
● 가액 : 3억 5천만원
(1억4천만있으면 입주 가능)
● 3층법당만 전 · 월세 가능
(전세 7천만원)

010-8410-20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동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600만원
● 교통편리 몸만 오시면 됨

018-541-1890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2억 8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500만원짜리 임법당 구합니다.

054-637-1900
010-4527-129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대동면
외안리 마산마을
● 법당: 약 20평, 삼성각
● 가액: 전세 2천만원
년 2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526-9022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
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 비구니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

011-650-8481
032)667-8485

도심속 사찰 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대지 8×6미터 코너 112평 건평 120평
1층상가 4개 2층법당 최고시설 완벽함
1층상가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 가액 4억 8천중 상가보증금 융자금 빼고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께서 답사하시어의논바람
● 주차 80%.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010-3166-8483/032)667-8485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얼음골
● 부지: 200평
● 법당: 30평
(인법당)
● 가액: 2억
● 휴양 수도처로 만점

● 위치: 양산 배내골
● 부지: 900평
● 법당: 40평
● 요사채: 40평
● 가액: 4억
● 오묘한 수도도량

● 위치: 부산
● 부지: 200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5억
● 전망만점 포교도량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원안내

● 위치: 부천 ● 평수: 71평
● 전세: 7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절충가능)
● 스님건강상으로
양도하고자함
● 포교원 7년째 운영중

010-9924-0108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사찰(급)안내

● 위치: 마산시 근교
● 대지: 600평
● 건물: 대웅전, 요사채
(토담 신축 고건축)
● 가액: 4억원(절충가능)
● 기타: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30-1808

신 축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목조) 요사채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의
촌락의 끝이면서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비구니스님께 적합
● 가액: 1억1천만원

011-9405-818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구미시 소재
● 부지 : 140평(3층 건물중 3층)
● 법당 : 100평
(방4개, 옥상 사용 100평)
● 가액 : 2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 포교당으로 법당 시설비만
1억이 투자된 멋진 도량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
● 부지 : 약100평
● 법당 : 35평(2층, 단청)
● 요사 : 35평(1층, 단청)
● 가액 : 2억3천만원
● 특징 :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좋은인연 됩니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내
●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40평
● 가액: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135-8229
011-9638-8229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 건물 2층 총 70평
방2개,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822-6104

포교당안내

● 위치: 서초구 방배동 4층 48평
(이수역 4, 7호선 환승역 2분거리)
● 가액: 보 3000 / 월 100(보증금 조절가)
시설비 답사후 결정(시설A급)

● 위치: 대구시 동구 불로동 3층 65평
● 가액: 총금액 2300만원(집세, 시설비 포함)

016-213-2416(서울)
016-296-0385(대구)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 광진구
(상가 3층 건물)
● 법당1,방2(주방 및 거실1)
쾌적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에
월60만원,
시설권리금 2천5백만원(부동)

011-458-2955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 계곡 및 산세좋음

● 위치 : 부산시내 서구
● 부지 340평
● 법당 40평
● 요사 40평
● 가액 4억5천(융자가능)
※ 산세좋으며 바다 전망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용인시 도심포교 최적지
● 42평 건물 4층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산신각, 방2개
주방, 거실, 욕실
● 보증금 : 4천만원.월10만원
시설비 : 답사

017-372-8968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2,5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중 2층, 평수: 25평
● 대로변 번화가 사거리에
위치 목좋음
● 모든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2천5백만원 월40만원

010-8527-8747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인구 60만
(대구 달서구 소재)
● 건물: 3층(70평) 법당(30평) 방4개
● 특징: 8차선 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 교통)
● 가액: 보증금2천5백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후상의

011-699-9120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동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총 32평
● 법당 1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절충가능)

016-640-8133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전철역 3분거리)
● 규모 : 17평 아파트 1층 (복도식 코너)
● 가액 : 8,500만원(답사후 절충)
● 현재 법회 운영중 (철학 겸비 호조건)

연락처 011-9036-999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 소재
● 대지: 120평
건평: 43평(임법당)
요사채, 용왕당
● 스님건강상 (급)
● 가액: 1억7천만원

055)672-3313
011-872-3320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기와단청),
삼존불, 약사전, 신중단,
각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삼성각(5평기와), 요사채 20평,
방3칸, 입식부엌(정화조 유),
산신지지가 응집된곳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6440-306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내
● 평수: 법당 54평,
요사채 41평 ,기타 9평
총 3동
● 가액: 2억5천
● 주차장, 잔듸밭, 약수물,
신시가지 등산로

011-849-2904

암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 법당 : 1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각단탱화
● 요사채, 방 4개, 공양실
창고, 욕실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8678-9950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강원도 평창군
중창읍 마지2리
● 맑고 청정한 소나무 숲속도량
● 조용히 공부하며 사실분 적합
● 차진입 전기들어옴
컨테이너 가로등있음
● 관리지역 725평
● 가액: 4500만원

011-373-485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 읍내
● 대지: 100평 사용
대웅전: 목재 단청 10평
요사채: 2동(각각 15평, 25평)
● 가액: 1억7천만원
포교당으로 사용 적합

043)872-4270
010-3161-429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
천호역에서 6,7번 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25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모든시설완비)
상담 후 절충 가능

016)466-4833

암자(별장)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 부근 경금마을
(화계장터에서 10분거리)
● 면적: 대지 305평
● 건물 24평 깨끗한 양옥 슬라브집
자연경관 수려 고급 정원과 차밭
비구니스님 기도도량으로 적합한곳
● 가액: 1억5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1-9512-5118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평수: 3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약간
● 몸만오시면됨 교통편리
즉시법회가능

016-621-3267

사찰터안내

● 위치: 경주 산내면 소재
건천IC에서 10분거리
● 평수:1160평
● 주택건물허가 25.7평
● 창고용허가 14평
● 가액: 평당 7만원
● 주변환경이 좋고 공기와
물이 깨끗함

055)337-7774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봉터미널 근처
● 면적: 35평,5층건물중 5층
● 삼존불, 방3개, 주방, 화장실
●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1-9816-9383

암자(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동진주 30분거리)
● 면적: 972평, 법당: 10평
● 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청필,
요사채 3동(각 40평), 큰방(9칸)
● 산세가 수려하고 약수물 좋은 20년된 암자임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55)674-7839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 대지: 1000평
● 대웅전: 53평
산신각: 5평
요사채: 60평
종무소 기타: 12평
● 가액: 6억5천만원(융자2억)

011-9505-8128

사찰안내

● 위치: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 현 사찰운영중,석남사 인근
● 평수:대지200평,
건평60평
● 가액:4억 2천(절충가능)

011-9307-1676

사찰안내

● 위치: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명륜역 5분거리)
● 평수:대지57평(사유지14평),
건평50평
● 산밑,정원 마당 좋음,주차가능
● 삼존불,탱화,호신불108분,삼성각
● 가액:2억 7천(절충가능)

051)555-8516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 3천 5백만원
가액 : 1억9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건물 40평, 사용부지: 500평
● 임법당, 방4개, 입식부엌,
목욕탕2개
● 가액: 6천8백만원
1년 도지 20만원
● 아름들이 노송이 보기좋게 감싸고 있음

011-806-48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평수 : 2층 20평
● 법당, 거실, 방2개
● 시설물: 사찰 집기류 일절
시설비 700만원
● 가액: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

031)667-0529
010-3906-0528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 대지: 1000평
● 대웅전: 53평
산신각: 5평
요사채: 60평
종무소 기타: 12평
● 가액: 6억5천만원(융자2억)

011-9505-8128

사찰안내

● 위치: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 현 사찰운영중,석남사 인근
● 평수:대지200평,
건평60평
● 가액:4억 2천(절충가능)

011-9307-1676

사찰안내

● 위치: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명륜역 5분거리)
● 평수:대지57평(사유지14평),
건평50평
● 산밑,정원 마당 좋음,주차가능
● 삼존불,탱화,호신불108분,삼성각
● 가액:2억 7천(절충가능)

051)555-8516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 3천 5백만원
가액 : 1억9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건물 40평, 사용부지: 500평
● 임법당, 방4개, 입식부엌,
목욕탕2개
● 가액: 6천8백만원
1년 도지 20만원
● 아름들이 노송이 보기좋게 감싸고 있음

011-806-48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평수 : 2층 20평
● 법당, 거실, 방2개
● 시설물: 사찰 집기류 일절
시설비 700만원
● 가액: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

031)667-0529
010-3906-052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 소재
● 대지: 120평
건평: 43평(임법당)
요사채, 용왕당
● 스님건강상 (급)
● 가액: 1억7천만원

055)672-3313
011-872-3320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기와단청),
삼존불, 약사전, 신중단,
각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삼성각(5평기와), 요사채 20평,
방3칸, 입식부엌(정화조 유),
산신지지가 응집된곳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6440-306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내
● 평수: 법당 54평,
요사채 41평 ,기타 9평
총 3동
● 가액: 2억5천
● 주차장, 잔듸밭, 약수물,
신시가지 등산로

011-849-2904

암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 법당 : 1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각단탱화
● 요사채, 방 4개, 공양실
창고, 욕실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8678-9950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강원도 평창군
중창읍 마지2리
● 맑고 청정한 소나무 숲속도량
● 조용히 공부하며 사실분 적합
● 차진입 전기들어옴
컨테이너 가로등있음
● 관리지역 725평
● 가액: 4500만원

011-373-485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 읍내
● 대지: 100평 사용
대웅전: 목재 단청 10평
요사채: 2동(각각 15평, 25평)
● 가액: 1억7천만원
포교당으로 사용 적합

043)872-4270
010-3161-429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
천호역에서 6,7번 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25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모든시설완비)
상담 후 절충 가능

016)466-4833

암자(별장)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 부근 경금마을
(화계장터에서 10분거리)
● 면적: 대지 305평
● 건물 24평 깨끗한 양옥 슬라브집
자연경관 수려 고급 정원과 차밭
비구니스님 기도도량으로 적합한곳
● 가액: 1억5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1-9512-5118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평수: 3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약간
● 몸만오시면됨 교통편리
즉시법회가능

016-621-3267

사찰터안내

● 위치: 경주 산내면 소재
건천IC에서 10분거리
● 평수:1160평
● 주택건물허가 25.7평
● 창고용허가 14평
● 가액: 평당 7만원
● 주변환경이 좋고 공기와
물이 깨끗함

055)337-7774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봉터미널 근처
● 면적: 35평,5층건물중 5층
● 삼존불, 방3개, 주방, 화장실
●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1-9816-9383

암자(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동진주 30분거리)
● 면적: 972평, 법당: 10평
● 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청필,
요사채 3동(각 40평), 큰방(9칸)
● 산세가 수려하고 약수물 좋은 20년된 암자임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55)674-7839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 대지: 1000평
● 대웅전: 53평
산신각: 5평
요사채: 60평
종무소 기타: 12평
● 가액: 6억5천만원(융자2억)

011-9505-8128

사찰안내

● 위치: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 현 사찰운영중,석남사 인근
● 평수:대지200평,
건평60평
● 가액:4억 2천(절충가능)

011-9307-1676

사찰안내

● 위치: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명륜역 5분거리)
● 평수:대지57평(사유지14평),
건평50평
● 산밑,정원 마당 좋음,주차가능
● 삼존불,탱화,호신불108분,삼성각
● 가액:2억 7천(절충가능)

051)555-8516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 3천 5백만원
가액 : 1억9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건물 40평, 사용부지: 500평
● 임법당, 방4개, 입식부엌,
목욕탕2개
● 가액: 6천8백만원
1년 도지 20만원
● 아름들이 노송이 보기좋게 감싸고 있음

011-806-48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평수 : 2층 20평
● 법당, 거실, 방2개
● 시설물: 사찰 집기류 일절
시설비 700만원
● 가액: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

031)667-0529
010-3906-052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암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20분거리)
● 앞 수려한 경관, 뒤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자연식수물과 큰 물이
흐르는 오래된 암자.
● 법당 1동, 요사채 70평, 정각2동,
산신각, 용왕전, 용화전, 기타
목욕실 화장실 등 전체 2,530평에
국유지 3천여평 사용가능.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용도관계 없음.
● 전화상담 후 현지답사. 가격결정

011-9126-2266

사 찰 안 내

● 충북 보은에 있는 사찰입니다.
● 요사채 54평(인법당1,큰방1, 방5,
주방, 욕실2, 좌변기 화장실2),
창고10평, 하우스15평, 심야전기
보일러, 지하암반수 등입니다.
●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주위는
송림이 우거진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을은 1km 떨어져 있습니다.
● 인연있는 (급히)스님을 찾습니다.
전세(조정가능)

연락처011-763-1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건물(시설): 방2개,
주방(총 40평)
● 법당: 삼존불, 신중,
시왕 탱화 모셔져 있음
● 특징: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850만원
월 23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011-9850-294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계곡이
마당에 접해있는 팔공산에
명당 암자, 제2석굴암 부근
금년내 한티재 터널공사
착공예정
● 건물: 법당, 요사채, 용왕당,
정자, 등기 330평
실제사용 면적 500여평
● 가액: 5억

017-805-1456

사찰전세단독주택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 법당: 약 12평
● 방3개, 주차장완비
● 삼존불 아미타불 관음세지
지장보살 산신등불 각 일위
탱화후불 지장 신중 칠성
산신 각 일축. 법당불기 일체
● 가액: 전세 3천만원

011-395-2682
011-9047-36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좋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7324-5115

포 교 당 안 내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가격절충)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02)2208-6098

무상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김사업 법사, 미래학불교학회 학술회의서 주제 발표

불교는 전통적으로 '모든 현상을 무상(無常)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상은 불교적 세계관을 특징짓는 핵심 개념으로, 삼법인(三法印)에도 포함된다. 무상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고나면, '무상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김사업 오곡도명상수련원 지도법사는 6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학불교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무상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통해 무상에 대한 대처방식을 불교사적으로 검토했다. <아함경> <구사론> <중론> <유마경> 등의 경 · 론을 통해 초기 · 부파 · 대승불교가 바라보는 무상의 개념과 무상에 대처하는 방식을 비교하며 해답을 모색한 김 법사의 논문은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내 흥미를 끌었다.

경 · 론에 나타난 무상개념 · 대처방식 비교

부파 불교 무여의열반 대승 불교 무주처열반 지향

김 법사는 아함으로부터 논지를 전개했다. 그에 따르면 아함은 "탐욕의 대상이 된 육신과 일상의 모든 경험은 무상하며,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며, 그래서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님을 그대로 직시하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직시하다보면 육신과 일상의 경험이 '역겹도록 싫어 떠나'(厭離)게 되고, 그 결과 탐욕을 여의고 해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아함은 '무상에 대한 인식'이 무상한 현실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고, 해탈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뒤에 나타난 부파불교는 아함의 사상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부파불교의 대표적인 논서인 <구사론>은 무상이 고(苦)인 까닭을 삼수(三受: 좋거나, 싫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와 삼고(三苦: 아픈 괴로움, 단절돼서 생기는 괴로움, 변하게 되기에 생기는 괴로움)개념을 동원해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고통(苦苦) 자체의 괴로운 느낌(苦受)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느낌(樂受) 또한 언젠가 단절(壞苦)되거나 변하기(行苦) 마련이라는 점에서 괴로움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행고(行苦)다.

이처럼 무상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은 무루의 지혜로 정신적 번뇌가 끊어지고 육신조차 없어질 때 비로소 극복된다고 <구사론>은 설명한다. 이것이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인데, 아함의 '염리(厭離)'가 심화된 개념이다. 즉 '무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사론>의 답은 무여의열반인 셈이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립됐지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인식은 부파불교와 다르지 않다. 다만 무상을 대하는 방식은 구별된다. 김 법사는 "아함과 부파불교가 무상을 괴로움으로 보고 무상함 없는 열반을 추구하면서 무상 또한 초극돼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한 반면 "대승불교는 공(空)사상에 입각해 괴로움 또한 공한 것으로 보며, 괴로움의 원인을 무상에서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김 법사는 <중론> '제18장 관법품'을 근거로 "대승불교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희론(戱論)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며 "무상을 괴로움으로 집착하면 그것이 바로 희론이며 괴로움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즉 "대승불교에서 무상은 염리하거나 초극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진리로 간주되며, 무상과 하나 되지 못할 때 오히려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같이 무상을 대하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상이한 태도는 열반의 개념차이로 이어진다. 즉 부파불교가 무여의열반을 지향한다면, 대승불교는 윤회와 열반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을 목표로 한다.

김 법사는 "무상하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타인에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말로 발표를 마치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한국전쟁 중 소실된 순천 송광사.

한국전쟁시 호남 소실 사찰 빨치산 토벌위한 방화 대부분

전남 · 북 및 광주 지역 사찰이 한국전쟁 당시 입은 피해의 대부분은 빨치산을 토벌하기위한 한국군경의 고의적인 방화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제3권 전남편'과 '제4권 전북편'에 따르면 전남지역 피해사찰 42개소 가운데 38개(90.5%)가, 전북지역 피해사찰 40개소 가운데 27개소(67.5%)가 한국군경에 의해 소실됐으며, 주로 빨치산이 밀집돼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컸던 곳은 전남 · 광주지역의 경우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과 백양사 주변, 그리고 전북지역의 경우 빨치산 거점이었던 회문산 · 지리산이 있는 순창 · 임실 · 남원과 운장산 · 덕유산이 가까운 완주군 등이다.

이번 전남 · 북 지역의 사찰피해현황을 조사 · 연구한 박이준 목포대 연구교수(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는 첨부논문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해 누락된 역사를 찾아내 역사 속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군경에 의해 훼손된 불교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는 조계종 총무원이 멸실문화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쟁기 멸실문화재 조사에 대한 보고서로, 조계종 총무원은 2002년 강원도, 2003년 제주도, 2004년 전남 · 북도와 광주지역을 조사했지만 금년에는 예산문제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다.

中 불교계 선교융합 주제 세미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에서 제64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중국 불교계의 선교 융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차차석 동국대 강사의 '육조단경에 나타난 법화사상'과 화랑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의 '운서 주굉의 선정겸수관(禪淨兼修觀)'이 발표된다. 논평은 최동순 동국대 강사, 변희욱 서울대 강사 등이 맡게 된다. (02)733-5311

도갑사 5층 석탑 · 안심사 계단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방유형문화재였던 영암 도갑사의 5층석탑과 완주 안심사계단을 각각 보물 제1433 · 1434호로 승격 ·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갑사5층석탑은 하층기단을 잃은 채 단층 기단 위에 탑신부와 노반석만으로 조성돼 있었으나 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의 도갑사 경내발굴조사에서 하층 기단부를 발견, 2002년 2중기단의 5층석탑으로 복원됐다.

문화재청은 "전체적으로 균제된 체감율과 안정된 조형미가 돋보이는 고려초기 석탑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보물 제1434호로 지정된 완주 안심사 계단.

안심사계단은 1759년 이전에 조성된 부처님 치아사리와 의습을 봉안한 불사리탑으로, 중앙의 석종형 부도(높이 176cm)와 신장상 4위(높이 110~133cm), 그리고 기단의 석조 조형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심계단에 대해 문화재청은 "단층 계단 면석의 연화문과 격자 문양 등의 조각수법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우수하며 신장상의 조각 또한 갑옷과 신체의 세부표현에 있어 매우 세련되고 풍부한 양감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보물 제1433호 지정된 영암 도갑사 5층석탑.

이어 "시기적으로 1613년의 대구 용연사 석조계단과 친연성을 지니고 있으나 조각수법은 훨씬 뛰어나 한국 불사리 석조 계단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라고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6>

무위와 나노 과학

<금강경>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에는 '일체현성 개이무위법 이유차별(一體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이라는 말이 나온다. '깨달은 이는 무위법에 근거해서 차별을 이룬다'는 뜻으로 상(相)에 머물지 않는 무위의 경지를 표현한다. 노장사상 또한 무위의 자세를 강조하며, 이상적인 태도로 꼽는다. 그런데 이러한 무위의 세계는 첨단과학기술인 나노기술에도 작용하고 있으니 흥미롭기 그지없다.

나노과학은 나노 크기의 소재를 다루는 과학이다. 1mm를 1000개로 쪼갠 길이가 1마이크론이고 이를 다시 1000개로 쪼갠 것이 1나노미터이니 나노의 세계가 얼마나 극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 2000년대가 마이크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나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과학계 "생각은 나노세계의 단백질 작용"

나노미터 알면 생명현상까지 조작 가능

나노의 세계는 우리 몸속에도 있다. 세포에 들어있는 세포핵의 크기는 수십 나노이고 우리 자신과 자손의 형태 등을 결정짓는 DNA의 크기가 몇 나노에 불과하다. 또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 크기도 나노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나노미터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으면 생명 현상까지도 조작될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나노 과학과 달리 마이크론 시대를 처음 열었던 반도체 기술은 인위적인 것이다. 광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나 회로를 렌즈로 축소해서 반도체에 전사함으로써,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반도체 칩에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기술이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광학기술과 더불어 정교한 반도체 조작기술을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훌륭히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 등에 들어있는 메모리칩에서 한개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60나노미터 정도이므로, 반도체 기술 또한 나노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나노 크기의 트랜지스터는 광학기술에 의해서 정확히 조작된 결과물이다.

이에 비해서 세포핵과 같은 나노 크기의 물질은 하나 같이 자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식물이 매 순간 행하는 탄소동화작용 역시 햇빛과 탄산가스를 받아서 녹말 등을 만들어 내는 나노의 세계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나노 과학자들은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자연이 하는 바에 따라서 나노크기의 입자나 튜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를 SA(자기조립:self assembly)기술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무위의 기술인 셈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번뇌하는 것 역시 나노의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작용으로 현대 뇌 과학은 이해하고 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세라토닌을 투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역시 행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유 없이 번뇌가 생길 때, 가만히 무위의 세계를 느껴보도록 하자. 무한겁에서 생겨난 DNA의 결과물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움직이는 禪의 숨결 템플스테이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 ·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언 제 :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 동참금은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수련내용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 회화를 원어민(외국인 행자님)이 지도합니다.(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어강사 1명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우산 · 운동화 · 운동복 등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울력 (도량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일주문



재외동포 기자대회서 강연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은 6월 1~3일 강원도 설악파크에서 열린 제4회 재외동포 기자대회에서 강사로 초빙돼 강연을 했다.



고영을 화백 초청 탱화전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7월 31일까지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고영을 씨 탱화작품 3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다.



'내안의 평화…' 걷기대회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대효 스님은 6월 17일 제주 탑동광장에서 '내 안의 평화를 찾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우수 직업재활센터로 선정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명궁 스님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하는 직업재활센터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단오축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공주지부장 환성 스님은 6월 12일 공주 공산성에서 '제7회 청소년이 만드는 세시풍속 단오축제'를 개최했다.



클레몬트 · 웨스트대학과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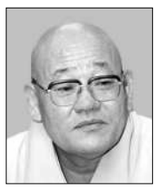
위덕대학교 한재숙 총장은 6월 13~19일 6박 7일 일정으로 미 서부의 클레몬트 대학과 웨스트 대학을 방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개관 1주년 기념음악회

시흥장애인복지관 이상호 관장은 개관 1주년(6월 25일)을 맞아 6월 29일 오후 3시 복지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제20회 불이상 생명나눔실천본부 · 최연식 교수 선정





제20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최연식 교수(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실천분야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 사진 위)가 각각 선정됐다.

최연식 교수는 저서 <불교사의 이해>를 비롯해 '신라불교' '몽산 스님과 고려불교' 등의 다양한 논문 등 불교사학 쪽의 연구성과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과 사회봉사활동으로 불이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영빈관. **강지연 기자**

'앵무새' 되지 말라는 가르침 남겨두고…

내소사 회주 혜산 스님 입적

17일 영결 · 다비 엄수



혜산 스님 영결다비식이 6월 17일 내소사에서 산중장으로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 회주 우암당 혜산(愚巖堂 慧山) 스님이 6월 13일 오후 3시 내소사 벽안당에서 입적했다. 세수 73세 법랍 4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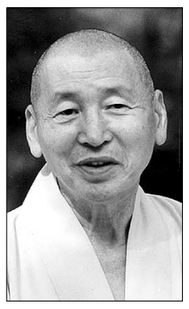
17일 오전 10시 능가산 내소사 산중장으로 엄수된 영결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사부대중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5번의 명종에 이어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법어에서 "홀연히 선사의 시적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동방에 지혜의 별이 떨어짐과 같다"며 "두루한 청산이 모두 이 활안이니 구천에 명월이 선심을 드러냄이다"고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이에 앞서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은 영결사에서 "큰스님이 정진하시던 모습과 철저한 무소유의 생활은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회고하고 "큰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은 봉래 계곡에 메아리 되어 정진대중을 이끌어 주는 법력이 되어 달라"고 기원했다.

영결식을 마친 후 스님의 법구는 만장을 앞세우고 내소사 다비장으로 운구돼 본래 제자리로 돌아갔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혜산 스님의 족적



우암당 혜산 선사는 1933년 음력 9월 6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논산리에서 태어났다. 고교시절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절대절명의 의문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해안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접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서문을 읽는 순간 무릎을 치고 '일대사를 밝히는 책'이라며 밤새워 노트에 베꼈다.

58년 서울대 농대 졸업 후 해안 스님과 3년간 편지로 문답을 나눴고, 63년 내소사 지장암에서 열린 특별정진법회에 참석한 뒤 해안 스님과 처음 상봉한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이후 은사 해안 스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시봉하며 산철도 없이 정진했다.

64년 서래선림에서 수선안거 이래 제방 선원에서 15안거를 성만했다. 7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장,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조계사 주지, 국제불교교류협회 이사,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이사장, 전북불교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89년부터 93년까지 내소사 주지를 맡았으며 입적 전까지 회주소임을 맡아 보며 후학들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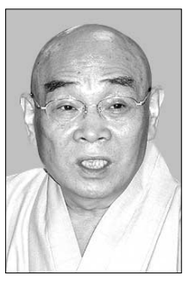
10년 가까이 혜산 스님을 모시고 내소사 가풍을 일으켜온 상좌 진원 스님(내소사 주지)은 "큰스님은 평소 중도를 강조하고 몸소 실천행으로 보이셨다"며 "선이라고 좋아하거나 악이라고 멀리하지 말고 지혜와 복덕으로 정진하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을 이끄셨다"고 말했다.

혜산 스님은 "마음이 주가 되지만 마음은 몸을 의지해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려면 수행도량이 갖춰져야 한다"며 20여 년간 퇴락한 내소사를 떠나지 않고 중창불사에 앞장서 오늘의 가람을 일궜다.

또한 스님은 생전에 "남이 해놓은 것을 자기 것인양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은 세상을 더욱 혼란하게 할뿐이다"며 일체 저서를 남겨놓지 않았다. **이준엽 기자**

"보살운동으로 미래주도"

한국전통불교연구원장 혜거 스님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는 새로운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 중핵을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립 4주년을 맞는 한국전통불교연구원장 혜거 스님(서울 금강선원장 · 사진)은 미래의 한국사상을 주도할 정신적 기틀이 바로 보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 같은 보살사상을 전개하기 위해 6월 26일 '한국불교전통연구원 보살운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불교경전에서의 보살상을 현대적 개념에 맞게 정립하는 한편, 유교의 군자 · 대인, 서양철학의 성인상도 연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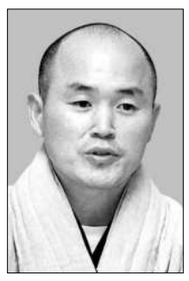
스님은 특히 보살운동을 이끌 인재양성에 심열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불교를 주도할 동량을 교육시킬 도량 건립에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 불교교육을 전담할 도량 건립을 위해 현재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4천2백여 평의 부지매입을 마무리 지었다.

"불교공부에는 승 · 속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강선원 10년 결사 대도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사인 탄허 스님과 지난 1959년부터 3년간 강원도 삼척 영은사에서 '<화엄경> 경전공부 결사'에 들어갔던 혜거 스님은 완벽한 간경공부가 야무진 불교교육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불교가 통합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강주스님이 음반 낸 까닭은?

수진 스님 '살구꽃 피는…'' CD 제작



"'부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불법의 깊고 오묘한 철학과 가르침이 녹아 흐르는 노래입니다. 무심코 부르다 보면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과 교를 두루 갖춘 강사로 널리 알려진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사진)이 5개월여의 작업 끝에 '살구꽃 피는 여기 해인에' 라는 음반을 내 놓아 화제다. 특히 스님은 이 CD 제작을 위해 5인조 밴드 '해조음'을 결성했다.

해인사 강주를 지냈고 지금도 경전 강의로 분주한 스님이 왜 음반 제작에 나선 것일까? "찬송가풍으로 흘러가는 찬불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교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내면의 깊은 본향을 깨워내는 게 진정한 불교음악"이라는 스님은 어린이 밴드 결성까지 계획할 만큼 음악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20년 동안 강원과 선원에서 정진한 끝에 차오른 내면의 에너지를 대중들에게 회향하고 싶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번 CD에 수록된 곡들의 가사를 모두 직접 썼고 작곡은 30여 년의 인연을 이어온 음악인 홍광현 씨가 했다. 특히 스님이 직접 작곡한 11분 길이의 명상곡이 눈길을 끈다.

수진 스님은 "관세음의 소리가 시방세계에 두루 퍼지길 바라는 뜻에서 밴드 이름을 '해조음'이라는 붙였다"며 "시디 발매 기념으로 7월 중 해인정사에서 공연을 갖고, 결성기념 공연을 비롯한 해제철 선방 수좌들을 위한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51)202-493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포교사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 교육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은 6월 11~12일 마곡사에서 포교사를 대상으로 2005년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개최했다. 100여명의 포교사가 참가한 자원봉사자 교육에서는 현고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주경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일붕대종사 열반 9주기 추모법회



일붕선교종(총무원장 법철)은 일붕 서경보 스님 열반 9주기인 6월 15일 서울 총무원에서 추모대법회와 남북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봉암 스님, 총무원장 법철 스님, 동국대 김용정 교수, 비자야시리 주한 스리랑카 대사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지묵 스님, 단오부채전시회



매년 단오마다 선화를 그린 부채를 전시해 수익금 전액을 불우청소년 장학금으로 기탁해온 지묵 스님의 '제4회 단오부채전'이 6월 11일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렸다. 경구 · 심우도 등의 부채 1백여점을 직접 그려가며 전시한 부채전의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과 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쓰여진다.

Btn 불교TV

불교TV 와 함께하는
백두산·북경·만리장성 성지순례

2005. 7. 7(목) ~ 7. 12(화) 5박 6일 일정 금액 1,080,000 원



지도법사
김용사 회주 자광스님

7월 7일
★ 장춘 도착 - 위황궁, 영화 촬영소
★ 연길 - 백두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7월 8일
★ 백두산 등정(짚차)천지
장백폭포, 소천지, 자연온천 관광
★ 온천욕 체험



7월 9일
★ 백두산을 출발하여 이동중
자연 박물관 관광
★ 용정으로 이동 후 윤동주 시비,
해란강, 일송정 원경 관광
★ 두만강, 북한 남양시 원경 감상



7월 10일
★ 천안문 광장
★ 자금성 ★ 경산공원
★ 서태후의 여름별장 '이화원'
★ 서커스 관람



7월 11일
★ 만리장성(케이블카)
★ 용경협(유람선) ★ 명 13릉 관광
★ 발맛사지 체험



7월 12일
★ 왕부정 거리 관광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4525 www.btn.co.kr

둥둥 엄마 오리
못 물 위에 둥둥

동동 아기오리
엄마 따라 동동

풍덩 엄마 오리
못 물 속에 풍덩

퐁당 아기 오리
엄마 따라 퐁당

'감자꽃'으로 유명한 권태웅(1918~1951) 시인의 '오리'를 읽으면 한가로운 연못에 떠 있는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의 모습이 그려진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시인의 눈에 비친 오리 가족의 풍경은 그 시대 어린이들에게 한 없이 맑고 정겨운 선물이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있을까?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알록달록하게 염색한 병아리들을 주고받는다는 보도가 있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난하고 염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어미 닭을 따라 앞마당과 외양간, 미나리꽝을 쫑쫑거리며 다니는 노란 병아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을 어른들이 돈벌이를 위해 그 여린 솜털에 화공약품을 잔뜩 묻혀서 판다는 것 자체가 한 편의 '지옥도'다.

물론 염색된 병아리를 사서 노는 아이들에게도 병아리는 장난감 이상의 의미가 없을 테니 그 역시 지옥의 한 장면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고귀한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다 못해 아이들에게 장난감 대용으로 인식 시키는 지옥 말이다.

학교 앞 문구점 구석진 곳에 비치된 게임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아이들, 책가방을 팽개치고 인터넷에 접속해 폭력으로 일관되는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에게서 인간 세상의 밝은 미래를 차마 내다볼 수가 없다. 참담한 일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된다. 언젠가 "이 시대의 어른들은 생존을 위한 전사 같다"는 말을 들었다. 삶이 전쟁이란 말이다. 어른들이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안 아이들은 도덕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인간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인과라는 개탄을 들으며 입맛이 씁쓸했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불자 세상보기

이 지 엽
시인

병아리가 장난감인가?

세상에는 존귀한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존귀성은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이 가치를 부여함으로 존귀해지는 것이지 스스로 존귀해지는 물건은 없는 것이다. '생명'은 어떤가? 누가 생명의 귀함과 천함을 따질 수 있는가? '생명'의 존귀성은 인간의 가치부여마저 초월하는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지닌 생명은 시작과 끝이 없다고 가르쳤다. 사람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의 생명을 두고 어찌 우열과 경중을 따질 수 있겠는가.

중국 당나라때 남전(南泉) 선사가 제자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서슴없이 고양이 목을 잘랐다는 이야기는 선가에 널리 알려진 일화다. 그는 단지 고양이 목만 벤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집착'이라는 병도 함께 잘랐던 것이다.

생명을 죽여 생명을 살리는 선사의 활발발하고 적극적인 가르침은 오늘날 흐트러진 생명관을 정돈해 주는 약이다. "어제의 네가 오늘 나로구나"하는 선사들의 외침은 일체 생명이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건만, 시작과 끝을 논할 수조차 없는 그 절대적 존귀성이 지금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다. 생명의 존귀성을 알뜰하게 가르쳐도 모자랄 세상에서 생명과 장난감을 동급으로 가르쳐 버리는 어른들이여, 그 업보가 무섭지 않은가?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日 불교계의 '참회' 확산되길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훼손하고, 편협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 일본 불교지도자의 한 사람인 한일불교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이 6월 14일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 '제2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평화기원법회'에 참석해 사과발언을 했다.

그동안 일본의 지성들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해 반성 · 사과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그러나 일본 불교계가 과거의 침략에 대하여 사과 · 참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종교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해외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쇼겐 스님의 공식사과는 의미가 크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일본 우익인사들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 때문에, 사실 이런 반성과 사과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우리가 일본의 정치인 혹은 우익 세력이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진지하게 따지려면 합리적인 인사들의 사과와 반성도 경청하는 균형잡힌 태도가 필요하다.

쇼겐 스님은 "일본이 과거 한국을 침해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참괴(慙愧)의 마음과 함께 다시 불미한 일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을 맹세한다"는 진지한 반성문을 발표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일본인, 혹은 일본 불교도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불교도로서' '반성'했으며, 사실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참괴(慙愧)의 마음'을 밝혔다는 대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이 말한 대로 '양국의 불교도들이 원한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한국 불교계를 향해 발언하기에 앞서, 자국 정부를 향해 과거사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의 사과와 반성 역시 '우리는 무수히 사과하고 반성했다'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변명의 근거로 활용될 뿐이다. 과거사의 족쇄를 풀지 않고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건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영원한 진리이다. ■구승회(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만남

만일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열어 모인다면, 만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으리라. 〈중아함 우바새경〉

오래전 '만남'이라는 노래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라고 시작하는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곤 했다.

지구 유일의 분단국가 한반도에도 다시 '만남'이라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14차 남북장관급 회담 이후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만남과 대화'가 단절된 지 1년만이다.

6 · 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6월 14~17일 평양에서는 성대한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고, 서울에서는 21일부터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부와 민간대표단, 해외동포들까지 함께 했기에 그 의미는 더욱 컸다.

물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남측 준비위 명예대표)을 비롯한 불교계 대표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벌써부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광복 60주년 기념 남북공동 8 · 15행사가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서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다. 어느덧 남북이 분단 된지 60년이 다 돼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너무나 길었던 단절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65일 계속 만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봉사하는 삶을 살자

봉사는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 봉사를 받는 분들이 내 자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목욕봉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분들의 고통과 좌절로 상처난 마음까지도 씻어 드리는 것이다.

목욕봉사를 받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물 구경 한번 못하는 분도 있다. 목욕봉사 하는 곳의 환자들이 대부분 그렇다.

환자들은 일주일 내내 우리들을 기다린다. 우리가 가면 그 누구 보다 제일 많이 반가워한다고 간병인 보살이 귀띔을 한다.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욕봉사를 받는 환자들은 뇌졸중, 치매노인,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분들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인 것이다.

깨끗하게 수염과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 다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바꿔 입히고 나면, 환자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하게 변해 있다.

목욕봉사를 하다보면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몸은 피곤해도,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그래도 말하고 표현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진정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치료 받는 것보다 목욕봉사 한번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다. 목욕을 하고 난 후 그 시원함과 개운함 때문이리라. 이러니 어찌 목욕봉사 기도봉사를 하루라도 빠질 수 있겠는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더욱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에게 진정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나를 조금만 희생시켜 내 이웃을 돕는 일, 더욱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만나는 이 병원목욕봉사는 정말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자라면 당연히 이웃을 위해 무슨 일이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개인을 위한 수행도 필요하지만 내 이웃들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한 채 나만을 위한 수행은 욕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다 나으면 나의 병도 따라 나을 것이다"라는 유마거사의 말씀처럼, 불타는 지옥도 마다하지 않는 지장보살의 크나큰 원력처럼 진정한 불자라면 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자.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깨달음에 있다면 불교의 정신은 자비심에 있다. 배우고 선정하고 봉사하자.

도재권(영남불교대 병원기도목욕봉사단)

황우석 교수 연구 동기 칭찬받아야

정진석 대주교(가톨릭 서울대교구장)와 황우석 교수(서울대)가 만나 나눈 대화를 보고 그 동안 궁금했고 문제의 초점이 됐던 배아줄기세포 수정난의 '생명체 여부'의 의문이 풀렸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라는 수정의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은 생명체이전의 것임이 황 교수의 입으로 확인된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는 자신의 뿌리(根源)인 난치병환자의 몸에 다시 '포용'돼, 그의 병을 치료시켜주고, 세포 자신도 함께 성장 생존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난치병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황 교수의 연구동기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curlywho(붓다뉴스)

신도가 필요없는 사찰?

호남에 소재한 S사, 이 아름다운 사찰을 나는 지난 주말에 우리절 청년회원들과 함께 참배했다. 산문에서 험한 얼굴로 입장권 끊으라는 소리부터 했다. 청년회원임을 밝혔는데도, 또 공짜로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순간 기분이 뭐라 형용키 어려웠다.

절에 들어가서 보니 종무소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예불시간에는 스님 몇 명뿐 신도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입장료에만 신경을 쓸 뿐 신도들을 위한 편의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아마도 조만간 신도 없는 절이 전국에 산재하지 않을까. 둘이아님(붓다뉴스)

'현대' 만평 심 민 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SAMSUNG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심봤다! 제2의 산삼

온라인 여시아문(yosiamun.com)

국내 최대에서 세계 최대 **불서전문 서점**으로 변신

"해외 불서 가장 싸고 빠르게 구입하려면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으로 오세요."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으로 10여년간 불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온 책방 '여시아문'이 온라인 서점으로 거듭나면서, 신속한 배송시스템을 갖춘 외국 불서 판매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3만여 종, 8만 여권의 불서를 갖추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전해 온 여시아문은 당분간 매장을 잠정 휴업하는 대신, 온라인 여시아문을 강화해 추가로 3만 5천여종의 외국 도서를 판매합니다. 인터넷과 전화(02-2004-8220), 팩스 (02-737-0696) 주문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들을 찾아가 불교 세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은 기존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앉아서 국 · 내외 불서를 주문하는 것은 물론 즉석에서 책 내용을 읽을 수 있는 e-book 발간, 특별회원제 운영 등 다양한 기능으로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해외불서 판매 시작

3만5천여종 15일 내로 배송 가능
인도 MRML · Paljor 출판사등 독점 계약


MRML 아쇼크 자인 사장


팔조 출판사 데왓상 사장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는 여시아문에서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3만5천 여종에 달하는 불교관련 외국 도서(표 참조)를 다량 수입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반 대형서점의 외국도서 판매가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 9일에서 최대 15일 사이에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불자들이 원서로 된 불서를 고가에 구매하는 부담과 시간낭비를 줄여줌으로써 불교의 세계화와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한 본사의 포교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의 MRML 및 Paljor 출판사와 독점 도서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불교 및 일반 교양도서, 문학서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20권의 불서를 공급한 MRML과 195권의 티베트 불서를 독점공급한 Paljor 출판사는 세계적인 불교출판사로서 한국과 인도 및 티베트 불교출판문화의 교류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1952년 설립된 문쉬람 마노하랄 출판사(Munshiram Manoharlal, www.mrmlbooks.com)는 지금까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시크교, 요가, 산스크리트 문학 등 종교와 철학 분야에 많은 명저를 출간한 종교 · 철학 전문출판사입니다. 이외에도 인도 예술, 고고학, 역사, 지리학, 여행, 인도법률, 인도의학, 약초 재배, 문학 및 언어학, 사전, 예술 관련서적 1천5백여 권을 발간한 사회 · 인문 분야의 중견출판사입니다. 특히 창작 출판물 외에도 유명 불교 계간지인 <샴발라 선(Shambhala Sun)> 남아시아 판(South East Asia Edition)과 인도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관련 책자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 아쇼크 자인 씨는 "여시아문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인도의 양서들을 다채롭게 선보일 수 있게돼 기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팔조 출판사(Paljor Publication, www.paljorpublications.com)는 문화 종교와 함께 티베트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전문출판사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저서를 포함한 불교, 문화, 역사, 언어 등 티베트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책을 망라해 출판하고 있어, 인도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명도와 규모를 함께 갖춘 출판사입니다. 게다가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Library of Tibetan Archives)'의 보유서적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고 있어 소장가치가 높은 희귀 서적의 재발간 및 출판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지난 해 맺은 계약에 따라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에 대한 한국 내 번역 및 출판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팔조 출판사의 영업담당 체링 씨는 "이번에 선보이는 팔조의 주요 도서를 통해 한국불자들이 티베트 불교와 불법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여시아문 해외불서 카테고리

Art, Archaeology and Architecture	미술, 고고학, 건축학
Buddhism	불교
Belleslettres	미문학(美文學)
Dictionary, Terminology, Handbook and Index	사전, 어휘, 안내서, 목차
Economics	경제학
Forthcoming	근간서적
Geography, Travel and Voyage	지리학, 여행, 항해 · 여행
Hinduism	힌두교
History, Culture and Politics	역사, 문화, 정치
Indian Law	인도법
Indian Medicine and Medical Plants	인도의학, 인도약초
Islam	이슬람교
Jainism	자이나교
Language, Literature and Linguistics	언어, 문학, 언어학
Music, Dance and Theatre	음악, 춤, 연극
Numismatics and Epigraphy	화폐학, 금석학
Religion and Philosophy/Philosophy of Society	종교와 철학, 사회철학
Sanskrit	산스크리트문학
Sikhism	시크교
Society and Anthropology	사회와 인류학
Tibetan Studies	티베트경전
Indian Archaeology	인도 고고학
Health	건강
Zen Philosophy	선학

※ 인도의 불서는 2~3일 만에, 미국 · 유럽의 불서는 9~15일내에 배송된다.

여시아문을 열면 상품이 푸짐

특별이벤트(6월8일~7월8일)에 참가해 福 받으세요

▲ 여시아문을 열어라~!!

새롭게 문을 여는 여시아문의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달동안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는 모든 분에게는 평생 여시아문에서 책을 구입하실 때 5%의 할인을 받으실 수있는 회원자격을 드립니다. 기회는 딱 한달! 이번기회에 언제나 부담없이 특별한 5%의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북(e-book) 받고 저북 받고~!!

이번에 여시아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e-book을 구매하시면 매주 10분을 추첨, 여시아문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e-book도 구매하시고 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시아문을 도배하자~!!

여시아문의 모든 도서 리뷰섹션과 여시아문 카페에 글을 남겨보세요. 좋은 평이나 글을 남기신 고객 중 매주 10분을 추첨하여 여시아문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 여시아문을 고쳐라~!!

새롭게 오픈한 여시아문 사이트내에 존재하는 버그를 찾아 주세요. 깨져버린 이미지와 오타, 연결되지 않는 링크 등등 여시아문을 활짝 열게 할 수 없는 버그들을 찾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매주 10명을 추첨을 통하여 여시아문에서 마련한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연실합장주, 열쇠고리 등이며 사정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의 주문에 따라 배송작업을 진행중인 본사 직원.

카페 여시아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

이젠 책속의 카페, 카페속의 책에서 또다른 여시아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시아문 카페가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시아문 카페에서는 단순히 고객이 도서만을 구입하는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처음 카페에 가입하고 인사를 나누는 '일주문'을 비롯해, 아무 형식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말할 수 있는 '나눔의 문',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소개의 문',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회향의 문', 고객이 직접 책을 쓸 수 있고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참여의 문', 책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찰라의 문' 등이 있어 고객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다피아 · 붓다뉴스와 통합회원제 운영

불교뉴스·각종 정보 편리하게 만날수 있어

여시아문은 현대불교미디어센터(HBMC)의 한가족으로서 최대 불교포털 부다피아(buddhapia.com), 실시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buddhanews.com)와 함께 통합회원제로 운영하여 로그인 한번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불교계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 광대한 콘텐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HBMC의 모든 사이트 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기능에서는 붓다뉴스의 불교뉴스와 부다피아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여시아문에서 고객이 구입하고 싶은 모든 도서를 따로 스크랩하고 저장해 이후 클릭 한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야말로 불교 정보의 모든 것을 단한번의 접속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여시아문 사이트 개편의 특징입니다.

우수독자 특별회원제

구매실적따라 4등급 분류 혜택

여시아문은 보다 체계적인 독자 서비스를 위해 특별회원제를 신설,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개편된 여시아문 회원제는 구매횟수 및 구매액에 따라 총 4등급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등급별 할인 적용 범위

구매수	구매수	금액	혜택(할인율)
A등급	50회	300만원	10%
B등급	30회	100만원	7%
C등급	20회	50만원	5%
D등급	10회	10만원	3%

(연단위로 계산되며 할인율은 구매횟수와 구매액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구매시 적용)

e-book 서비스

교리 · 문예서 등 84종 1차 제작 완료
일반 도서가격의 40%…파일 영구보존

디지털 출판문화를 대표하는 전자책, 즉 e-book을 이젠 여시아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book은 종이로 인쇄되어 출간되는 일반도서와는 달리 컴퓨터의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일반 도서가격의 40% 정도나 되는 저렴한 가격, 직접 서점에 가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함, 파일을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시아문에서 선보이는 e-book중에는 현대불교에서 직접 제작한 청오 스님의 <기초교리> 한/영판을 비롯해 여시아문, 불광출판사, 우리출판사 등 불교출판사들의 단행본과 한정섭 법사의 강의 시리즈 등 총 84종의 책을 1차로 제작, 판매합니다.

■ 여시아문 e-book 리스트

여시아문	감산자전,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내 사주 내가 푼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돌부처,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방편개시, 배낭으로 담아온 인도, 법수로 배우는 불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부처님께 재를 털면, 불성이란 무엇인가, 삶은 고가 아니다, 생활 속의 불법수행, 선방일기,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아름다움과 깨달음, 왜사,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찬불동요, 참선요지, 허공의 딸꾹질, 어떤 회상 정말 봄은 오는가
불광 출판사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메아리 없는 골짜기, 반야심경강의, 삶의 빛을 찾아,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행복의 법칙
우리출판사	구름의 품안에서, 동서양의 비교, 모계효도, 밥티의 소원, 복없는 아이, 삼성각, 선은 무문, 수도와 효도의 길, 수평선의 희망, 숲속의 이야기, 아리랑, 인연가, 자비성불, 자비의 문, 자장가, 태양에 생명이 있다
한정섭 법사	극락세계 이야기, 금강경 오가해,기독교의 상담심리와 불교의 상담심리, 나비의 꿈, 대혜종고 선사와 간화선, 무념국사, 미륵부처님 이야기, 방생의식, 법화경 약찬게, 부모은중경, 불교병리학, 불교신앙의 본질, 불교신행상담, 비유의 세계, 석가여래 성도기, 소동파, 소설달마대사, 약사신앙, 우리말 치문경훈, 유마경과 승만경, 육조대사, 이민환법사법어집, 인과 이야기, 인생 그리고 허무와 공, 조주선과 임제선, 지장보살 본원경 강의, 현대세계사에서의 기독교와 불교
도서출판 솔바람	설법전서 1권~9권
금호미술관	소나무야 소나무야
대한불교진흥원	대불전 1, 2, 3
현대불교신문	The Moon Year 청오스님의 기초교리 (한글 · 영문) 불교와 수학 과학과 불교

'아름다운 택시기사'

김형권

향기 도반의

나눔에는 속도제한이 없어요

운전하며 써둔 글 모아 수필집 '파랑새' 발간
판매 수익금 아름다운재단에 기부



김형권씨의 택시를 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필집 '파랑새'. 김씨는 '파랑새'를 통해 나눔을 말하고 삶을 말한다.

"단순노동으로 아무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 일을 하면 잡생각이 안 나서 좋고, 더욱이 사람 좋아하는 나로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이 일이 좋다. 참으로 좋다."

–<파랑새>중에서



김형권씨(58)의 택시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조수석 뒤에 걸려 있는 <파랑새>와 모금함이다. <파랑새>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틈틈이 써둔 글을 모아, 자비(自費)로 펴낸 수필집. 김씨는 <파랑새>를 판매해서 생긴 수익금을 모금함에 모아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에 기부한다.

전직 광고인 출신 김형권씨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도 5년째. 홍익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해,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에서 근무했던 그가 택시를 운전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장이 돼 국내 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았으며, 퇴사 후에는 디자인회사를 설립해 사장 소리도 들었다. 또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통령 후보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 이목을 끌기도 했던 그다.

하지만 광고 제작환경이 컴퓨터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김씨의 회사는 추락을 거듭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식당 · 무역업 등 여러가지 일을 하던 끝에 안착한 곳이 택시 운전이었다.

할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지만 택시 운전은 그에게 세상을 달리 보게 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당시 82세였던 모친이 대전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 그 기사는 모친을 파출소에 모셔다 주었고, 파출소에서는 고맙게도 모친에게 따끈한 설렁탕을 한 그릇 대접해줬다.

이들의 친절 덕분에 모친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일을 겪고 나자 택시 운전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더 이상

"쉰살 넘어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여러사람에게 도움 받았더군요" 하루 수입의 1% 꼬박꼬박 챙겨 '나눔의 택시' 동참, 확산에 앞장

경쟁과 갈등만 가득한 무간지옥이 아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연화세계'였다.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힌 친구에 대한 미움까지도 사라졌다.

그렇게 한결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먹고 사느라 앞만 보고 뛰며 보낸 세월 속에 어느덧 내 나이가 쉰 살이 넘었더군요. 그제야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요. 해를 끼친 이들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었지만, 도움 준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에게 딱히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고, 속이기나 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이런 작은 깨달음 속에 그가 선택한 것이 '회향하는 삶'이었다. 승객에 대한 친절은 기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업어서 아파트 5층까지 모시는 등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다. 또 사정이 딱한 노인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조차도 받지 않았다. 그래도 굳이 내겠다고 하면 1000원만 받았다.

선행을 베풀기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루는 월남전에서 두 팔을 잃은, 같은 나이 또래의 장애인을 태웠다. 그 승객은 주머니에서 요금을 꺼내가라 말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누렸던 경제적인 안락은 바로 그 승객과 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인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며, 타인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뜬 그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1% 나눔운동'을 만나면서 체계적인 회향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기부란 돈 많은 사람들이 실컷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지요.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로서는 저와 거리가 먼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 나눔운동은 그 같은 막연한 부담감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후로 김씨는 하루 수입의 1%를 꼬박꼬박 모금함에 집어넣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자신의 인생역정과 나눔의 소중함을 설파하는 <파랑새>를 펴냈다. 나눔을 통해 세상이 더욱 밝아지리라는 확신에서다.

김씨가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을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람 좋아하고 대화를 좋아하는 자신에게 택시 운전은 세상의 어느 일보다도 즐거운 일이다. 노인 승객에게는 말벗이 돼 주고, 젊은이에게는 인생상담도 해줄 수 있는 이 일이 마냥 좋다. 회사가 자기에게만 일을 시킨다고 못마땅해 하는 회사원에게는 "잘 드는 칼만 쓰는 법"이라며 달래고, 갈 길 바빠 독촉하는 승객에게는 퀴즈를 내며 여유를 가르친다. 이쯤이면 천직이라 할 만하다.

"운전기사란 것이 목숨 걸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적고, 사람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다보니 좌절 끝에 선택하는 인생막장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달리 보면 승객에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제 김씨는 아름다운재단의 '나눔의 택시'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뜻을 함께 하는 동료 기사들과 함께 친절한 서비스와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서며, 나눔 문화 전파에 앞장설 예정이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자신의 믿음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삶으로써 보여준 김형권씨. 택시 운전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그는 오늘도 승객들을 태우고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달린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황금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나의 수행법

이미화 (上)



불교에 입문한 지 30년. 난 사실 나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절과 집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나의 생각은 108° 뒤집혔다. 갑자기 우리 가정에 변고가 생기면서부터였다. 사업의 부도였다. 막막했다. 우리 집은 물론 주변 여러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지경이었다.

다니는 절 용연사에 가서 7일 동안 용맹 정진을 했다. 처음 3천배를 하며 울고 또 울었다. '부처님! 저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만 해주십시오. 거래처, 종업원,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피해만 없도록 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새벽이 밝아 올 때까지 목이 메여오도록 울면서 부도탑을 하염없이 돌았다. 그렇게 기도하고 포하면, 세세생생 자손은 번창하고 그들의 앞날은 열릴지니라' 라는 말이었다.

그날부터 곧장 사경을 시작했다. 학교 다닐 때 붓을 든 터라 붓으로 사경을 하기엔 힘이 무척 들었다.

우선, 사경에 앞서 난 '부처님의 밝은 지혜로 중생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밝은 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발원을 한 후 사경을 했다.

경전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며 난 부처님과 대화를 했다. 그리하여 삶이 비록 힘들어도 사경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삶의 난제들을

큰 일 겪은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반성
경전 한 자 한 자 써나가며 부처님과 대화

절에서 내려 올 때, 한 스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법입니다. 정진행 보살님,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언제 그랬냐며 정리가 다 돼있었다. 순간,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며 끝없이 감사했다. 또 그간 나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 온 내 모습에 한 없이 부끄러웠다. 한편으로는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를 한 것도 부끄러웠다.

이후 난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냈다. 절에 자주 가질 못해도 집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경전을 독송하고 법문집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읽곤 했다.

그러나 마음이 모아지질 않았다. 입으로만 기도한다는 자각이 순간 일었다. 공허함이 구름처럼 밀려들었다.

그러던 중, 경전의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다. '누구든지 정성으로 사경해 널리 유포어나가는 습관을 갖게 됐다. 즉 사경수행은 내 마음과의 대화였고, 지금은 그것이 '참나'를 발견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사경은 이후 나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연, 이웃, 사회, 인연 등등. 부처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참나에 접근해 가는 것이 너무도 좋았다. 큰 소리로 독송하며 열심히 사경하는 것은 정말로 나 참모습을 발견하는 나침반이었다.

이후 난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등 많은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며 수행을 계속했다. 사경을 끝낸 사경지는 다른 사람들이 재를 지낼 때 영가단에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탑에 봉안하기도 했다. 한 때는 나를 처음 본 어느 스님이 다짜고짜 "보살님은 사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라며 "사경의 공덕이 얼굴에 보여 향기가 난다"고 하셨다. '어떻게 아실까?' 궁금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다. 환희심도 절로 났다. (계속)

■ 사경연구회 경북지회장

"유식은 어렵다는 생각 먼저 버리세요"

고목 스님이 말하는 '유식으로 마음공부하기'

'유식(唯識)은 유식(有識)한 사람들이 하는 마음공부가 아니다. 유식은 누구나 일상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마음공부법이다.'

제대로 유식을 공부하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전혀 '교학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생각부터 앞서는 유식공부가 과연 쉽고 실용적일까?

7년째 '유식으로 마음공부하기'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유식사상연구회 지도법사 고목(枯木) 스님(밀양 고목선원장)은 '유식은 실용적이다 못해 너무도 구체적인 마음공부법'이라고 말했다. 자기 마음을 알아야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월 14일, 포항의 한 예식장을 빌려 유식강의를 하고 있는 고목 스님에게 '유식으로 마음공부하는 방법', '선(禪)과 유식의 관계' 등에 대해 물었다.

"자기 마음의 정체 명료하게 인식 유식은 구체적인 마음공부법"

▲왜 유식공부입니까?

-유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죠. 그래야 수행법이 바로 서요.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게다가 그것을 진실로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죠.

▲그럼, 유식을 통한 마음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유식공부는 그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공부법이에요. 유식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무명(無明)과 번뇌를 갖고 세상을 인식하려는 자신의 마음부터 바로 봐야 해요. 유식은 진여공(眞如空), 즉 마음의 근본자리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을 보는 '견도(見道)수행'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명을 거둬낸 진여를



'유식으로 마음공부하기' 모임을 지도하고 있는 고목 스님.

봄으로써 시시각각 흐르는 마음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죠.

▲유식은 '삼계유심 만법유식(三界唯心 萬法唯識)'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생활로, 또는 선(禪)수행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무명의 습기(習氣)에 비롯됨을 알면 돼요. 그 때 신근(信根)이 강화되고, 이미 자기 마음이 거짓임을 알게 돼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선(禪)을 하는 힘이 강화되는 거죠. 즉 선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유식은 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에요.

▲유식은 마음의 원리를 너무 미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유식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교학으로 빠져 정작 실생활에 응용하기 어려운데요.

-유식은 매우 실용적이에요. 유식을 제대로 공부하면, 마음의 심소법(心所法:마음의 미세한 작용)을 일상생활에서 전부 가려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의 심소를 스스로 알게 돼 자신의 마음흐름을 파악하게 되죠. 그러다보면 생활 속에서 경계에 부딪쳐도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지혜의 눈'을 뜨게 돼요.

▲선수행자에게 유식을 통한 마음공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식은 '마음의 인수분해'라고도 하죠. 선수행자에게 있어 자기 마음에 의심이 남아 있으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신근을 튼튼히 해 의심을 제거한 상태에서 선수행을 해야 수행에 힘을 받게 돼요. 유식공부는 이처럼 의심의 원인이 될 만할 것을 미리 제거하고, 말끔한 상태에서 선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유식공부가 초심자에게는 마음공부의 설계도 또는 지도가 되는 셈이죠. 또 초심자의 마음공부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하지요.

▲결국 유식은 제8 아뢰야식을 뒤집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른바 '전식득지(轉識得智)'인데요, 그럼 8식이 무너질 때 마음은 어떤 경계가 되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가요?

-최초의 한 생각이 제8 아뢰야식이에요. 그 8식의 습력에 의해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명에서 파생된 번뇌 등을 정화시키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없게 되죠. 유식은 자체적으로 정교한 수행법이자 선수행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수행방편도 될 수 있어요. 마치 간화선에서 화두가 방편이듯이 유식도 방편이죠. 자기 심소를 자세히 살펴서 무명을 명으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정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글 · 사진/포항=김철우 기자

10여년간 종교초월 유식 강의 고목 스님은

지난 1985년 태고종 前 종정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고목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화두삼아 10년간 부산 기장에서 작은 암자를 짓고 수행했다. 이후 유식사상연구회를 결성, 종교를 초월해 일반인에게 유식사상을 통한 마음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10년 전부터는 광주 명상센터 '길', 울산 동방심리상담연구소 등에서 유식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화이트헤드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등에서도 '선과 유식'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 스님이 지도법사로 있는 유식사상연구회는 2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공부모임으로, 회원 대부분은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유식사상연구회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오후 2시~4시 30분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055)353-6142

▌유식사상연구회원들의 체험담

#1 마음 복잡할때 분석능력 생겨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알아차릴 능력도 없이 이치로만 잘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불교를 막연하게 느끼면서 구체적인 마음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마음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식공부는 제게 마음에 관한 '왜' '어떻게'의 문제를 알게 했어요. 모든 마음작용의 발현이 곧 내 안의 아뢰야식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거죠. 유식공부는 마음의 정체를 명료하게 알게 해요. 막연한 불교를 명확하게, '내가 왜 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거죠. 이성화(43)

#2 그물처럼 엮여있는 관계 알게돼

서양가족사를 전공한 저는 3년 동안 유식공부를 통해 바른 정견을 갖게 됐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제 자신의 마음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이구나' 하고 인식상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고, 네 탓만으로 원망하던 내 마음을 바로 잡게 됐어요. 스스로 마음의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톨릭 신자지만, 진리의 섭리가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의 마음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모든 관계가 그물처럼 엉켜있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이영숙(45)

#3 모든 문제 나에게 원인이 있더라

유식공부는 '세상을 보는 그 놈이 바로 나임'을 여실히 알게 했어요.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났나'를 자각하게 했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들이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기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셈이죠. 그러다보니 이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상대방의 심소(마음의 작용)를 보게 된 거죠. 선에서는 이것을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하잖아요?

유식의 100가지 마음의 작용을 표로 정리한 오위백법(五位百法)을 냉장고에 붙여 놨어요. 이 100가지 마음작용을 알게 되니, 일상생활 속에도 자기 마음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확인하게 됐어요. 양미란(47)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친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2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5년 7월 6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60,000원(2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달마도 신묘장구대다라니
혜공스님이 달마도 범서 천수대비주 보급서원을 세웠습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삼가 소승이 법과 지혜의 상징화인 달마도에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천수대비주)를 경면주사로 써 범서(불교성전어인 범어 sanskit)로 사경해서 국내외 최초로 접목하였습니다. 천수대비주는 옛선지식들은 물론 오늘날 까지도 승속을 막론하고 공부하는 상승의 수행주력문인 것입니다.
대다라니를 일심으로 정진 주력하면 묵은 업장이 소멸되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충만해지며 호법 신장님들이 항상 보호하고 마침내는 견성성불의 길로 나아가게됩니다. 현재 대다라니를 주력하시고 계신분이나 앞으로 하실 승속의 수행자들 께서는 달마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사암이나 집에 걸어 모시고 정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달마도를 모시고 대비주를 정진하시면 모든 악운 액운 병재난은 서서히 물러나고 심중소원을 성취케 됩니다. 특히 속가에서는 불단이 없이도 초향하지 않고도 달마도 대비주 액자만 모시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체중생유정무정이 다 성불하여지이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달마불

● 규격 : 46cm × 65cm ● 작품가격 : 13만원
달마도 신묘장구대다라니 액자 5개이상 주문하시는 분께는 만화기법 펜화 달마도 소액자 1개씩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우체국 104232-074008 (예금주 : 윤기중)
● 주문전화 : 011-9205-1149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3동 88-13호
송림사 주지 혜공 합장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 만화작가 윤호)

전문가에게 묻다

'요가경전의 모든 것'

동작 위주 요가수련의 붐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요가경전'에 입각한 요가철학에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 몇몇 요가수련원은 전문가들을 초빙해 요가경전 강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이례적으로 요가수행법을 담고 있는 경전과 문헌들을 묶은 책 〈요가비전〉(지혜의 나무)이 출간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요가경전은 무엇이며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또 실제적인 수련에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국요가연수원장 이태영 박사와 청담요가수련원장 박영길 박사에게 요가경전의 모든 것을 물었다.

동작·호흡 등 구체적 정보 수록

요가경전은 어떤 것?

넓게는 요가와 관련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를 요가경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가경전이라 하면 〈요가경〉(Yoga-Sutra)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요가는 〈요가경〉이 성립됨으로써 인도 정통 철학의 한 학파로 자리잡았다.

〈요가경〉의 저자는 문법가 '파탄잘리'로 추측되며, 이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요가를 파탄잘리 요가라고 부른다. 〈요가경〉은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한 경전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도 분분하나, 확실한 것은 당시까지 전해오던 여러 가지 요가 사상의 단편들을 모아서 편집했다는 것이다. 〈요가경〉의 서문에는 "지금부터 요가의 가르침이다(atha yoganu-sanam)."(1.1)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anu'라는 전치사는 기존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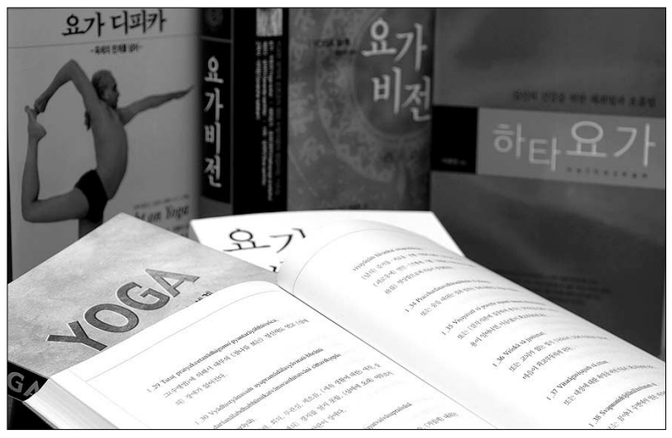
성립 시기는 기원전 2세기~기원후 5세기 사이로 논의되고 있다. 17세기까지 〈요가경〉의 주석서가 다양하게 나왔고, 이들 주석서들은 조금씩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현존하는 요가경은 4장 195절로 돼 있다. 제 1장 〈삼매품〉 51절, 제 2장 수행품 55절, 제3장 초능력품 55절, 제4장 독존품 34절로 구성됐다.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사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단편의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되기도 한다. 마음작용의 억제(1장 1~22절), 자재신에 기원(1장 23~51절), 실천요가(2장 1~27절), 8단계 요가(2장 28절~3장 55절), 변화하는 마음(4장 1~34절)의 분류체계가 그것이다.

'요가는 마음작용의 억제'(1.2)라는 정의에 따라 첫 번째 파트 '마음작용의 억제'에서는 요가의 정의를 설명한다. 나머지 단편들은 이를 보충하고 해명하는 듯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재신에 기원'은 마음작용이 억제된 삼매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고, '실천 요가' 역시 번뇌와 그 근원에 관한 내용으로 마음 작용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8단계 요가'는 마음작용의 억제법인 수행방법으로서 요가의 8단계와 집중 선정 삼매를 종합해서 하는 명상에 대한 설명이다. '변화하는 마음'은 윤회와 마음작용, 마음과 참나의 관계, 마음작용의 억제와 해탈에 관한 것으로 마음작용의 억제 상태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이례적으로 요가수행법을 담고 있는 경전과 문헌들을 묶은 책 〈요가비전〉(지혜의 나무)이 출간됐다.

하타요가 14~15세기경 수행법으로 등장
후대 여러사람에 의해 편집 완성도 떨어져

〈요가경〉외에 요가 수행법을 담고 있는 경전은 없나

요가를 특정한 수행법을 일컫는 술어로 표기한 것은 중기 우파니샤드인 〈타이트리야 우파니샤드〉가 처음이다. 이후 〈카타 우파니샤드〉, 〈슈베타슈바타라 우파니샤드〉, 〈마이트리 우파니샤드〉를 거치면서 조금씩 진전된 요가 행법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이들 우파니샤드의 요가 사상은 원시요가에서 고전 요가체계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파니샤드보다 더 발달한 요가사상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사이에 형성된 〈마하바라타〉에서 찾을 수 있다. 〈마하바라타〉는 바라타 종족의 전쟁 이야기를 서술한 18편 10만 송의 대서사시로, 이 가운데 제 12권 〈모크샤다르마〉와 〈바가바드 기타〉에서 요가 사상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바가바드 기타〉에는 그간 우파니샤드 등에 산만하게 흩어졌던 행법이 잘 정리돼 있다. 그리고 갸냐 요가, 카르마 요가, 박티 요가 등 철학 윤리 종교 등과 가까운 새로운 형태의 요가를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가가 수행법으로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14~15세기 경에는 요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21개의 요가 우파니샤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후기 요가 사상 가운데 독특하게 발전한 것이 있다면 '하타요가'다. 완전한 육체를 수단으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법이 그것이다. 〈요가경〉의 8단계 요가처럼 고요하고 안락한 상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타'라는 술어 가운데 'ha'와 'ta'는 각각 인체의 태양과 달로 상정한다. 태양과 달이 결합할 수 있도록 호흡과 무드라를 강렬하게 하는 것이다. 〈고라크샤상히타〉를 비롯해 14세기의 〈하타 요가프라디피카〉, 17~18세기의 〈게란다상히타〉와 〈쉬바상히타〉 등이 전해지고, 그 밖에 출판되지 않은 수십 종의 하타 요가 문헌이 남아 있다.

요가경전 어떤 도움 주나

현재 〈요가경〉의 원문과 주석이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요가경〉은 지극히 압축된 '암호와 같은 단어'로 이뤄진 탓에 그것에 대한 주석이 필수적인데, 국내 번역서의 경우 영어나 일본어에 대한 2차 번역에 의지한 경우가 많아 의미전달에 문제가 많다.

그러나 연구 번역 작업과 무관하게 〈요가경〉이 한국의 요가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요가경〉이 형이상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 일종의 철학서에 가까운 탓이다. 오히려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게란다상히타〉 등의 하타요가 문헌은 요가 동작과 호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활용의 폭이 넓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인도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씌여진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불경과 같이 깨달은 이의 법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오는 요가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기에 절대적인 수행의 지침서로 삼기에는 미약하다는 평이다. 반면 인도철학계나 요가철학계에서 요가경-주석의 가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전해진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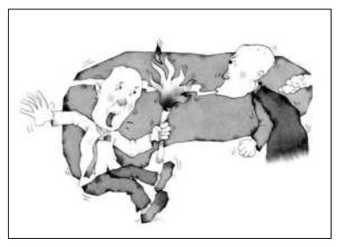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2〉 경전을 불사르다

요즈음 불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간화선〉은 지난 3년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상재(上梓)된 책이다. 드디어 조계사 법당에서 고불식을 마치고 선림의 면면을 빛내고 있는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불교계 및 일간지 기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후일담을 함께 나누었다.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말 한마디는 뒤통수를 서늘하게 후려친다.

"불조(佛祖)께 엄청난 누를 끼쳤음을 참회 드립니다." 영원한 활구(活句)이어야 할 간화선을 시대적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선원수좌회가 찬술자가 되어 문자화시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선원장스님들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사구화(死句化)시켜버린 허물이 실로 적지 않음을 통감한 한마디라고 하겠다.



송나라 당시 수행자들이 공안에 대한 '주석(註釋)을 버리라'는 내용을 담은 그 〈벽암록〉의 주석까지 암송하여 선의 본령을 헤치는 폐단을 보다 못한 대혜종

불붙인 종이 건네받는 순간 깨친 덕산 스님
애지중지하던 저서 '금강경소초' 태워버려

고 선사가 그것을 가차 없이 불살라 버린 심정을 이해할 것도 같다. 이미 사구화 되어버린 공안을 활구로 되살려내고자 하는 선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선종사에는 책을 태우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가장 극적인 스토리로 책을 태운 사람은 '덕산방(德山棒)'의 주인공 덕산 스님일 것이다. 그는 본래 금강경의 대가였다. 자신의 저술인〈금강경소초〉에 대한, 하늘을 찌를듯한 자부심은 평범한 노파의 '교외별전적(敎外別傳的)' 질문을 받고 완전히 한판 패(敗)한 순간 문자의 한계를 절감하고 용담숭신 선사를 찾아간다.

선사를 만나 오랫동안 이런저런 저간의 이야기를 나눈 후 방문을 나섰다. 그런데 이미 바깥은 깜깜했다. 신발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왜 다시 들어왔는가?"

"문 밖이 어둡습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종이에 불을 붙여(원문은 '지촉紙燭'으로 표현하고 있다) 덕산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덕산 스님이 그 불을 받으려는 찰나 '후!' 하고 그 불을 꺼버렸다. 그 순간 덕산 스님은 활연히 깨쳤다.

문밖이 어둡다는 말은 나의 무명(無明)을 인정하는 말이다. 또 여기서 지촉(紙燭)이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 지(紙)는 종이(경전)이고 촉(燭)은 불을 붙였다는 말이다. 이미 용담 선사가 경전 한 페이지를 태움으로써 무명에 가득찬 덕산의 눈을 밝혀주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선(伏線)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 덕산 스님은 애지중지하던 금강경 주석서를 끄집어내어 법당 앞에 쌓아놓고는 횃불을 높이 들고서 이렇게 외쳤다.

"현묘한 변론을 다하여도 넓은 허공에 터럭 한 오라기를 둔 것이요, 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큰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던지는 것과 같다." 말을 마치고는 다비장에서 거화하듯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 소초에 불을 붙였다.

사구(死句)는 기존의 어록해설에 의거하여 드는 공안이며, 활구(活句)는 수행자 자신의 사무침에 의하여 드는 화두이다. 조주를 찾아간 수행자에게 '뜰 앞에 잣나무'가 활구였다면, 〈조주록〉을 펼치는 또 다른 수행자에게 '뜰 앞에 잣나무'는 사구이다.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 시원(始源)만 활구의 가치를 담보하라는 법은 없다. 누구든지 '뜰 앞에 잣나무'가 조주를 찾아간 한 수행자의 눈에 비친 잣나무처럼 그렇게 닿아올 때 그것은 여전히 활구다.

성철 선사께서 '문자를 보지 말라'고 한 것은 어록의 사구화를 경계한 말이다. 사구가 되느냐 활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문자자체의 허물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이다. 설령 사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활구로 바꾸어 놓는 것이 진짜 정법안(正法眼)을 갖춘(藏) 선지식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원효와 장자

원효의 글은 비유가 풍부하고 수사가 화려합니다. 가령 <대승기신론소>나 <금강삼매경론>의 서문을 보십시오. 서로 모순되는 두 항을 설정하고, 그것들이 서로를 물고 뒤채도록 몰고 가는 그 현란한 솜씨를… 그 끝에서 우리는 사물의 대립이란 그 자체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여한 이름의 차이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원효의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 스토니브룩大의 박성배 교수께서는 원효의 서문에서 "치열한 구도 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설이 어차피 방편인 이상, 발화자의 개성과 수신자의 근기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설법이든 화두든 맨날 같은 어투로 앵무새처럼 리피트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쓸쓸한 일이 아닐까요.

원효, 자유로이 노닐며 익힌 불교

원효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수사품업, 유처무항(隨師稟業, 遊處無恒)'이라, 일정한 스승에 매이지도 않았고, 또 불교밖의 문헌도 거리낌없이 섭렵했습니다. 기록은 그가 "불교뿐만 아니라 참서(讖書)와 외서(外書)까지 보았다"고 하는데, 그가 불교를 그야말로 '노닐며(遊)' 익혔던 흔적을 우리는 그의 문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효는 특히 장자에게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원효는 그로부터 철학적 통찰은 물론 상상력과 비유의 면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원효가 화엄의 소식을 두고, "봉황(鳳凰)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악을 내려다 보는 것과 같다(若乃鳳皇翔于青雲, 下觀山岳之卑)"고 읊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자> '소요유(逍遙遊)편'의 대붕(大鵬)의 기상을 빌린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 소식을 얻고 나면, 흡사 "하백(河伯)이 큰 바다에 이르러 시냇물(?) 황하가 좁았음을 겸연쩍어하는 것(河伯屆乎大海, 顧羞川河之狹)"처럼 이전의 가르침이 악착(齷齪)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을 때입니다. 원효는 지금 <장자> '추수(秋水)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황하를 시냇물이라니… 장자의 배포를 짐작하시겠습니까. 티벳쪽 청해(青海)에서 시작해서 함곡관 근처에서 물길을 꺾어 동해로 흘러드는, 장장 5,500킬로의 긴 강을 시냇물 정도로 내리 깔아 버리다니 말입니다. 그 곡절을 알기 위해서는 제 지리한 설명보다, <장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강 언덕에 어른거리는 게 소냐 말이냐



누런 황하와 푸른 바다

"가을 물 때가 되어 수많은 지류의 물이 황하(黃河)로 쏟아져 들어왔다. 탁한 물결이 사납게 넘실거리니, 저쪽 둔덕과 강섬에 어른거리는 것이 소인지 말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이 장관(壯觀)을 보고 강의 신 하백(河伯)이 '지상의 아름다움은 모두 나에게 있다!'고 기뻐하며 강의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갔다. 이윽고 북해(北海)에 다다라 동쪽을 바라보매 바다의 물끝이 잡히지 않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망망한 대해에 한숨지며 하백은 북해의 신 약(若)에게 이렇게 말했다. '항간에 이르기를, 이치를 몇개 깨치고 나면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줄 안다던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소. 또 이전에, 공자의 가르침을 깎아 내리고 백이의 절의(節義)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대의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나니, 세상에! 내가 그대의 문전에 와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두고두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뻔 했구료."

"북해의 약(若)이 말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 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계절에 걸려 있기 때문이며, 짜잘한 학자(曲士)들에게 대도(道)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배운 지식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좁은 강하(江河)를 나와, 큰 바다를 보고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으니 함께 더불어 큰 이치를 논할 만하구나.

"하늘 아래 물 가운데 바다보다 큰 것은 없으니, 온갖 개울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와도 나는 넘치는 법이 없고, 내 꼬리(尾閭)에서 끊임없이 물이 새어나가도 나는 마르는 법이 없다. 계절의 변화에도 동요가 없고 홍수나 가뭄은 아는 바 없어, 강이나 개울 따위의 규모와는 아득히 견줄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한번도 그것을 자랑스레 여긴 적이 없다."

"천지(天地)로부터 형태를 얻고 음양(陰陽)에서 생명을 받은 것들 사이에서 나는, 바다란 존재 또한 커다란 산 속의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나의 하찮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뻐기겠는가. 드넓은 천지에서 나 바다의 크기란 전부를 뭉뚱그려도 큰 늪 속의 개미구멍이고, 그 바다에 둘러싸인 육지(中國)란 커다란 창고 속의 좁쌀 한톨에 불과한 것… 인류는 땅 위에 엎힌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서 또 한 개인이란 땅 위의 곡식을 먹고 배와 수레로 이동하는, 아홉 대륙(九州)의 거주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온 생명에 비추어 그는 말(馬)의 몸에 붙은 수많은 터럭끝 하나같은 것이 아니랴."

"옛 위대한 군주들(五帝)의 순조로운 계승이나 세 현명한 왕들(三王)의 힘든 싸움, 어진 인간들(仁人)의 가슴깊은 우려나 관료들의 근면한 노력들 또한 예외 없이 이런 터럭처럼 하찮은 것들이다. 백이(伯夷)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명예로 삼았고, 중니(仲尼, 공자)는 이를 말함으로써 박식으로 삼았다. 이런 것이 다 뻐기는 짓거리로서, 불어난 가을 강물의 장관에 대해 그대가 가졌던 자만심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장자는 화엄의 선배인가

여기 오제(五帝)는 요순을 포함하여 아득한 중국의 전설시대에 불이며 농사, 의료를 일으킨 문명의 영웅들입니다. 삼왕(三王)또한 그들을 이어 이상적인 통치를 펼쳤던 정치지도자들입니다. 또 어진 인간들이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동정심으로 사회를 개혁해보려는 뜻을 품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장자는 이 모든 노력들이 인간세(人間世)의 하찮은 노력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인간세의 노력들을 자랑하거나 명예로 삼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의 작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물어보겠습니다. 위의 북해약의 탄식과 화엄의 소식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토마스 머튼이 선(禪)을 일컬어, '불교를 아버지로, 노장을 어머니로 둔 자식'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자가 중국의 대승 이래의 발전을 장자로부터 빌리거나 훔친 것이라고 혹평했던 것을 두루 참고하셔서, 이 화두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홍법스님(弘法, 1930~1978): 1948년 한공(漢空)스님을 계사로 월하(月下)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법호는 운조(雲照). 근검절약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

네티즌 교리문답

"만(卍)자 의미와 유래는 무엇입니까?"

문 '만(卍)'자는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卍'자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기원이 궁금합니다.(초심자)

답1 : 인도에서는 비슈누 신의 가슴에 난 털 모양이 '卍'자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태양을 숭배했던 아리안 족은 태양의 방광을 본 뜬 모습이라고 해 숭배했었지요. 아메리카인디언은 방향이나 바람의 상징으로, 중국에서는 난간 무늬로 사용했습니다.

인도이외에도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 고대문명이 찬란했던 지역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모양이 '卍'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의 모습에는 '卍'자 모양이 많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학자)

답2 : '卍'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길상과 만덕'을 의미하지요. 부처님의 가슴의 털 모양도 '卍'자 모양이었습니다. 발가락과 발등, 발꿈치, 복사뼈, 정강이, 무릎, 장딴지, 허리, 옆구리, 배 등에도 '卍'자 모양이 있었습니다.

〈수행본기경〉에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수도할 때 풀을 깔고 앉았는데, 그 풀의 모양이 '卍'자 모양의 길상초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아마라파티에서 출토된 불상 족석(足石)에 여러개의 卍자가 새겨져 있었다고고 합니다. (금강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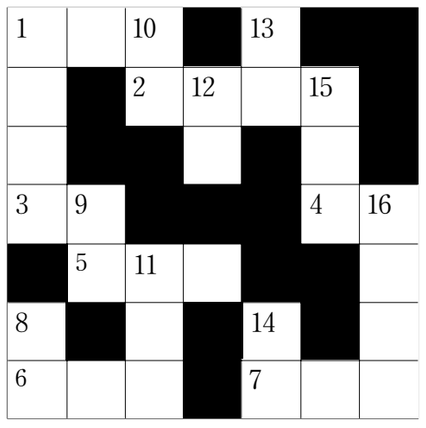
답3 : 만자는 산스크리트어로 'srivasta'입니다. 'sri'는 행복, 번영을 뜻합니다. 만자를 사용하는 세계 각국에서도 卍자를 '희망과 길상, 상서롭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卍자는 영어의 'L'자 4개로 구성돼 있는데, 현대 서구에서는 이 4개의 'L'자를 생명(Life), 광명(Light), 사랑(Love), 자유(Liberty)를 뜻하는 머리글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금강소석)

답4 : 불교의 만(卍)자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은 오직 나툼일 뿐 끝간 데 없이, 앞뒤도 없고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영원히 돌아간다는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끄트머리를 구부려 놓은 게 돌고 돈다, 생명의 불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바퀴라고 해도 됩니다. 법륜 마크도 불바퀴요 卍자도 불바퀴이죠. (불바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불교, 원불교, 가톨릭의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 2. 깊은 산속의 으슥한 골짜기 3. 하급 법원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심리를 청구하는 일 4. 계율을 어긴 스님이 다른 스님에게 참회하는 의식 5. 청와대의 옛 이름 6. 따로따로 촬영한 필름을 효과적으로 편집하여 영상예술로 완성시키는 기법 7. 방위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기구.

세로 1. 부처님이 갖춘 32가지의 뛰어난 신체적 특징 8. 아기를 잉태할 징조를 꾸는 꿈 9. 시각장애자를 지칭하던 말 10. 뉘우치는 마음 11. 전남 광주의 옛 지명 12. 산 속에서 저절로 자라는 삼으로 최고의 명약 13.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행위 14. 불가에서 말하는 매우 짧은 순간 15. 곡사(曲射)를 하는데 쓰이는 화포 16. 민가에서 정성스럽고 소박하게 차린 밥상을 일컫는 고사어.

신문광고로 본 근대생활사

과자 '포케트에 너흘 수 있는 호화로운 식탁'

콘돔 '가정 화합의 벗'

누드집 '밤의 쾌락을 맛볼라는 남녀에게 권합니다.'



꼿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
김태수 지음
황소자리 펴냄 | 1만 7천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일제 강점기에 초콜릿은 미각과 영양이 조화된 근대 식량으로 광고됐다.

'언제나 당신 뒤에 서 있겠습니다, ○○홈쇼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시쳇말로 요즘 '뜨는' 광고 카피다.

흔히 광고를 '산업사회의 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의 기점을 근대라 한다면 그 시절 광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역사책이 될 수 있다.

수백개의 신문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낸 <꼿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때 신문들은 '캬라멜도 싸우고 있다'는 광고를 내보낸다. 그러면서 후방을 강화하기 위해 영양이 풍부한 과자를 섭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제의 병력 확보를 위한 출산 장려정책을 광고에 이용하기도 한다. '부인네 일생의 정말 행복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라는 글은 아들 낳는 효험이 있는 '부인병 약'의 광고 카피다. 당시나 지금이나 한 줄의 광고카피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다.

50여년전 광고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요즈음 것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명구'가 많다. 과자를 '포케트에 너흘 수 있는 호화로운 식탁'으로, 삭구(콘돔)를 '가정 화합의 벗'으로 묘사한 것을 듣는 순간 기발함에 무릎이 탁 쳐진다.



고무신 광고

여기저기 박혀 있는 빛바랜 흑백사진과 무려 4백페이지에 육박하는 많은 양에 눌려 고루한 역사책으로 자칫 치부돼 버릴 수 있지만 책을 조금만 들춰 읽다보면 금방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런 대목들 때문이다.

요즘 즐겨 먹는 커피를 그때 당시는 맛이 씁쓰름한 데다 색깔도 검어 '양탕국'으로 불렀다. 먹고 사는 것이 절실했던 시대, 포도주조차도 한가로운 기호품으로 그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칼슘 철 등 귀중한 영양계를 가지고 있어 식욕부진 허약 등 인(人)에게는 참으로 절호한 음료'로 선전되었다. 세발제(洗髮劑) 광고는 '일주 일차(一週 一次) 머리 감기를 잊지 마시고…'라고 강조한다. 구두 광고는 '부럽도다 시원한 청풍 부는 곳에 산뜻한 양화(洋靴) 신고 활발히 걸어가는 저 청년의 보조'를 예찬하고 있다.

영화 광고와 라디오 수신기 광고도 눈에 띈다. '예술 지상주의의 작가 채플린 씨가 실로 수년간 고심 결정해 짜낸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청각신경을 만족케 하는 진육성(眞肉聲)을 발휘하는 라디오 수신기를 벗삼아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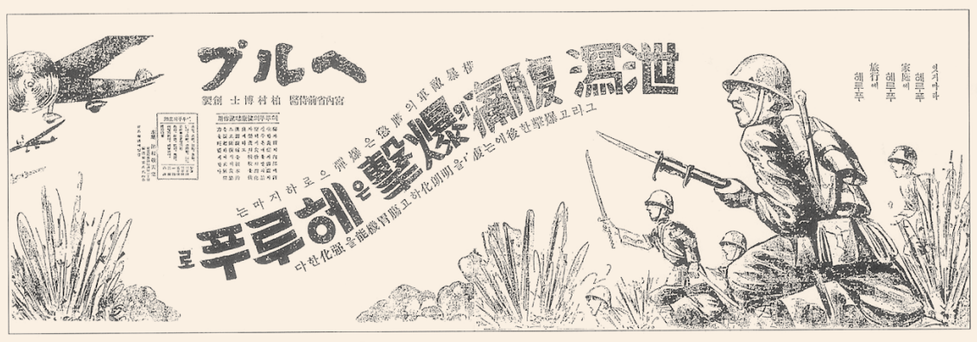
또한 연예인 누드 열풍이 한창인 오늘날 신문에도 보기 어려운 미인 사진 책 광고도 일제 강점기 신문에 실렸었다. '절세의 미인이 몸에 일사(一紗)도 부(附)치 아니한 나체 사진이외다. 밤의 쾌락을 맛볼라는 남녀에게 권합니다'는 오늘날 기준으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과감한 광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날아온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의 승전보는 '건강한 조선을 목표하고 다같이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하야 누구나 위장양제 활명수를 복용합시다'라는 활명수 광고로 활용됐다.

한편 '적군의 응징은 폭탄으로 하지만은 설사 복통의 폭격은 헤루푸로 하자'는 반(半)격문성 약 광고를 마지막으로 근대 신문에도 한글 광고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렇듯 '칼의 노래'를 쓴 소설가 김훈이 보증하는 지은이의 재치와 감각은 신문광고 속에 숨어 있는 시대적 의미와 징후들을 날카롭게 포착해 이를 맛깔스러운 글로 옮겨 놓았다.

깔끔하게 보정, 정리되어 수록된 수백 컷의 영인본과 사진들은 본문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근대 신문광고의 원문을 직접 읽어보는 쏠쏠한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한다. 길고 지루한 원론적, 연대기적 설명 대신 당시의 신문광고를 통해 이해하는 역사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이 책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질병과 싸우는 약품은 대동아공영을 위해 싸우는 황군에 비유됐다. 사진은 설사 복통약 '헤루푸' 광고.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자연을 닮은 식사
에릭마르쿠스 지음 | 박준식 옮김
달팽이 펴냄 | 9천5백원

육식과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채식은 곧 건강이다' 란 얘기만 나오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거 불편해서 어디 하겠어? 내 미식생활의 기쁨이 절반 이상 줄어들 텐데, 고기 말고 먹을 게 뭐 있냐!"

이런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눠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에릭 마르쿠스의 <자연을 닮은 식사>를 권한다. 먼저 지은이는 육식중심의 식사가 초래하는 건강의 문제를 예로 들어 채식주의의 장점을 이야기한다.

채식주의자들은 기존의 교리나 신념에 의해 자신의 밥상을 차렸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채식으로 기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적정 체중에서 23킬로그램이 더 나가는 루쓰 패이네는 하와이에서 휴가 도중 테리 신타니 박사의 강연을 듣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도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P80)

다이어트에 고심한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의를 넘어선 감동을 받을 것이다. 비만은 온갖 성인병의 온상이자 건강의 최대 적이다. 체다 치즈 0.64킬로그램에는 복숭아 7.53킬로그램과 똑같이 2천 5백 칼로리가 들어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분명해진다.

야채와 고기 8 : 2로 먹어라

<자연을 닮은 식사>는 건강에서부터 동물윤리, 지구 환경과 기아 문제까지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유제품의 실체와 광우병, 보스톤 부부의 안전농장과 돼지와 닭, 소의 사육 문제와 도살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양심에 기준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래 고기가 되기 위해 태어나 길러지는 가축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육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방방 뛰며 고함지를 이유가 없다.

이 책의 위력은 대단하다. 당장 오늘의 밥상을 반성하게 하고 먹는 행위를 통해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더 나아가 육식중심의 현대 문명을 비판하게 만든다. 결국 어떻게 먹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질기지 않다는 데 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 경각심이 금방 사그라든다는 것. 사실상 채식주의는 100% 채식을 하는 완전채식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 끼에 육류와 야채의 비율이 80대 20이어도 된다.

채식을 지구 환경의 문제와 생명 전체에 대한 존중, 인류에 대한 책임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인간은 가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많이 먹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인정하고 인간이 먹이사슬에서 아래로, 즉 곡식과 채소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리라.

■김정현(상지대 식품영양학과 강사)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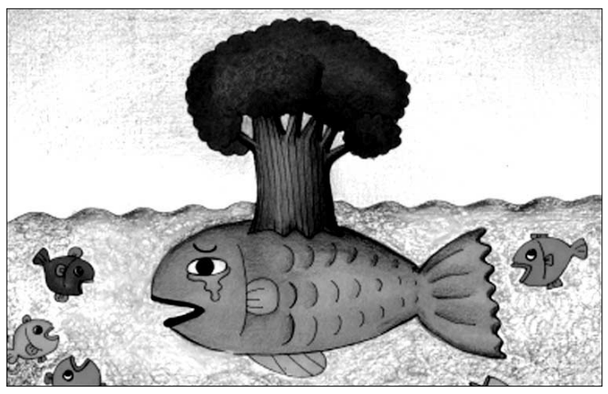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김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 부처님 진신사리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목탁이 만들어진 유래를 들려주는 '고기등에 자라난 나무'의 한 장면.

진관사 코끼리유치원 눈높이 불서 6권 펴내



"유치원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싶어 직접 어린이불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6~7세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불교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았고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도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높은 제작 단가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환경 탓에 늘 냉대를 받아온 어린이 불서. 자라나는 새싹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린이불서 제작에 한 불교계 유치원이 발 벗고 나섰다. 바로 서울 진관사 부설 코끼리유치원(원장 임미숙)이 펴낸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시리즈다.

이번에 선보인 책은 <목마를 타고 간 동자승> <옛날 꽃병과 장사꾼> <기녀 암바바리> <고기 등에 자란 나무> <낚시터의 소년> <소로 변한 스님> 등 6권. 매주 월요일 각성 스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엮었다. 코끼리유치원 교사인 최은숙(26)씨가 그림을 그렸고, 진관사 어린이법회 출신으로 올해 동국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이주아(20)씨가 글을 썼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림책처럼 화려하거나 고급스럽진 않지만, 아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그림이 돋보인다. 이야기 구성을 단순화해 집중력을 높인 것도 장점이다.

각성 스님이 어린이불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북이>와 <아빠 원숭이가 놓은 다리> 등 2권을 펴냈다. 하지만 이 책들은 모두 비매품. 올 컬러로 제작되는 어린이책의 특성상 제작비가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들도 각각 500권씩만 인쇄해 불교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40여 곳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각성 스님은 "이번에 펴낸 책들 외에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 둔 그림과 원고들이 10여개 정도 있는데, 언젠가 계기가 되면 책으로 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31)978-0997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詩로 설한 세상만사

덕진 · 현담 · 혜인 스님 시집 잇따라 출간



맑은 마음 고운 세상 덕진 스님 시집 | 부다가야 | 6천원
사랑이 오고 있다 현담 스님 시집 | 바보새 | 7천원
살아가라 살아가라 혜인 스님 지음 | 고려의학 | 1만원

한 편의 시(詩)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주변을 되돌아보고 무딘 감성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된다. 때 이른 더위에 마음이 쉽게 지치기 쉬운 이때, 시심(詩心)에 불심(佛心)이 담겨 있는 스님 시인의 시집 세 권이 잇달아 나왔다. 덕진 스님의 〈맑은 마음 고운 세상〉, 현담 스님의 〈사랑이 오고 있다〉, 혜인 스님의 〈살아가라 살아가라〉를 통해 마음에 한 줄기 시심을 새겨보자.

첫 시집 〈연꽃처럼 햇살처럼〉을 출간한지 7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맑은 마음 고운 세상〉을 선보인 덕진 스님(울산 정토사 주지)은 시보다 먼저 스님의 이력에 눈길이 간다. 스님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과 선재연구모임 회장, 봉사단체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등을 맡아 포교활동에 앞장섰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1989년)과 포교대상 공로상(2001)을 수상했다. 현재도 울산지방경찰청 경승실장을 맡아 포교현장에서 그 원력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스님의 시에는 "내 자신이 먼저 봉사한다는 원력을 세우면/ 할 일도 보람도 사계절과 함께 한다"처럼 평소 수행이나 포교활동 중에 느꼈던 소회나 "동자승 하나/ 길을 가다가/ 구름을 본다"같이 인도 · 일본 · 태국 등을 성지순례하며 느꼈던 감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집에는 성지순례 길에 찍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현담 스님의 시에 배인 생의 우수와 절제감 있게 배인 서정의 그늘은 시 공부를 시작하는 문학청년들에게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곽재구 시인, 순천대 교수)

그동안 빼어난 서정시를 주로 선보였던 현담 스님(김포 미타사 주지)은 세 번째 시집 〈사랑이 오고 있다〉에서 '시를 통한 만행'을 시도한다.

"하마단/ 메마른 내 몸 속에는 아직 무수히 많은 길들이/ 흔들린다/ 지친 낙타의 큰 눈 속에 잠긴 신기루/ 푸르른 호수 가운데/ 먼 길 들꽃처럼 무수히 날린다" ('하마단' 中)

스님의 발길은 전쟁의 상처가 남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기도 하고 혹은 파키스탄 힌두쿠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향하기도 한다. 상처의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을 가다듬고 상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시로 옮겼다. 전기철 시인(숭의여대 교수)이 "고뇌와 아름다움이 공존해 있는, 만행의 발자국에서 피어난 한 떨기 우담바라"라고 평했을 정도로 스님의 시에는 만행의 향기가 가득하다.

25년간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펼쳐온 혜인 스님(서울 불심사 주지)은 "북한산 기슭에서 지내며 보고 듣고 느낀 것과, 쉬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진' 속에서 눈떠 시향(詩香)을 담은 것이 바로 이번 시집 〈살아가라 살아가라〉다"라고 말한다.

1부 '그리운 얼굴들'에는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모의 정과 조카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2부 '철따라 마음따라'는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 북한산의 정취를 읊조렸다. 3부 '배우며 행하며'와 '님을 향한 외길'에는 불교에 입문하고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과 그 속에서 만난 가르침을 노래한다. 이 수행의 과정에서 건져 올린 시를 통해 스님은 독자들에게 당부한다. "백년 살 착각으로 지내다가/ 너와 나, 하나인 우리/ '마음' 울림을 깨달아/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가라, 살아가라!"고.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상식적 언어로 유식의 세계로



상식에서 유식으로
정승석 지음
정우서적
7천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모든 것은 마음이 조작한 것일 뿐이야'

우리는 쉽게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단지 내 마음의 상태같은 무형의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형의 실체까지도 포함하는 것일까?

유식학(唯識學)은 '모든 것이 식(識)일 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서, '모든 것이 공(空)'이라는 관념을 입증하는 학문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마음'을 다루는 유식학의 경우 그 깊고 넓은 사상의 폭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강(江)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이러한 유식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다리 놓기에 나섰다. <상식에서 유식으로>는 '상식적인 언어로 유식의 세계를 이해해 보자'고 권하는 책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이 그렇듯이, 나는 유식도 상식(常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는다. 마음에 대한 상식을 한 차원 끌어 올리면 그 상식은 유식이 된다."

정 교수는 여기서의 관건은 바로 '언어'라고 말한다. 상식에서 유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언어로 유식학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유식학의 언어를 상식적인 언어로 전환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유식학에 대해 썼던 글을 재정리하는 과정은 지식의 정돈이나 습득에 그치지 않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자제를 되새기는 수행의 일환이 됐다"며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실효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 **〈동양고전사상〉**(연정열 지음, 한성대학교출판부, 2만원)="〈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이들 대부분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애송하기보다 경전자체를 외우고 독송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경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으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상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정열 교수(한성대 법학과)가 동양고전의 정수(精髓)를 간추린 〈동양고전사상〉을 펴냈다. '고전'이라고 하면 어려운 한자와 심오한 사상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가능한 우리말로 고전의 가르침과 핵심 사상만을 설명하고 있다. 사서삼경(四書三經)같은 유교사상서를 비롯해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불경의 성립 과정과 핵심사상을 풀이했다.



■ **〈쉐우민의 스승들〉**(우 꼬살라 사야도 · 우 떼자니아 사야도 지음, 묘원 옮김, 행복한 숲, 1만원)=미얀마 쉐우민 선원의 우 떼자니아 사야도가 스승인 우 꼬살라 사야도의 법어와 법문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수행자들과 주고받은 문답, 수행 중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 위빠사나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기도발〉**(일광 스님 지음, 현대북스, 9천원)=일광 스님(부산 신광사 주지)이 사찰 홈페이지(www.kidobal.com)에 연재했던 신행일기를 책으로 묶었다. 흔히 기복신앙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는 '기도발'을 책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동승으로 출가해 30여년간 부처님께 귀의해 살아오며 느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말이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 **〈삶의 길 흰구름의 길〉**(오쇼 라즈니쉬 지음, 류시화 옮김, 청아출판사, 1만3천원)=오쇼 라즈니쉬의 〈장자〉 강론. 20여년 전 류시화씨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던 책을 다시 번역해 내놓았다. 라즈니쉬는 〈장자〉를 통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말한다.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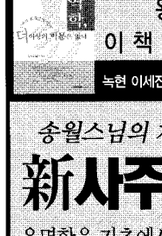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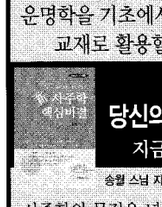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易學,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완결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08페이지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가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홍은행 예금주(소광호)

시대·종단에 따라 형태·색·문양 달라

불교 복식 '가사 이야기'

가사 袈裟

회색 장삼에 밤색빛 가사(袈裟). 가장 익숙한 한국 스님들의 복식이다. 그러나 회색 장삼 위에는 주홍색 가사를 덧대기도 하고, 그 가사의 문양 역시 다양하다. 그리고 가사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조각들이 규칙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스님들이 의식에 앞서 수하는 가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어떠한 형태로 변형돼 왔으며 종단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불교복식 전문가 김경숙·안명숙씨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가사>(대원사 빛깔있는책들)를 통해 그 궁금증들을 풀어본다.


가사를 정대하는 스님들.

▽삼독을 끊기 위해 착용

우리나라에서는 장삼 위에 가사를 덧대 입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등 남방불교권에서는 가사 그 자체를 의복으로 착용한다. 불교 발생 당시 수많은 사상적 유파 가운데 불교 교단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사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사는 단순한 의복의 의미를 넘어선다. <관중창립계단도경(關中創立戒壇圖經)>에는 "5조하의(下衣)는 탐욕스러움을 다스리기 위해, 7조 중의(中衣)는 화가 나서 하는 말을 조심하기 위해, 대의(大衣) 상의는 어리석은 마음을 끊기 위해서 착용한다"고 나타나 있다. 즉, 가사를 수하는 것은 불도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삼독(三毒)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는 가사의 소재와도 연관된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소가 씹은 옷, 무덤에 버려져 죽은 사람의 옷, 사당에 버린 옷 등 사람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가지고 만든 가사인 '분소의(糞掃衣)'를 입었다. 이는 의복에서부터 세간적인 욕심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래서 가사의 색깔 역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사분율> 권16에는 "만일 비구가 새 옷을 얻으면 마땅히 세 가지 종류로 괴색(壞色)해야 한다. 하나하나의 색을 뜻대로 무너뜨려라. 청 혹은 흑, 혹은 목란으로써 아니하고 다른 새옷으로 함은 바일제(파계의 죄명)이니라"고 나타나 있다.

청·흑·목란 세 색깔 한정은 욕심 차단하겠다는 의미

우리나라는 5~25조 까지 홀수만 선택, 밭 전(田) 형태

신라-화려, 고려-서열에 따라 차등, 조선-문양 발달

▽예불, 설법 등 상황에 따라 입는 가사 달라

율장에 따르면 초기불교 시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가사를 입었다. 일상복인 '안타회', 예불 등의 각종 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울다라승', 법좌에 올라가 설법할 때 착용하는 '승가리' 등이 그것. 그러한 가사를 착용할 때는 왼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우견'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고, 설법을 하거나 위의를 갖출 때는 양쪽 어깨를 전부 감싸는 '통견'의 방법을 따르기도 했다.

그 같은 가사들은 형태상으로 구분된다. 가사의 형태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가로로 이어붙인 형태다. 세로로 긴 천의 조각을 '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조의 개수에 따라 가사의 명칭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가사는 5~25조까지 홀수만을 선택해 만든다. 하나의 조에는 길이가 긴 직사각형인 '장'과 길이가 짧은 직사각형인 '단'이 섞여 있다. 그래서 가사의 무늬는 밭 전(田) 형태를 띄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사의 형태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문양의 부착물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색의 천을 섞어 만들기도 한다. 이밖에도 구족계를 받기 이전에 사미승이 입는 통가사처럼 조와 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형태 변해

불상이나 불화 등을 통해 확인한 과거의 가사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불교가 처음 전래됐던 삼국시대의 가사에는 밭이랑의 모양이 남아있지 않다. 대신 한 장의 천을 재봉하지 않고 그대로 몸에 걸치거나 늘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 왕이나 왕비가 사문(沙門)으로써 가사를 입는 경우가 있어 가사가 화려해진다.

고려시대에는 가사 밑에 입는 저고리인 편삼, 황색이나 자색 등의 상(裳·치마), 그리고 가사를 갖추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또한 법계(法階, 승직제도에서의 지위 서열)와 승과 제도가 확립되면서 가사 착용에 있어서도 서열에 따른 차등이 일반화됐다.

조선시대 가사에는 법계에 의한 차별이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치수에 관계없이 단일색 가사의 모습을 보이고, 고려의 수가사에 비해 팔보·칠보·포도 등 문양이 발달된 것이 특징이다. 이후 구한말에는 승려의 법계에 따라 대의(大衣) 색을 제정해 색상과 무늬의 유무로 등급을 가렸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 일제 치하에서는 사찰령에 의해 법계에 따른 의제(衣制)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불교 종단들 뚜렷한 차이 보여

한국불교는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게 가사 불사를 회향하는 가사 점안 의식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사의 형태면에서도 매듭으로 된 착장구(着裝具)나 삼족오(三足烏) 문양 등을 사용함으로써 한국화된 가사의 모습을 보여줬다.

조계-62년 의제법 제정 이후 괴색 보급

태고-조선 전통 이어, '자체가 붓다' 의미

천태-토끼, 경전 등 문양, 법계 따라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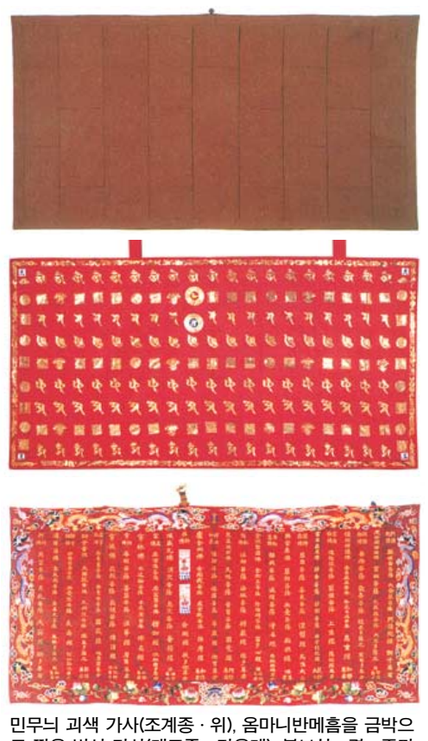
그러나 형태에 있어 각 종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 정화 이후 자운·성철·고암 스님의 결의로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 1962년 8월 28일 의제법을 제정해 그간 이어져 내려오던 홍가사 대신 문양이 없는 괴색 가사를 보급하게 됐다.

형태상으로는 5조, 반가사, 대가사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반가사는 조계종에서 창안한 가사다. 왼쪽에 앞과 뒤를 연결하는 띠를 달아 왼쪽 어깨에 둘러매게 돼 있다. 또한 조계종은 가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왼쪽 가슴 위에 고정한 매듭과 고리도 새롭게 만들었으며, 최근 2003년에는 가사의 색을 밝은 갈색으로 지정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전통 가사인 조선시대 가사의 소재, 색, 문양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9조에서 25조까지 있으며, 장엄 방법에 따라 불·보살·경전 명호 가사, 옴마니반메훔을 금박으로 찍은 범서 가사, 금사 원단 가사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가사의 색은 주홍색이며 소재는 주로 견을 사용한다. 가사 그 자체가 붓다이므로 그를 최고로 공양한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대한불교천태종의 가사 역시 9조에서 25조까지 있으며, 9조는 6급 법계인 정법승·13조는 5급 법계인 대덕을 품수해야 착용할 수 있는 가사다. 21조 가사는 2급 법계 종사인 스님이 입는 가사로, 대각국사의 가사를 토대로 했다. 삼족오, 토끼, 금강저, 불·보살·경전 등의 문양을 사용하고 법계에 따라 가사의 색을 보라색(9조), 갈색(13조), 주홍색(21조, 25조) 등으로 차별을 둔다.


민무늬 괴색 가사(조계종·위), 옴마니반메훔을 금박으로 찍은 범서 가사(태고종·가운데), 불보살·경·존자 등을 수놓은 가사(천태종·아래).


조계종의 대가사(좌)와 태고종의 대가사. 가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사와 같은 색의 끈으로 연봉매듭과 고리를 만들었다. 조계종에서 착안한 이 착장구는 한국불교 가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스님이 만든 후불제실시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옴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후불제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 대한불교 법정사 051)507-7555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2개월 • 고급과정 : 2개월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7. 4 월·화반(주·야간 : 4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십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번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점 무료 보시합니다.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1Box(60포 ~~30만원~~) 1Box(60포 : 15만원)
• 2Box(120포 ~~3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7>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장로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수행자가 다른 이의 잘못을 들추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 둘째는 조언할 때를 잘 알아서 말해야 한다. 셋째는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 넷째는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다섯째는 자비심으로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한 말을 했는데도 성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말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리불이여, 만약 어떤 강도가 와서 그대를 묶고 그대에게 해를 입히려 한다고 하자. 그때 그대가 강도에게 나쁜 마음으로 욕하고 반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강도는 그대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는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마찬가지로 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더라도 그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원망하기 보다는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게으르고 계율을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잡아함18권 거죄경>

얼마 전 서울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20대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모았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그 여성의 얼굴까지 자세히 보았을 정도이니 이 사건의 정황과 그 여성의 사진이 전국의 네티즌들 사이에 얼마나 급속도로 번져나갔을지 상상이 갑니다.

생생한 현장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거친 욕설로 얼룩진 사건 정황을 읽어가자니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휴, 저걸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가만 두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치솟는 것을 억누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행위는 그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저와 똑같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진에 덧글을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얼굴 없는 대중에 의해 그 여자의 엉터리 신상명세가 마구 올라오고 그 여자에 대한 무차별 처벌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의 사람이 좀 점잖게 비난의 글을 올렸다 싶으면 그보다 더한 욕으로 덧글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그 욕보다 더 심한 욕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더 심한 욕이 생각나지 않아서인지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여자 신상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비방을 가했습니다. 그 비방에 또 다른 이가 욕을 덧붙였습니다.

대체 우리가 중요하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할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기본 윤리조차 서지 않은 현실을 고민하고, 공중도덕에 대한 불감증을 반성해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별로 깊이 있는 의견이 나오지도 않은 채 결국 공중파 뉴스에서 '절제와 에티켓이 없는 네티즌'들을 걱정하는 정도에서만 이 사건은 다루어졌을 뿐입니다.

잘못한 이를 향한 분노가 마음을 차지하면 해답 못찾고 남과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 분노하였을까요? 자기가 그만큼 화가 났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혹시 뭔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잘못한 행동을 한 여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릇된 것은 꾸짖어야 하고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잘못을 꾸짖는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분노가 먼저 자리 잡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분노에 눈이 어두워져 남도 해치고 나아가 분노의 열기는 결국 스스로를 태우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잡아함경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장승, 126~127쪽)에서 전문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나는 누구인가' 진실로 아는가

지상 백고좌

혜운 스님

(대구 여여선원장)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혜운 스님.

"나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니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한사코 기자만나기를 거부하던 혜운 스님은 우리나라 당대 최고 선지식인 운봉 선사와 향곡 선사의 법어집을 내놓으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선병요설(禪病要說)'이란 대목을 펼쳐 보이며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참선을 공부하는 이들이 범하기 쉬운 선병들이 조목조목 소개된 부분이다.

'선병밖에 어떤 것이 병 아닌 선이겠는가?' 라는 선지식의 단호한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혜운 스님은 스스로를 '유명무실한 사람'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향곡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며 명안(明眼)을 얻은 선사다.

향곡문도회 회장으로 1997년 운봉 스님과 향곡 스님의 법어집 재판 보급에 나섰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향곡 선사의 서릿발 같은 행적을 옆에서 지켜보며 알게 모르게 온몸으로 그 법력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스님에게 향곡 스님을 시봉했던 이야기를 여쭈었다.

"요즘 스님들은 너무 쉽게 살아요."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시는지 스님은 눈을 지긋이 감았다.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하면 지금 스님들은 다 도망가고 말게야." 스님은 눈을 번쩍뜨며 웃어 보인다.

그 표정에 수많은 세월을 지나온 수행이력이 물씬 묻어난다. 눈을 감고 뜨는 걸로도 말없는 법문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큰스님들이 경전이나 율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출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목이 지내는 방에서 나무를 하는 등 절 일을 해야 했지요. 저 놈이 수행자가 될 그릇인가를 살펴보고 수행자 싹이 보여야 받아줍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나면 그저 또 열심히 일만 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약을 주지도 않고 먹을 것이 풍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도 모두 얻어 입었지요. 양식이 없으면 굶기도 하고, 옷이 떨어지면 누덕누덕 기워서 입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무척 어려웠지만 그것이 도를 이루겠다는 발심을 막지는 못했지요. 지금처럼 일일이 가르침을 내리거나 설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온전히 전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님은 앞에 있던 물 컵을 불쑥 내밀며 "이렇게 전달하는 뭔가가 있었지요"라고 말을 이었다.

스님의 말씀에서 영산회상 당시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섭존자가 말없이 미소짓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혜운 스님은 그러나 요즘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한탄했다.

티끌이라도 걸림 없어야

스님도 힘든 수행 생활을 피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다.

"옛날 스님들은 아주 잘난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못난 사람이 스님 노릇을 제일 잘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생각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말도 못하고 모습도 못생긴 사람이 중노릇을 잘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워낙 못 생겼으니 어디 갈 생각도 못 하고 부처님 밥을 먹고 살았지요. 그러나 50이 넘으니 마음이 정확하게 굳어집디다. 오직 내가 할 일은 부처님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지요."

그저 못났으니 부처님 밥 먹고 살아왔다는 스님, 그러나 화두가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스님의 눈은 예사롭지 않다. 한평생을 오직 화두참구 하나로 살아온 수행자의 빛이 역력하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비유해 '화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화두는 참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안 말씀 주는 것을 화두라고 하는데 일반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상표등록 제614981호
의장출원 제35872호


극세사 (만행화) ◆가격 : 80,000원 ◆규격 : 215-290(mm)


망사 (만행화) ◆가격 : 60,000원 ◆규격 : 215-290(mm)

● 단화 특징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단화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흑, 백 / 신도용 - 흑, 백

과학으로 탄생시킨



건강웰빙 기능성깔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 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조원 : 벽산아트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농협 063-12-250427 예금주:구자민

※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인들이 쉽게 말하는 화두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또 화두는 '탄다' '태워준다'라는 말을 씁니다. 속가의 자식에게 재산을 태워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재산을 잘 보존할 자식이 있고, 금방 말아 먹을 자식이 있습니다.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타파해 부처님 혜명을 이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간파해 공부 안할 놈에게는 화두를 잘 일러주지 않는 법입니다.

옛날 성철 스님에게 화두 한번 타려면 삼천 배를 해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두는 소중히 일러줘야지 떡 주듯이 쉽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 스님들은 화두를 일러줘서 그날 저녁에 타파하지 못하면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만큼 무섭게 했지요. 만일 그날 저녁에 타파 못하면 3일, 또 3일 만에 못하면 1주일, 그 1주일 만에 해결 못하면 벌써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밥충이 되는 것이지요. 밥이나 먹고 세월이나 보내는 것이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부터도 밥벌레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두를 타고, 타파하기 위한 옛 스님들의 정진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엿볼수 있는 말씀이다.

혜운 스님은 어떤 화두를 탔을까? 스님은 부산 선암사에서 큰스님(향곡)이 너무 무서워서 몇 번을 망설인 끝에 화두를 탔다고 회고했다.

"옛날 중국 총림에는 황벽 스님이 3천명의 대중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황벽 스님 버금가는 목주 스님도 있었고, 또한 유달리 공부하려고 애쓰는 임제 스님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주 스님이 임제 스님에게 황벽 스님을 찾아가 '어떤 것이 불법의 똑바른 큰 뜻입니까?'라고 질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머리에 붙은 불 끄듯 공부를

다음날 임제 스님은 목주 스님이 일러준 대로 가사장삼을 수하고 황벽 스님을 찾아가 '어떤 것이 불법적적대의입니까'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황벽 스님은 주장자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임제 스님은 꼼짝없이 두들겨 맞은 채 쫓겨났습니다. 목주 스님은 다시 임제 스님에게 황벽 스님 찾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목주 스님의 말을 들은 임제 스님은 그대로 했지만 3일을 황벽 스님으로부터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황벽 스님을 떠나 대우 스님을 찾아갔지요. 대우 스님을 찾은 임제 스님은 '불법적적대의를 묻는데 무슨 허물이 있다고 방망이를 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우 스님은 '황벽 스님이 전심전력을 다해 불법적적대의를 일러줬는데 무슨 허물을 찾느냐'고 말합니다. 순간 임제 스님은 바로 깨쳤다고 합니다."

향곡 스님으로부터 "'불법적적대의(佛法寂寂大意)'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탔다는 스님은 황벽 스님 회상 이야기를 통해 수행자는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스님의 공부는 어땠을까? 향곡 스님은 스님에게 어찌 일러주셨을까?' 궁금했다.

"향곡 스님은 수시로 공부가 어떠한가를 물었습니다. 또 더러는 '나도 알았다' 해서 스님을 찾아가 대질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스님은 그 때마다 '공부 진실하게 해라'. '나중에 알면 찾아오너라'며 화두를 다시 일러주곤 했지요. 법을 설하거나 설명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참선 얘기는 하면 할 수록 그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 화두를 타면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할 따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말 잘한다고, 오래 앉아있다고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를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가 나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적적대의'를 묻는데 방망이로 때린 것을 알면 진실하게 한 것입니다."

스님의 명쾌한 설명에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기자를 위해 스님은 다시 자비심을 베푸셨다.

"대신심과 대의심, 대용맹심으로 이 공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선사들이 위태로움과 득실을 돌아보지 않고 천리 만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선지식을 찾아가 친견을 하고 법의 문으로 들어가 일대사를 해결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 공부는 티끌처럼 미세한 것이라도 걸리는 곳이 있으면 다 틀려 버립니다. '공부를 해서 해결한다'는 자세로 그 길만을 밟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금생에, 이 몸뚱이 있을때 해결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름지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이 공부해야 하며, 감옥에 갇혀 고초를 받는 사람이 풀려 나기를 바라는것과 같이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향곡 스님의 가르침이고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큰스님들을 모시고 살았다는 혜운 스님은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인물이 없고, 절집안에도 인물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조실 없는 선방이 많다는 것은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다라니 외는 것만으로도 공덕

스님은 조실스님에게 일일이 지도받으며 참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별로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문중을 가려 조실을 모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공부 많이 하려고 애쓰는 스님도 있지만 진실하게 안하니까 안 되는 것"이라며 진실한 수행을 강조했다. 재가불자들에게는 "자기완성한 사람이라야 온전한 불자가 되는 것"이라며 수행정진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두를 타지 못한 재가불자들에게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꾸준히 독송해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권하셨다. 다라니는 외우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혜운 스님은 평소 지표로 삼고 있는 경구라며 다음의 말을 들려주셨다.

여인불경심상정(與人不競心常靜)
위공무사몽역한(爲公無事夢亦閑)

사람과 더불어 경쟁하지 않으니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꿈에도 한가롭다.

불교의 발전과 정직한 사회, 질서 있는 사회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엿보였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향곡문도회 대표…청소년 포교에 관심

혜운 스님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한적한 주택가, 수십년의 수행이력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을주민과 어울려 살고 있는 자그마한 체구 인자한 얼굴의 노스님이 여여선원장 혜운 스님이다.

스님은 1931년 충남 대전에서 출생, 16세의 나이로 동학사에서 대강백 무불 스님 밑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7세에 해인사 향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고, 1950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부산 선암사에서 원주 소임을 맡아보며 당대 최고의 선지식 향곡 스님을 시봉했던 스님은 상원사에서 수선 안거 했다. 이후 하나뿐인 자식을 수행자로 떠나 보낸 채 23세부터 수절해온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1961년부터 20년간 염불암 주지 소임을 살았다.

이후 스님의 어머니는 발심 출가해 스님과 함께 수행자의 길을 함께 걸었고, 스님은 1981년 여여선원을 창건해 주석하고 있다.

스님은 향곡문도회 대표로 향곡 스님 열반 20주기를 기념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운봉향곡선사의 법어집을 재출간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또, 청소년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 청소년교화연합회 대구경북지부장을 역임했고,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부회장 소임을 오랫동안 맡았다.

60세 이후 모든 공적인 일을 내려놓았지만 지금까지도 스님은 매일 새벽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모시며 수행자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75세의 노구에도 도량청소며 궂은 일을 직접 행하는 스님은, 화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드는 것이라며 화두 참구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다.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보림 스님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스님하면 보림(寶林) 스님이 떠오른다. 보림 스님은 기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무엇이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보림 스님하면 반짝거리는 두 눈이 먼저 떠오른다.

스님은 속리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은 상고암(上庫庵)으로 출가했다. 법주사 입구에서 걸어서 두 세 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이다.

상고암은 속리산 정상 가까이에 있다 보니 연탄이나 기름은 엄두도 못 내고 나무를 땐다. 그래서 스님은 출가하자마자 매일 지게를 지고 땔나무를 하며 행자 생활을 했다.

육조 혜능(慧能) 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나무를 지고 저자거리를 걷다가 <금강경>의 '응당 머무



그림 · 문병성

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듣고 발심 출가를 했다. 사실 공부라는 것은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나무를 자르고 톱질을 하고 지게질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공부는 익고 진전되는 것이다.

그렇게 상고암에서 행자생활을 한 스님은 계를 받고 얼마 있다가 중앙승가대학교에 들어왔다. 스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꼬인 매듭을 푸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중앙승가대를 마칠 무렵, 스님들이 선원에 가네 대학원에 가네 하고 각자 길을 가느라고 바쁘게 움직이던 무렵 스님도 경기도 안산시내 한 복판에 보문선원(普門禪院)이라는 포교당을 열었다. 당시는 조계종 사태와 IMF 등으로 잘 되던 포교당도 문을 닫던 어려운 시기였다. 나는, 몇몇 스님들이 잇따라 포교당을 열던 때라서 도반이 또 포교당을 여는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나는 포교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안산의 보문선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훌륭한 법당으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서울같은 곳에 포교당을 열면 수월할 것인데, 왜 공장이 많고 불교세가 약한 곳에 포교당을 내려고 하는지 몰라 의아해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보림 스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안산은 신흥 공업도시다. 기존 틀이 잘 갖춰진 서울 등은 누가 해도 포교를 잘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안산은 포교하기도 힘들지만 그만큼 부처님 법에 목말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안산에서 새롭게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싶었던 것이다.

스님은 개원하자마자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섰다. 일반법회는 물론 어린이 · 청소년 · 거사 법회를 열고 포교에 앞장섰다. 또 '밝은 세상보기 봉사회'를 만들어 노인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돋보기를 보시하는 행사를 했다. 해마다 경로잔치도 빼놓지 않았다.

그 덕분인지, 건물 한 칸에서 시작한 보문선원은 5년 만에 건물 한층 규모로 확대됐다. 2000년 당시엔 작은 법당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대법당, 어린이법당, 청소년법당, 시민선방을 갖추었다.

불교세 약한 안산서 포교 혼신
외국인 불자에 법당 제공 감동

양적으로만 커진 것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부처님법을 듣고 다시 미소를 배워가는 도량이 된 것이다.

얼마 전 불교계 신문에서 스리랑카나 외국인 불자 노동자들이 신행활동을 할 만한 마땅한 절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다른 종교의 적극적인 선교로 개종하는 사례까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불교의 무대책과 소극적인 자세로 불자들을 모두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무척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 안 있어 해결되었다. 보림 스님이 마음을 내 임대료를 대신 내고 새 법당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 불자들이 다른 종교 시설을 기웃거리지 않고 따뜻한 부처님의 보금자리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무척 감명을 받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위로 갈 것이 아니라 보다 낮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몸 부비며 존재해야 진짜 살아있는 불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중생을 외면하고 오직 고고하게 앉아만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보림 스님과 도반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보림 스님에게 기자가 "포교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스님은 "포교란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라고 대답했다. 맞는 말이다. 비록 작은 날개짓이지만 이 날개 짓이 모이고 모여서 커다란 바람을 만들고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청원 현암사 총무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재성(동국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5년 6월 11일~ 2005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5년 9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마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의 접목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6월 22일 수요일 제 531 호

"시간 있을 때 박물관에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계 유명 박물관 관람은 물론 새롭고 신기한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05 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가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세계 최초의 '박물관 문화 박람회'를 표방하며 경기도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보다 더 다양할 순 없다


지구촌 민속박물관에 출품된 17세기 가나의 '탈'.


카메룬 '담배피는 여인상'.


목아박물관 '진중도'.


에티오피아 은목걸이.


티베트 인골장식모자.


종이 미술관의 '곤충'.

30여개국 150여 박물관 · 미술관 한자리에
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 7월 1일부터 고양 국제전시장서

'이보다 더 다양할 수는 없다'. 세계 30여개국 150여 개 박물관 및 미술관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그럴 법도 하다. 민속관 자연사관 과학관 기업관 종교관 어린이관 이색관 미술관 등 8개의 그룹으로 나눠 묶어 놓아 관심사 별로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불자들은 불교 전시관이 밀집된 '종교박물관' 불교관 뿐만 아니라 민속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목아박물관, 티벳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등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불교박물관들이 어떤 모습인지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술관에서는 세계 유명 미술관의 진품과 한국 근대 화가들의 걸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사 중 펼쳐지는 박수근 · 김환기 특별전에서는 평소 접할 수 없었던 화가들의 유물과 영상자료가 공개돼 화제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동서양 성(性)박물관, 장신구 박물관 등 특이한 박물관이 즐비한 이번 행사를 즐기다보면 박물관은 따분한 곳이라는 편견, 어느새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www.wmce.or.kr, (031)714-8888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테마별 전시 …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

◆ **민속관=** 전국 각 지방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국내 민속 박물관'은 기본, 민속 행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됐다. 한 발 뻗어 타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는 '해외 민속 박물관'과 '체험관'도 함께 꾸려진다. 체험을 하다 출출할 때는 '세계 민속음식 페스티벌'에서 이국적 분위기를 즐기며 각국의 전통음식을 시식할 수 있다.

◆ **자연사관=** 자연과 인류의 시작을 의미하는 박람회 행사장의 입구 '우주와 지구 탄생관'부터 시작해 삼엽충의 '고생대', 공룡의 시대 '중생대'의 화석과 자료를 열람하면서 인류가 출현한 '신생대'까지 거슬러 올라온다. 역사여행 후에는 세계 '자연사 박물관'의 자료, '암석관'과 '보석관'의 화려한 자태에 눈길을 줄만하다. '정글 대탐험' 이라는 특별전시로 1,000여 점의 희귀 동식물을 선보이는 '생물관'도 관심 대상이다.

◆ **이색관=** 27년간 거북선을 연구한 김영성 씨가 재현한 거북선 모형을 볼 수 있는 '거북선과 전통 전투함', 아프리카의 장신구를 감상할 수 있는 '세계장신구박물관', 영월 폐교를 이용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민 '영월책박물관', 창조적 종이접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종이미술박물관', 철도의 역사를 느끼는 '철도박물관'과 전통죽제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한국 대나무박물관' 등이 운영된다.


17세기 카메룬 족장의 침대.

◆ **종교관=** 불교역사와 문화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불교박물관'과 프랑스 '클뤼니 박물관'의 유물, '성서박물관'과 '십자가 박물관' 등의 종교 유물을 테마로 한 박물관은 물론 원시종교부터 세계 4대종교까지 인간문화로서의 종교를 생각해보는 '종교역사관'까지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전시관이다.

◆ **미술관=** '국내 유명 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을 시작으로 박수근 김환기 이중섭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작가들 기획전',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지역 전시관들의 힘을 보여줄 '시각의 전환:중심의 힘' 등이 이어진다. 이 밖에도 '한 · 중 도예전', 5원소를 통해 지구를 사랑하자는 '물+불+공기+흙+인간' 전, 로댕 등의 진품 조각 34점을 볼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아뜰리에 조각전'과 피카소 예술의 본질을 보여줄 '피카소 판화전'도 함께 펼쳐진다.


티베트 해골 외피 불문 바가지.

◆ **과학관=**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과 SF 영화를 좋아하는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전시관. 무중력 체험을 할 수 있는 '우주과학관',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을 전시하는 '과학발전시관', 일상생활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고 직접 실험하는 '과학체험관', 치의학 기술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치의학박물관' 등이 기다린다.

◆ **기업관=** 기업 또는 단체가 후원, 운영하는 박물관 및 소장품을 소개하는 '기업박물관', 첨단과학이 선도하는 가상적인 미래생활을 체험하는 '미래체험전시관'이 눈에 띈다. 또 '미래첨단 · 환경산업관'에서는 첨단 산업분야의 기업, 미래 실용화 가능 제품과 친환경기업 제품도 함께 소개한다. '지자체관'은 각 지자체내의 유적, 관광지, 특산품, 문화 · 관광에 관련된 시정 등을 제시한다.

◆ **어린이관=** 세계 어린이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하는 다채로운 워크샵과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웅진초등교육박물관', 국내 희귀만화 원화와 만화의 역사 문화 원형을 복원한 '청강만화역사박물관',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만화박물관' 등이 진행돼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전시관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시판

자비복지타운 건립 모금운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자비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저금통(사진)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승가원 측에 다시 전달하면 된다. (02)928-0750



서울숲 개장 6월 18일 개장한 뚝섬 '서울숲'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평일에는 건강걷기 프로그램과 숲속 음악회가, 24일 금요일부터는 자연올림픽, 페이스페인팅, 열기구 체험 등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parks.seoul.go.kr/seoulforest)와 서울숲 관리사무소(02-460-2905)에 문의.

어르신 일자리 제공 춘천시립노인복지회관(관장 김창근) 춘천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는 동화구연 · 숲생태해설 · 매장판매 · 상품홍보 등의 분야로 나눠 각자의 개성에 맞게 교육한 후 배정된다. 6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033)255-8866

이미용 자원봉사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 은 이미용자격증을 갖춘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2)929-7950

APEC 성공 기원음악회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6월 25일 혜원정사에서 '부산 APEC 성공개최 기원 혜원음악회'를 개최한다. (051)866-7772~3

광진노인복지관 어르신 교육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7월 6일부터 사군자, 단전호흡, 건강댄스, 합창, 종이접기 등의 2학기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모집한다. (02)466-6248

20면 상식 퍼즐 정답

삼	소	회		자		
십		심	산	유	곡	
이			삼		사	
상	소				포	살
	경	무	대			계
태		진		찰		백
몽	타	주		나	침	반

앨범

대중가요에 불심을 싣고

운붕 스님, 속세의 삶 거침없이 노래



경북 포항시 연화산 대성사 주지 운붕 스님이 대중가요 음반 '빈잔'을 발표했다. 스님은 이번 앨범에서 속세의 삶을 거침없이 노래한다. 타이틀곡 '빈잔'에는 '내 아내 내 자식 위해 이리저리 뛰고 또 뛰면서 오늘도 한잔 술에 달래 본다'는 가사가 트로트 가락에 실려 흘러나온다. 그러나 결코 속되지 않다. 중생의 삶 가까이에 서서 듣고 느끼는 노래를 담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쉽고 호소력 있는 대중가요 리듬에 탐냄과 성냄을 버리고 사랑과 인정을 취하는 내용의 가사를 실었다"고 말했다. (054)247-7563

동 · 서양 소리의 어울림

유경화 신종 국악기 철현금 연주



거문고나 가야금, 혹은 서양의 기타가 한데 어우러진 듯한 묘한 음향을 가졌다. 8개의 쇠줄을 술대로 튕기거나 뜯어서 연주하는 이 악기는 '철현금(鐵玄琴)'. 1940년대에 고안됐다가 소리소문없이 잊혀져 간 신종 국악기다. 철현금의 매력적인 음색을 담은 첫 음반이 발매됐다.

철현금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은 거문고를 전공한 유경화씨. 그는 "감이수통(感而遂通)의 변화를 만드는 연주자"라는 평가를 듣는 국악계의 젊은 인재다. 감이수통이란 '느껴서 드디어 통하게 된다'는 뜻.

앨범은 불교적인 주제가 돋보인다. 산사에서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의 삶을 형상화한 '망각이 새'가 대표적이다. 깨달음을 위한 치열한 수행의 여정이 계면조('라' 음계)와 메나리조('미' 음계) 음색에 그대로 살아났다. 불교음악 선율을 담은 '영산회상'과 무속의 세계를 형상화한 '화두'도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 무료 영화 상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6월 호국 · 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 · 감사 · 화합'을 주제로 '좋은 영화감상회'를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야외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영화감상회에는 '태극기 휘날리며(25일)' '트로이(26일)' '인생은 아름다워(27일)' 등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25일에는 '꽁보리밥 먹기' 체험 이벤트도 마련된다. (062)570-7002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0일 06:00 불교강좌
21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2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3일 07:05 아침저널
24일 09:05 행복한 미소
25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26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0일 08:00 명상음악산책
21일 15:10 명상육아
22일 14:25 불교TV 메디컬
23일 15:10 휴먼다큐
24일 16:40 향토음식기행
25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26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6월 24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6월 23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음이온 석재 다보탑



경주 불국사에서 그 아름다움의 명성을 널리 떨치고 있는 다보탑을 소장형 작은 사이즈로 제작한 상품이 나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음이온 석재 다보탑'은 실제 석가탑의 1/45 크기로 다보탑의 섬세한 예술미를 잘 살려내 소장가치를 높인 고급 제품이다. 자연 대리석에서 방출되는 음이온이 몸에 이로운 기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은은한 야광효과까지 발산해 실내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오동나무 고급박스에 포장, 선물용으로도 손색없다. 가격 39만 8000원.

이영화 어떠세요?

이와이 슌운지의 색다른 SF 블록버스터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감독: 이와이 슌운지 출연: 이토 아유미, 미카미 히로시 상영시간: 147분 등급: 18세 이상



코미디, SF, 액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마침내 영화 결말에서 멜로로 거대하게 흐르는 놀라움. 이렇듯 강렬한 영상파워를 지닌 영화가 바로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다. 이 영화는 단순히 헐리우드식 SF가 추구하는 화려한 비주얼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시나리오 집필과 각색에 4년이 걸렸고 영어와 중국어, 일어를 넘나드는 국제적인(?) 대본 윤색에는 20명의 동시통역사가 투입된 그야말로 메이드 인 저팬식 블록버스터다.

2030년 가상의 시대. 일본은 세계 최강국이다. 일본의 엔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화폐이고 각국에서 모여든 불법 이주민들로 가득 채워진 도쿄의 변두리는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사람들은 그 이주민들을 '엔타운'이라 부르고 이주민들은 일본을 '엔타운'이라 부른다. '엔타운'에 사는 가난한 여인 '그리코'. 그리고 그녀를 오빠처럼 돌봐주는 '페이 홍'과 '란'. 꿈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도 한없이 밝고 뜨겁기만 한 네 젊은이들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들을 또 다른 시련으로 인도하는데….

이 영화는 1900년대 중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무작정 화와이와 LA로 떠났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과 너무나 닮은꼴이다. 많은 문화차이, 약소국가의 국민이라는 설움 등을 견디며 그러나 마음속 시들지 않는 희망을 품고 살았던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봄직한 영화가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나를 바꾼 부처님법 (상)

조남희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나는 2000년 말에 불법을 처음 만났다. 그 당시 나는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었다. 40여년을 욕망만 키우며 욕심으로 살아온 나의 삶이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어긋나며 집안에까지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이사람 저사람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나에게 시아버님의 영가천도를 해보라는 친구의 권유가 있어서 솔깃한 마음에 가까운 절에서 영가 천도재를 하게 되었다.

그날 처음으로 대웅전이라는 법당 안에 들어가 보았고 좌, 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거느린 불상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재를 치르며 부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도록 무지한 일이었지만 그 때는 부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

천도재 집전을 마친 스님께서는 "백일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권하셨다. 그래도 선업공덕이 있었는지 스님의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바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그 해에는 눈이 많이 왔었다. 눈이 많이 와서 절의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올라가 기도했다. 기도하는 기간 중에도 기도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일이 생겼지만 스님께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나중에서야 그런 장애가 나의 업장임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백일기도를 회향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마음속에는 더 큰 바람과 욕심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보면 "염불수행, 기도수행, 참선수행을 하면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는데 나는 집착이 더 커지고 욕심은 더 쌓여만 갔다. 더구나 어처구니없게도 욕심어린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부처님에게 원망의 마음을 키우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좀 더 불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을 찾았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수원포교당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불교기초교리를 배웠다. 성관 스님을 비롯해 많은 스님들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다. 스님들은 한결같이 "기도는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잠시뿐이었다. 마음이 평온해지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과거에 대한 회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족 등 인연 지워진 것에 대한 불만과 욕심 등으로 괴로움만 더 쌓여갔다.

> **바람 가득한 기도에 대답없는 부처님 원망**
>
> **꾸준한 신행생활로 불법에 대한 믿음 키워**
>
> **일과 수행 놓고 갈등, 마음 다스리는 명상 시작**

그러자 쌓여만 가는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히 일어났다. 그리하여 인터넷도 찾아보고 큰스님들의 법문도 들어보고 하던 중에 법륜 스님이 이끄시는 정토회를 알게 되었다. 당시 정토회에서는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대중이 궁금한 점이나 일상사의 괴로운 점을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주는 것이다.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초동의 정토법당으로 찾아갔다. 그 때가 12월 연말이었는데 법당은 앉을 틈도 없이 대중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중들이 묻는 질문마다 스님께서 어찌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환희심이 저절로 생겨날 정도였다.

그 날부터 정토법당에 등록하고 수요법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신행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듣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불법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더 열심히 신행생활을 해나가고 싶은 환희심에 정토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4차 천일결사의 두 번째 백일기도에 입재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침마다 예불, 108배, 명상, 경전독송 등 수행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게 되었다.

이 수행프로그램에는 매일 10분씩의 명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토회의 수행법요집에는 명상을 할 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는 말만 짤막하게 적혀있다. 그 설명에 따라 명상을 하려고 앉아보았지만 처음에는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호흡을 세지 않고 망상을 펼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10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 시간조차 숨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내 망상만 하고 있다 보면 10분이 지나있기 일쑤였다.

그래도 예불과 108배 그리고 경전독송은 나름대로 정진을 하면서 2차 백일기도를 끝내고 나니 나도 남을 위해 봉사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1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 정토회의 북한 및 제 3세계 구호 단체인 J.T.S에서 회원관리 업무를 맡아 봉사를 하게 되었다. 정토회의 J.T.S는 모두 자원봉사자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연결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다.

또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J.T.S본부가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갈등과 사람에 대한 갈등이 생겨 오히려 마음에 괴로움이 쌓여 갈 때도 많았다.

지금이라면 위빠사나 수행을 알기에 그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을 보고 받아들이면서 일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때는 일과 사람에 휘둘리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다. 그러는 와중에 집에 일이 생기면서 자연히 봉사는 1년 여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법륜 스님의 지도하에 1주일에 한 번씩 4주 동안 열렸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번 기회에 명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법륜 스님은 테라와다 불교 수행법이라고 하시면서 사념처관이라도 하고 위빠사나라고도 한다고 알려주셨다. 나는 그 때 위빠사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법륜 스님은 계정혜 삼학과 팔정도를 중심으로 설하셨고, 아나빠나싸띠와 느낌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고엔카의 수행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때 약 400명 정도의 대중이 법문을 듣고 반가부좌한 채 좌선을 하면서 코의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살폈다. 어느정도 집중이 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느낌을 보는 명상을 했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영산범음집 한문본 증정)

영남범음범패집 카세트. 비디오와 상용천도집. 영산범음집 한문본을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기치유란 ?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척추교정 등 물리적 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요법입니다.

한국기치유 연구회 윤한흥회장 직접수련지도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수련생 모집

기치유 개강안내

- 교육 기간 : 2005년 6월 18일~8월 13일(9주과정)
- 교육 시간 : 오후 2시 30분~5시 30분 매주 토요일
- 교육 내용 : 기초이론 및 명상법
  기를 강화하는 수련
  치유기 개발하기위한 특수명상
  기치유 실습

* 참고 서적 : 기치유와 기공수련/기치유학 (윤한흥 지음)

문의 하세요... http://gi-clinic.pe.kr • 기치유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2268-1500

지난 6월 6일, 중국의 중앙TV(CC-TV)는 "장쑤(江蘇)성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1,000㎏의 비뤄춘을 압수 조사한 결과, 납 · 크롬 등 중금속이 허용치의 60배까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구이저우(貴州)성에선 값싼 찻잎에 공업용 염료로 쓰이는 녹색 분말을 섞어 '가짜 비뤄춘'을 만들어 판 업자들도 함께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국내 차인들의 반응은 "어디 비뤄춘 뿐이겠는가"다. 현재 무분별하게 수입 · 판매되고 있는 중국차들 중 농약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된 차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차계의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이다.

농약 범벅 "속 상하네"

중금속 함유된 중국茶 '비뤄춘' 적발에 차인들 "어디 이뿐이랴" 반응



중국차에 대한 국내 차인들의 관심이 높은 요즘, 중국에서 중금속이나 공업용 색소가 함유된 녹차가 적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돼 차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사진은 본문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박재완 기자

■수입차, 안전한가?

농산물유통공사가 2001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녹차는 총 239t. 그러나 박용구 교수(경북대 임학과)는 "현재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선 40%, 쿼터 초과 수입량은 50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입 · 유통되는 물량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중국이나 대만 · 일본 여행객들이 구입해 들여오는 차도 적지 않은 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입 차에 대한 품질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식 절차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수입하는 차의 경우 안전성 검사는커녕 수입 후 보관상태 조차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기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상표등록 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의 대부분은 안전성 검사를 마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거나 수확 후 저장 중인 농산물의 시료를 채취하고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폐기 및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알음알이로 유통되는 차의 경우다. 일명 '야생 차'를 채취해 차를 만들고, 이를 지인들끼리 나누어 마시는 것은 차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처럼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안전성 검사나 식품검사 등의 과정이 생략된 채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곡천다원의 이호복 대표는 "최근 몇몇 다원들이 '유기농 농산물'이나 '친환경 인증' 제도를 신청해 자발적으로 안전성 검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한다.

■공인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돼야

수백만을 헤아리는 국내 차인들이 안심하고 차를 마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희선 교수(성균관대 예절다도학과)는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인 기관 혹은 국가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인 단체가 설립됨으로써 수입 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들이 믿고 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차문화협회 김해만 사무처장은 이에 더해 "소비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 상인이나 주위의 소문에만 의존해 차를 구입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품질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 여행 시 공인된 차 판매장 이외의 곳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뛰어난 약리 효능으로 국민들의 '건강 파수꾼'으로 떠오르고 있는 차가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관계 당국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여수령 기자

보따리 장사 · 무등록 농가 알음알이 유통 문제
안전검사 기관 설립 및 소비자 분별력 길러야

또한 찻잎 자체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가공 · 판매할 경우, 찻잎이 '야채'로 분류돼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 차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공인 단체가 없는 현실에서, 여러 차 단체들 역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차인연합회 전우벽 사무국장은 "차 관련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차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 차에 대해 규제할 법적 근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우리나라 차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 유통되고 있는 차는 어떨까? 우리나라 차는 안전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우리 녹차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시험장 김주희 실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 농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1~2번

고전 · 차 정신 담은 다서 2선



<다경(茶經)>과 '다선일미(茶禪一味)'는 각각 차의 고전과 정신을 대변하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실제 <다경>을 꼼꼼히 읽어 보고, 다선일미의 참뜻을 헤아려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최근 발간된 <다경도설>과 <다선일미>는 이 두 세계로 차인들을 이끈다.

<다경도설>은 당나라 시대 육우가 지은 <다경>을 그림과 사진, 도표를 사용해 풀어낸 책이다. 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차나무의 수종(樹種)과 다양한 다구의 모습을 사진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다경> 원문 외에도 '육우 연표'와 '육우 전기', '역대 <다경> 서(序) · 발(跋)'을 실었다

동아시아선학연구소와 명원문화재단이 펴내는 '차학 신서' 2권 <다선일미>는 오늘날 '차의 정신'으로 일컬어지는 '다선일미' 사상을 살펴보는 책이다. 중국선한연구와 월간 <차의 세계>가 공동주최한 '한 · 중학술회의' '남전보원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을 가려 엮었다.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선일미' 사상이 송나라 원오극근 선사로부터 조선시대 초의 선사와 추사 김정희에게로 전해져 '명선(茗禪)'으로 거듭나게 된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다선일미의 연원을 밝힌 후 선종의 차문화 전개양상, 마조선과 다선일미의 관계, 송대 선차문화, 한 · 일 다선일미의 원류 등을 차례로 짚어보고 있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 차문화계가 주도해 선차(禪茶)가 한국 차정신의 정통으로 굳어져가고 있는데, <다선일미>는 이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시대 ⑧



의약, 건강에서 제의 속으로 자리잡아
퇴계, 율곡 등 대가들 가례 필수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차는 생활 전반에 걸쳐 깊이 파고들게 된다. 의약서적은 말할 것도 없고 한자 학습교재나 사서류에까지 차에 관한 글들이 실린다. 주희에게서 주창되어 유교적 의례 속에 자리 잡은 차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차는 서민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으니 이제까지는 주로 의약이나 건강을 위해 쓰이던 차가 제의 속으로 자리 잡게 되며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된다.

퇴계나 율곡 등의 대가들도 차를 즐겼으며, 가례(家禮)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등장했다. 선비들의 차는 공식적인 다례 이외에도 계회(契會) 등에서 사랑받았다. 선가(禪家)의 차생활도 융성하지는 못했으나 종전대로 유지되었다.

중국은 계속해서 차인들이 차 이론서(茶理論書)를 쓰고, 자기문화(瓷器文化)도 의흥(宜興)을 중심으로 자사다기(紫沙茶器) 생산이 본격화되어 명장(名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① <훈몽자회>는 1527년 최세진이 만든 한자학습서로, 3360여자의 훈(訓)과 간단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그 안에 차와 찻그릇에 관한 글자가 여러군데 나온다.

② 이행(1478~1534): 호는 용재(容齋). 중국에 다녀온 차인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찬진했다.

③ 정관대사(1533~1609): 대둔사에서 일생을 보낸 다승(茶僧)으로 여러 편의 다시가 전한다.

④ 최연(1503~1549):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다시 <음다(飮茶)>에는 당시의 음다풍속이 들어있다.

⑤ 이이(1536~1584): 율곡은 우참찬, 판돈령부사를 지냈으며 중국에 다녀와서 차를 더욱 애용했다. <격몽요결>에서 '유식(侑食) 후 진다(進茶)한다'고 기록했다.

⑥ 권문해가 쓴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사서다. 고려와 조선의 차 이름(孺茶, 智異茶, 曹溪茶, 腦原茶)이 나온다.

⑦ 사찰의 정비와 승려의 환속이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찰의 차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⑧ 홍섬(1504~1585): 명상(名相)으로 차를 즐겨 다시도 전한다.

⑨ 고염(1527~1603): 명대 희곡작가로 '준생팔전'을 썼으며 그 내용에 차에 관한 것이 여럿 나온다.

⑩ 허차서: 명대 차인으로 <다소(茶疏)> 4700여자를 써서 다학의 깊이를 더했다.

⑪ 호문환: <다집>을 쓰고 '고기구명(古器具名)' 등을 남겼다.

⑫ 서발: <다고>에 무이차에 관해 쓰고, <채단명별기>에서 '명담(茗譚, 송대차)'에 관해 썼다.

정영: <다보>를 썼다.

왕문: '호구명완기창도(虎丘茗碗旗槍圖)'가 있다.

풍시가: <다록>을 썼다.

왕상진: <다보>와 <광군방보>를 썼다.

⑬ 시대빈: 명대 도공 시붕의 아들로 후에 의흥의 명장이 됐다.

⑭ 장겸덕: <다경>을 남겼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527 <훈몽자회(訓蒙字會)> ① 약방 설치(중추부)-약재무역 @ 구봉령(具鳳齡)이 <다경>을 읽다 1532 이행(李荇)의 귀양 ② 1533 정관대사(靜觀大師) 출생 ③ @ 최연(崔演)의 다시 ④ 1536 이이(李珥)의 출생 ⑤ 1537 명의 사신이 오다 @ <대동운부군옥> ⑥ 1538 사찰혁파 ⑦ 1539 전라 승려 3000을 군적에 옮김 <신증동국여지승람> 찬진 @ 홍섬(洪暹)의 활동 ⑧	1527 고염(高濂)의 출생 ⑨ @ 허차서(許次?)의 활동 ⑩ @ 호문환(胡文煥)의 활동 ⑪ @ 서발, 정영, 왕문, 풍시가, 왕상진 ⑫ @ 시대빈(時大彬)의 활동 ⑬ 장겸덕(張謙德)의 활동 ⑭	리휴(利休)가 어린 나이로 차 모임을 열다
명대			
남북조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
기성 쾌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 신국판 / 200쪽 / 가격 7,000원
독송집 : 국배판 / 92쪽 / 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 · 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 · 인터넷 주문배달 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총판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신간
· 해설집
· 독송집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님: 아, 또 도로 두번째예요? (대중 웃음)

▲질문자1: 원래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스님: 하하하…. 아주 한 사람이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드는군요.

▲질문자1: 이왕 나왔으니까 다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에서 신행의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인공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안으로 녹이고 들어가면 그걸로써 모든 것이 다 끝이지,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은 다 군더더기고 사족인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업식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저희들의 녹이지 못한 그 인연으로 모르게 누가 되고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혼상제 같은 중요한 예법 중에서도 제례, 제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 말씀대로 우주떡 하나 놓고 물 한 그릇 놓고 꽃 한 송이 놓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도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걸 몰라서 막상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양을 할 때에 선원에서는 합장을 하고 공양을 잘하면서, 나가서 기독교인들은 참 잘하는데 우리는 잘 안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합장을 먼저 하는 기독교인들 보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주인공 생각이 뒤늦게 나거든요. 그렇지만 행이 바로 잘 나와지질 않아서 그렇게 마음은 뻔하면서도 제 때 제 때 발휘가 안됩니다.

또 우리들이 선원에 들어올 때부터 법당에 앉을 때까지의 여러 가지 예법들, 하다못해 절하는 자세도 참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법도 하나의 행의 규범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요식이랄까요, 절차랄까요. 그러한 행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스님께서 문서로 하시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웬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살이엔 말이 많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 습관되고 찌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거기다가 놔야 되는데, 놓다가 못 놓다가 놓다가 못 놓다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게 조금 미흡하구나.' 할 때는 거기서 체험을 좀 하게끔 합니다. 자기 근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끌어 주는 마음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하고서 그 줄을 잡고 '아, 이럭하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곤 그 줄을 잡고, 하나를 잡고 갑니다. 가다 보면 엉뚱하게 또 딴 걸로 돼 가지고 딴 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건 왜 그러냐? 세상만사가 용도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한 용도의 한 굴림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용도가 오든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려서 자기네가 지혜를 낳아서 이게 작용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네 스승을 네가 스스로 찾아라 이겁니다. 네 스승을 네 스스로 찾는다면 그 안에서 다 길잡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서 굴리는 도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먹지 않던 것도 자기가 먹어 봐야 그 맛을 알듯이 본인이 먹어 보지도 않은 맛을 어떻게 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신이 돼서, 즉 말하자면 약사보살이 탁 응신으로서 응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서 병명이 나와야 그 밑의 간호원들이 다 움죽거리죠? 통신이 돼야 보살들이 움죽거리죠, 응신으로서. 그러니까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공부가.

그래서 조심할 건 바깥으로만 끄달리지 말아라 이거죠.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내 생각으로는, 옛날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지어서 지금 그냥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각자 자신을 믿어야지, 너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건 마구니의 짓이니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각자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나를 믿어야지' 요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전부 마구니의 짓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 모두 예수님 하나로 그냥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껍데기를 찾아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자기의 마음이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도 둘이 아니게 통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똑바로 '각자 너희들의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허깨비 같은 일이고, 모두가 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도깨비 같으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럼 두번째 끝났습니까?

▲질문자1: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고난과 액난을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믿고 놓고 관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고 가고 돌아 돌아 어떠한 고난이나 액난이 그냥 사라져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고,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회향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막상 고난과 액난이 닥쳤을 때에는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해서 온 거는 아니지마는 어찌됐든, 어차피 겪어야 될 고난이나 액난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공부의 재료고 스승이다. 스승님이 나를 가르쳐 주러 오셨다 하는 생각을 내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 경계가 하나의 회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고난과 액난을 적극적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거기서 정말 또한 소식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향은 좋고 감사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는 그 회향이 더욱 큰 정진의 거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 회향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죠. 지금 현재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인생의 회향을 어떻게 해야만 잘했다고 하느냐는 회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집안을 난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회향을 마치느냐, 또는 부인을 둘 셋씩 두어서 서로 은혈이 지게끔 해 놓고 회향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수수하게 잘 살다가 회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는 그러한 일념으로써 살아나가면서 회향을 하느냐 이런 거죠.

또 이러한 공부를 하는 스님네들의 일체 회향이 있습니다. 일체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회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서 회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살아서 회향이 있는 까닭에 살아나온다 죽는다 이런 언어가 막히는 겁니다. 죽은 뒤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열반이 되고 회향이 돼야 진짜 그것은 삼세를, 즉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찰나찰나 나투면서, 우주와 이 대천세계를 찰나찰나 나투면서 보고 듣고 행하고 맘대로 자유권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유권을 얻음으로써 지금 부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말을 했다 하면, 그 넓은 끝없는 바다 가운데서 도장을 받았다, 이 소리나 똑같은 얘깁니다. 해인(海印)을 받았다, 해인을 받는다고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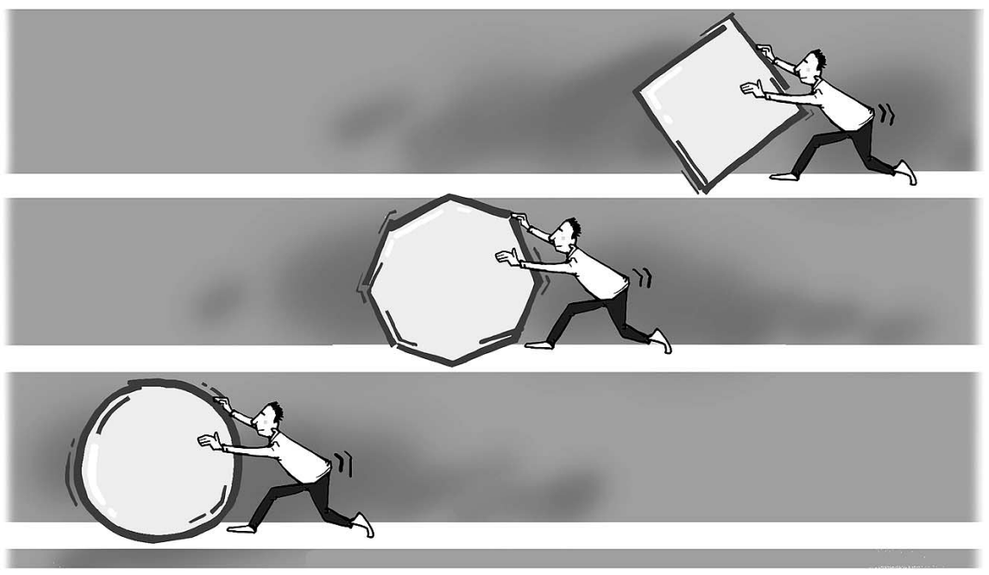
그런 까닭에, 죽어서는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대의의 공부를, 죽고 사는 생사를 다 끊을 만큼 공부를 못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고(苦)도 낙(樂)도 없어서 공부가 아니 되죠. 낙도 고도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자기를 다스리고 공부가 되는 거지, 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야 생사를 초월하고, 또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다, 가신다, 이런 언어가 끊어지고 살아생전에 회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지에 회향을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일체지를 회향을 한다 이런다면 그 회향이라는 이름도 방편입니다.

회향이라는 이름도 방편이지 회향이라는 그 자체는 찰나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집에까지 데려다 놓는다.' 요게 회향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바깥에다 놔두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안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회향입니다. 밥을 했으면 먹고 치운 게 회향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무엇을 맡아서 해 준다 그래 놓고 끝을 마치지 못하는 건 회향이 못 되죠. 그래서 그렇게 끝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은 애당초에 그런 일을 맡지를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맡지를 않죠. 내 능력과 내 분수를 알고 내 능력이 되는 일을 해서 끝을 마치죠. 그게 회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들뜬 마음에서 그냥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뿌려 놓고 자기가 회향을 못하고 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찰나찰나 회향이지 회향이 따로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진실하게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둔다. 나는 절대로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속인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스무드하게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또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러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렇게 착하기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양면을 다 줬습니다, 법도. 그래서 불, 법, 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맡아야 회향을, 끝을 잘 맺는다.' 고 했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보증을 서 주거나, 빚 보증을 서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봐서 만약에 그 집에서 안 갚아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또는 그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집이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각자 자기의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허깨비 같은 일이고

모두가 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도깨비 같으니라!


그림 · 최주현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굴려라!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나 보증을 서는 거지, 아무한테나 보증 서는 게 아니죠. 자기 집 한 채 놓고 땅 몇 뙈기 있다고 보증을 탁 서 놓고선 그거 홀딱 뺏기고 거지가 돼 가지고 식구들까지도 다 거지를 만들고 이러는 건 회향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착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따로 있어요. 똑똑하고 착한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희미하게 살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니죠. 정확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인자하구요, 둥글고….

▲질문자1: 오늘 이 질문이 조금이라도 공덕이 된다면, 이 공덕이 우리 선원의 연세 많으시고 몸 불편하신 모든 보살님들에게 회향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스님: 아유, 그렇게 말씀 마시오.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거요, 우주 천하가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부처님만 자꾸 섬기기에 부처님을 갖다가 그냥 바깥에 내다 놓고 부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이 부처를 믿고 온다면 다 안 와도 좋다.' 이랬습니다. 다 안 와도 이 법당 안에 꽉 차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형상을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같이 둘 아니게 생각해라. 내 몸과 둘이 아니요, 내 생명과 둘이 아니요, 내 마음과 둘이 아니니까 그 둘이 아닌 걸로만 알고 나가라.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한테 다 일임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일념으로써 삼정례를 하든지, 급하면 일정례를 하든지, 팔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그러되, 그 정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네가 다 가지고 안고 가는 게 주인공이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는 자기가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변소에 앉아 있으면 변소에 계시고, 들에 서 있으면 서 있는 부처가 들에 계시고, 바깥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부처가 계시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부처가 계시고, 또 방 안에서 자면 자는 부처가 계시고,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큰일이죠.

내 뿌리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뿌리만이 가지와 잎새에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질문자2: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지난번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법회를 성황리에 마치게끔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한마음 공부를 접하게 된 인연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에 관할 때마다 제 마음이 다 전달되기를 바라지마는, 그 마음이 아마 전달이 못 된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스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싶고, 두번째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공부를 접하게 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일반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으며 전생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전생에 가졌던 그 업을 우리가 이승에서 다시 만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 두 가지가 다입니까? 그러면 다니신 지가 얼마 안 되는군요.

▲질문자2: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스님: 신참이군요. 하하하….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했죠? 댁의 마음이 당차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그 마무리를 못하는 것을 주인공에다 맡기고 하려면 댁의 말마따나 통신이 돼야 하는데 통신은 되지 않고 힘들겠죠. 내 팔자 한탄까지 나오구요. 그렇지마는 절실히 믿고…, 지금 댁과 같은 상황 속에선 옴짝달싹도 못하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땐. 하지만 진짜로 믿어서 통신이 된다면 귀인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불이 났어도 그 불덩이 속에서 빠져나가는 놈은 벽이 없고 봇장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지, 문만 찾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못 빠져나가죠. 아직은 댁에서 신참이 돼서 그걸 잘 납득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댁의 나무는 댁의 뿌리만 믿고 '너 뿌리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어. 뿌리만이 가지와 잎새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어.' 하고서 모든 걸 거기다가 하세요.

▲사회자: 질문 이제 끝났습니다.

▲스님: 그러세요? 그럼 뭐 다행이로군요. 하여튼 찰나찰나 회향이 있지, 미래에 회향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 올려놓고 예불 모시고 마지 내려가면 회향입니다. 그거와 같이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찰나 찰나, 내가 얼마나 뿌리고 얼마나 거뒀는가 그것이 정확해야만이 회향이 찰나찰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역시 아주 준엄하게 가르치신 뜻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합장하시며) 더운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대중 웃음) 이렇게 동참하시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요 '야, 우리의 인연도 보통의 인연이 아니로구나. 지금 세(世)에만 만난 게 아니라 수억겁 세에도 우리는 같이 만나서 공부를 했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친구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도 됐었고 남자 친구도 됐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도 됐었고 그냥 자기가 자식도 됐었고, 자기가 부모도 됐었고 그냥 겁을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들 공부하세요.

(합창단을 향하여) 음성 공양을, 공양을 또 잘 들어야죠. 공양이란 말 무슨 소린 줄 아시죠? 합창하는 게 공양이에요. 공양!

※위 법문은 1996년 6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제 48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6월 25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교육 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뇌졸증!
민간요법으로 대비하세요.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지가 최선입니다.



폴시노 요법으로 예방하십시오.
일본의 큐슈 가고시마현 지방에서 유래되어 게이쇼엔 양로원 노인들이 실험하고 비방을 증언하여 일본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민간식품 요법으로 이미 수만 명이 실험하였고, 음용한 분들은 아직 한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소개되어 10여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으며, 국내에도 여러 경로로 소개된 방법의 민간 식품입니다. 국내에도 각종 경로로 전파된 정확치 않은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이미 음용한 경험자도 있는 뇌졸증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요법이니 본 요법을 평생 수회만 반복 음용한다면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접해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폴시노 음용자로 등록하여 회원이 되시면 뇌졸증 발생시 보상 지원금을 드립니다.
(구입 금액의 300% 보상지원 : 단, 5년간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 허가 신고번호 : 인천 제3-3-4호, 구로 제조 142호
● 품명 : 폴시노 / ● 주원료 : 매실, 머위, 기타, 혼합물
◆ 콜라겐 체감석도 판매합니다 ◆

취급점 및 주부사원모집

오성생활건강 사업본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4-3호 하은빌딩 202호
전화 02)542-5214. 010-6347-6200
팩스 02)542-5215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잘 입은 옷 한벌 보약 안 부럽다

올여름 웰빙 패션으로 건강 챙기기

지난해 까지만 해도 민감성 피부염 환자였던 박진홍씨(42)는 여름이 무서웠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각종 피부염과 땀띠 등으로 박씨의 피부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숯과 황토 등으로 천연 염색한 모시 속옷을 입고부터는 10년 넘게 앓아 온 여름철 피부병 걱정을 말끔히 씻었다. 은과 황토와 모시 등은 항균, 피부노화 예방,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 줘 여름철 피부와 냄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은나노, 모시, 황토, 솔잎 등이 함유된 웰빙의류로 올 여름 건강과 패션감각을 챙겨보자.

항균, 무좀 · 습진 예방에 은나노 의류



최근 은나노가 사랑받는 의류 소재로 자리 잡고 있다. 고대부터 자연항생제로 사용돼 왔던 은(銀)은 특유의 항균 작용으로 의복재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은이온은 양전하 발생을 억제해 질병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열 및 보온 효과도 좋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편이다. 노벨의학상 수상자 오토 와버그(Otto Warberg)는 무독성인 은은 인체에 부작용이 없고 장티푸스, 무좀, 습진, 화상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부노화 예방 및 피부영양 공급 효과가 있는 의류



요즘 콩과 녹차에서 추출한 성분을 첨가해 만든 의류가 인기다.

김성호 Fnc코오롱의 연구개발팀장은 "콩으로 만든 속옷은 산화 반응을 막는 토코페롤과 사포닌이 있어 피부노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또 김강한의원 김강 원장은 "녹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많아 노화를 방지하고 레몬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유기물이 풍부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한다.

비타민E와 아로마 오일을 캡슐로 만들어 섬유 사이에 투입시킨 옷도 있다. 이 옷은 피부와 섬유 간 마찰이 일어날 때 캡슐이 터지면서 비타민의 영양분이 피부에 흡수된다. 특히 비타민E는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아토피를 완화시켜 준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의류



피부 미용팩으로 널리 사용되던 황토가 웰빙 바람을 타고 의류 첨가제로 각광받고 있다. 황토를 첨가한 의복은 원적외선이 나와 세포의 생리작용과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체온이 상승되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땀이 배출되는데 이때 체내의 각종 노폐물이 빠져나온다는 의학적 원리를 적용시킨 것이다.

황토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니다. 산성화 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체질을 알카리성으로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자연스런 체질 개선으로 인체면역력을 스스로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 · 박구원

통풍성 ·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의류



삼베와 모시는 땀 흡수가 빠를 뿐 아니라 곰팡이를 제거하는 항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의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또 산딸기의 일종인 라즈베리 향기입자를 의류 원단에 적용해 비만인들의 눈길을 끄는 의복도 있다. 의류에서 나오는 라즈베리 향기를 맡으면 지방이 분해 되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동(銅)-전자파 차단, 엽록소-피부 노화방지



동을 넣어 만든 의류는 전자파 차단효과가 있다. 5mm 간격으로 전자파 차단 성분인 동 섬유를 넣었다. 동 섬유를 타고 전자파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솔잎에서 추출한 엽록소와 옥시파르티민산을 넣어 만든 의류도 있다. 엽록소는 피부 괴질 등에 옥시파르티민산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다.

노병철 기자

(도움 말=김강 한의사)

은나노, 황토, 솔잎 활용한 웰빙 의류

항균 화상 땀 흡수 아토피 등에 효과

■ 손쉽게 만들어 보는 웰빙의류 · 이불

포인트: 웰빙의류는 가급적 면재질의 흰색옷이 좋다. 웰빙이불은 가로 1.5m 세로 2m로 재단된 삼베 및 모시 원단을 구입한다.

만들기: ①만들고 싶은 웰빙의류의 재료를 선택한다(황토, 숯, 솔잎, 녹차 등 택 1). ②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선택한 웰빙의류 재료를 넣고 30분~1시간 삶는다. ③ 의류나 이불을 넣고 1시간~2시간 동안 삶는다. ④삶아진 의류나 이불을 30분간 식히고 닥나무를 넣어 다시 1시간 동안 삶는다. ⑤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고 그늘에서 건조하면 웰빙의류나 이불이 완성된다.



'마음 몸 말' 잘못 쓰면 병 생긴다

룽은 신체 세 기본에너지의 하나로 성질이 공기(氣) 또는 바람(風)과 같다. 그 성정은 움직이고(動) 가볍고(輕) 차가우며(寒) 미세하고(微) 딱딱하며(硬) 거친(粗) 여섯 가지 이다. 그래서 같은 성정을 지닌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룽의 흐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커피 차 돼지고기 염소젖 요구르트 후추 흰빵 코카콜라 초콜릿 레몬 등이 바로 룽의 성정을 지닌 먹거리들이다.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우연한 사고 역시 룽의 장애를 부를 수 있다. 과도한 절식(節食)과 일욕심, 과로와 스트레스, 출혈과다, 무절제한 성생활,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룽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만성설사와 구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 비통해 하여,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신체의 배출기능을 억눌러서, 빈속에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리고 지치도록 울어서 자연스런 룽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다.

환과 왜껜병은 서구에 매우 흔한 반면 때빠장애는 인도와 같이 무더운 지역에 이환율이 높다.

오감(五感)을 잘못 사용한 탓에 발생하는 장애도 많다. 오감은 지나치게 사용하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예컨대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나 TV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거나 책을 계속 본다거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물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눈을 상할 수 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오래 앉아 있어도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로는 누군가가 토해낸 것 배설물 또는 피와 같이 역겨운 것을 보고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풀밭을 스쳐지나가는 뱀 같은 동물을 보고도 징그러워 온몸이 오싹 얼어붙고 만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시각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림해 볼 수 있다.

마음 몸 그리고 말을 잘못 씀으로 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 신체활동으로 몸이 상할

지나친 음식 섭취는 룽, 때빠, 왜껜 흐름에 장애
장시간 TV · 컴퓨터 주시 등은 시각에 큰 손상

때빠는 불(火)과 같은 성질을 지녀 뜨겁고(熱) 격렬하고(銳) 기름지고(貳) 냄새나며(臭) 씻어내고(瀉) 축축한(濕) 성정을 띤다. 그래서 같은 성정을 지닌 알코올 양고기 오리고기 계란 마늘 고추 버터 우유 치즈 크림 견과류와 구근같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신체의 열기가 증대되어 때빠에 장애를 부를 수 있다.

더위에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화가 끊이지 않거나, 한낮에 오수를 오래 즐기거나, 흙일과 같은 고된 일을 많이 해도 때빠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왜껜은 물(水)과 흙(土)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 성정은 무겁고(重) 부드럽고(柔) 둔하고(鈍) 기름지며(貳) 서늘하고(涼) 한결같고(穩) 끈적끈적(粘)하다. 왜껜의 성정을 지닌 음식물로는 설탕 감자 생우유 채소 찬음식 반숙육 냉장음료 등이 있다.

부적절한 생활습관으로부터도 소화불량과 수분잔유같은 왜껜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배부를때 자는것이나 야식을 먹는 것, 급히 먹는것, 찬데 노출 되는것, 과식, 운동부족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룽질환은 신체 세 기본에너지의 하나로 성질이 공기(氣) 또는 바람(風)과 같다. 그 성정은 움직이고(動) 가볍고(輕) 차가우며(寒) 미세하고(微) 딱딱하며(硬) 거친(粗) 여섯 가지 이다. 그래서 같은 성정을 지닌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룽의 흐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커피 차 돼지고기 염소젖 요구르트 후추 흰빵 코카콜라 초콜릿 레몬 등이 바로 룽의 성정을 지닌 먹거리들이다.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우연한 사고 역시 룽의 장애를 부를 수 있다. 과도한 절식(節食)과 일욕심, 과로와 스트레스, 출혈과다, 무절제한 성생활,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룽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만성설사와 구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 비통해 하여,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신체의 배출기능을 억눌러서, 빈속에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리고 지치도록 울어서 자연스런 룽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다.

수 있는 예로 환자를 자주 들어올려야 하는 간병인이나 땅을 파는 농사군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허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병이 척추장애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맥류가 가장 흔한 병이다.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직업에서도 신체적 좌상이 생길 수 있다. 일례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대는 과다반복운동이 근육조직의 좌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직업과 관련된 병들을 심심찮게 관찰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어느 40대 후반 여성은 고객과의 전화상담에 수 시간씩 매달려 온 탓에 목이 오른쪽으로 굽어 목을 똑바로 곧추세우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 병은 목근육과 신경을 풀어주는 약초를 쓰고 작업환경을 바꿔주면 낫는다.

일반전화보다는 헤드폰이 달린 전화기로 교체하거나 이어폰을 착용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신체활동을 너무 적게 해도 문제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과체중 비만 그리고 무관심 등이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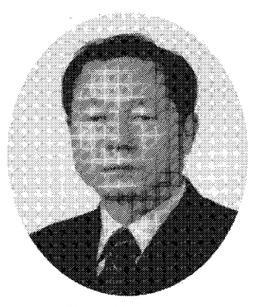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죄송하지만 서둘러 주십시오.

절찬리 분양으로 10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총본산 조계사 옆 오피스텔 분양!

王家의 明堂 종로1가 대성스카이렉스 王家의 明堂

(오피스텔 잔여분 10세대 선착순 분양)



종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인 실속형 오피스텔 – 종로1가 대성스카이렉스

- 불교의 중심지 한국 불교의 총 본산인 조계사가 50m거리에 위치한 불교문화의 중심지
- 문화의 중심지 인사동,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세종문화회관, 교보문고 등이 인접한 문화, 예술의 중심지
- 교통의 중심지 종각역, 광화문역이 도보 1~2분, 안국역 도보 5분거리 트리플 교통의 중심지
- 교육의 중심지 최고의 전통적 명문학군인 덕수초등, 청운초등, 경복고, 청운중, 풍문중학교 등 교육의 중심지
- 생활의 중심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및 조선호텔 등 편의시설이 인접한 쇼핑 및 비지니스의 중심지

현장 및 모델 하우스 위치도



오피스텔(18, 20, 23평형) 아파트(44, 51, 55, 56평형) 상가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분양문의 : 02)722-5454(대)

시공사 대성산업 건설부문 시행사 hageo (주)하지오플러스